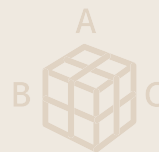


2018년 교육정책 연구보고서

중학교
남녀공학 운영
실태 및 교육적
효과 분석

11권



2018년 교육정책 연구보고서

중학교 남녀공학 운영 실태 및 교육적 효과 분석

11권



중학교 남녀공학 운영 실태 및 교육적 효과 분석

연구진

연구 책임자 | 한미영(경남교육연구정보원)

공동 연구자 | 이경숙(경상대학교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정영택(경남꿈키움중학교)

김익수(경남교육청 정책기획관)

<연구요약>

중학교 남녀공학 운영 실태 및 교육적 효과 분석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김치녀, 된장녀, 한남충’과 같은 여성이나 남성을 비하하는 단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면서, 혐오나 차별 표현의 문제는 어떤 특정 집단의 문제적 행동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비하와 혐오, 차별과 관련된 표현들은 자아정체성뿐만 아니라 정체성이 형성되어 가는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여성 혹은 남성에 대한 무비판적 편견과 차별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성폭력 관련 이슈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성평등 문화 및 성평등 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중등교육 현장에서는 남녀공학 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기존의 남녀공학 고등학교를 남학교 또는 여학교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나 새로 설립하는 고등학교는 남녀별학인 단성학교로 설립하려는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남녀공학의 남녀별학 전환 논란의 중심에는 남녀공학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학생의 내신성적이 불리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남녀공학 교육의 교육적 가치를 학업성적이라는 인지적인 성취 측면에서만 평가하는 것으로, 남녀공학이 청소년기 이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 및 성평등적 시각을 갖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정의적, 사회적 측면은 간과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논란은 성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의 해소, 성 사회성 함양 등과 같은 남녀공학 교육의 본질적 가치나 철학과는 거리가 있다. 더 나아가, 남녀공학에서 여학생들에 비해 남학생들의 상대적인 낮은 학업 성취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청소년기부터 남녀 간의 경쟁과 갈등을 부추기는 원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성평등 교육기회의 제공이라는 명분하에 확대된 남녀공학 교육이 학생들의 인지·정서·행동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즉, 남녀공학과 단성학교 학생들 간의 인지적 성과 측면에서의 차이를 단순히 비교함으로써 남녀공학을 지지 혹은 반대하느냐가 아니라, 그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학교의 성별 유형에 따른 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교육활동 경험이 어떠한가에 초점을 맞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남지역 남녀공학과 단성중학교(남중, 여중), 더 나아가 남녀공학의 남녀 혼성학급과 분리학급 간의 교육경험 및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교육적 성과를 비교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의 세 집단 간의 차이만을 비교함으로써 남학교 남학생과 남녀공학의 남학생, 여학교의 여학생과 남녀공학의 여학생 간의 차이를 분석하지 않은 것을 보완하여, 성별 차이에 따른 학교유형의 효과를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남녀공학 안에서도 남녀 혼성학급과 분리학급을 구분하여 이러한 학급 운영 형태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경험 및 교육적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중등학교에서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남녀공학 교육 및 남녀분리 수업의 교육적 제고 및 내실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경남지역 남녀공학과 단성중학교 간의 교육경험 및 교육적 성과를 비교해 봄으로써, 남녀공학 교육 및 남녀분리 수업에 대한 교육적 제고 및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았다.

첫째, 우리나라 중등학교 남녀공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및 경남지역 남녀공학 현황을 분석하였다.

둘째, 학교의 성별 유형에 따른 논쟁 및 성별 유형에 따른 교육적 효과 등 남녀공학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및 문헌분석을 통해 남녀공학 교육의 장단점을 고찰하였다.

셋째, 최근 대두되고 있는 남녀분리 학교 및 남녀분리 수업 주장에 대한 국제

적 동향 및 국내외 성평등 교육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남녀공학 교육의 변화 추세 및 국내외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평등 교육 현황을 검토하였다.

넷째, 경남지역 남녀공학과 단성학교(남중, 여중) 중학생의 교육경험 및 교육적 성과를 비교·분석하고, 남녀공학 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남녀공학 교육의 교육적 제고 및 내실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3. 연구결과

남녀공학과 단성중학교 학생들의 교육경험 및 교육적 성과를 분석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활지도(생활교육)가 무엇인지를 알아본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폭력 관련 생활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 특히 중학생들의 학교폭력 관련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교육 측면에서 왕따, 집단따돌림 등 학생들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남학교에서는 왕따, 집단따돌림 등 학교폭력 관련 생활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여학교에서는 복장, 두발, 화장 등 용의복장 관련(38.9%)과 학교폭력 관련(38.2%) 생활지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녀공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생활지도가 가장 높았지만, 용의복장 관련 생활지도의 비중 또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남학생만 있는 남학교보다 여학생이 포함되어 있는 여학교나 남녀공학교에서 용모나 복장과 관련된 생활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교육활동에서 여학생에게는 여성다움을 강조하는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남녀공학은 단성학교에 비해 학업성취보다는 이성학생에게 매력이나 인기 등에 가치를 두는 청소년 하위문화가 나타난다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학교유형에 따라 학교의 가치 문화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학교에서 동료학

생들로부터 선망이나 부러움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본 결과, 남학교에서 ‘운동을 잘 하는 것’ 요인이 선망요인 중 하나로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학교유형이나 남녀공학의 학급형태에 상관없이 학생들은 대체로 ‘공부, 성격, 외모’의 세 가지 요인을 중요한 선망요인으로 들었다. 이 세 가지 선망요인 중, 남학생은 ‘공부를 잘 하는 것’을 여학생은 ‘성격이 좋은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 간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같이 남녀공학에서는 단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멋있는 외모나 운동을 잘 하는 것과 같은 신체적 매력이 더 강조되는 반면 단성학교에서는 학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학구적인 풍토가 증진된다는 일부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녀공학 환경에서 학생들의 이성 간 관계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성친구 유무 및 대상을 알아보았다. 알아본 결과, 남학교 남학생과 남녀공학 남학생 간의 이성친구 유무 비율에는 거의 차이가 없으나 여학생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 남녀공학 여학생이 여학교 여학생에 비해 이성친구가 있는 비율이 높았다. 남녀공학의 학급형태에 따라서도 남학생 간에는 차이가 없지만, 여학생 간에는 차이가 있어 남녀합반의 여학생이 남녀분반의 여학생에 비해 이성친구가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녀합반의 여학생이 남녀분반 여학생에 비해 같은 학교 학생과 사귄다는 응답이 높았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녀공학 환경은 남녀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만남이나 교류의 빈도가 더 많고, 이러한 물리적 근접성 요인은 남녀공학 학생들의 이성교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남녀공학 내 이성교제 양상에 있어서는 남녀 간 차이가 있어, 이성과 함께 생활하는 물리적 근접성 요인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은 학교유형이나 학급형태에 따른 이성교제 비율에 큰 차이가 없지만, 여학생은 여학교보다는 남녀공학에서, 그리고 남녀분반보다는 남녀합반에서 이성교제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이성교제에 대해 부정적 인식보다는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이성이 학교생활의 재미나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남녀공학에서 여학생의 존재가 남학생을 순화시켜 부드러운 학교문화를 만든다는 주장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성 친구가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인식에 있어 남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나 남녀공학의 여학생에 비해 여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은 이성교제가 학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이성교제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그들의 이성교제 행동에 영향을 미쳐 이성교제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학교유형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은 교과시간보다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외부강사 초청 특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현재 학교에서의 성평등 교육이 외부강사 초청 특강이나 유인물 배포, 캠페인 등과 같이 일회성 행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학교의 경우 남학교나 남녀공학학교에 비해 성평등 교육을 교과시간에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 그리고 여학교 여학생이 다른 집단에 비해 성역할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가장 진보적인 성역할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향후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또한 학교에서 받은 성평등 교육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알아본 결과 여학생에 비해서는 남학생이, 그리고 남녀공학의 남녀분반보다는 남녀합반의 남학생과 여학생이 더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남녀가 함께 생활하는 남녀공학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남녀 간의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성평등한 역할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성평등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교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속에서 성평등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환경 및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성역할이나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 측면에서 학교유형이나 남녀공학의 학급형태에 상관없이 학생들의 전통적인 성별화된 고정관념 수용 정도는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업적 속성을 일로 표현하여 개별 일 유형이 남성 또는 여성에게 어느 정도 적합한지를 물어본 결과 전반적으로 ‘남녀 간 차이 없다’라는 응답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으로써, “여성 적합 또는 남성 적합” 직

업으로 분리하여 생각하는 직업에 대한 성별 분리 현상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구 또는 공구나 기계를 다루는 일’에서는 ‘남성에게 어울린다’는 응답이 전체 20.3%로 나타났고, 특히 남녀공학의 남학생이 남학교 남학생에 비해 해당 분야의 일을 ‘남성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학교 여학생에 비해 남녀공학 여학생이 해당 분야의 일이 ‘남성에게 어울린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단성학교에 비해 남녀공학 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성 고정관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공학 교육이 성평등한 역할관 함양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남녀공학 환경이 오히려 성역할 고정화를 강화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그러나 남녀공학의 학급 운영 형태와 성별을 고려했을 때 학급형태에 따른 여학생들 간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남학생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녀분반의 남학생이 남녀합반의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공학의 남녀분리 학급보다 남녀합반 학급에서 성 차별이 더욱 드물게 나타나고,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있는 조건이 성역할의 고정화가 상대적으로 덜 나타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준다.

일곱째, 일반적으로 여성이 강세를 보이는 국어 과목이나 남성이 강세를 보이는 수학, 과학, 체육 과목에서의 남녀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과목에 대한 효능감이나 선호도에서의 남녀 차이는 남녀공학의 남녀분반보다 남녀합반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녀공학이 교과에 대한 정형화된 성별 선호를 강화시킨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어나 수학선호도에서의 남녀 차이가 학교유형에 따라 달라지는지, 가외변인들을 통제한 후 학교유형 간 효과를 검증한 다층분석 결과에서는 이러한 학교유형 간 차이가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남녀공학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성별 성적 차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학생들은 교과과목, 수행평가, 내신성적, 비교과활동 모든 영역에서 남녀 간에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녀분반에 속한 남녀학생들에 비해 남녀합반에 속한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성별 성적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적으로 남학생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즉 남녀공학에서 여학생들 때문에 남학생들의 내신성

적이나 수행평가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특히 남녀공학내 남녀합반으로 남녀가 함께 생활하는 학생들이 이러한 성별 성적 차이에 대한 인식이 더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최근 남녀공학 기피 논란과 관련된 학부모들의 일반적 생각이 맞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및 경남지역 중등학교 남녀공학 현황, 학교유형에 따른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해외의 남녀공학 교육 동향 및 국내외 성평등 교육 사례, 그리고 남녀공학과 단성중학교의 교육경험 및 교육적 성과를 비교한 설문조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남녀공학 교육의 교육적 제고 및 내실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정책 제언은 크게 ① 남녀공학 교육의 확대 운영, ② 남녀공학 교육의 질적 제고 및 내실화 추진, ③ 교원의 성평등 교육 확대 및 교원연수 강화, ④ 남녀공학 교육 및 남녀분리 수업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제고, ⑤ 교육과정과 연계된 성평등 교육 실시 및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의 5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남녀공학 교육을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의미의 남녀공학은 같은 학교 내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재학하는 수준을 넘어 남녀학생이 같은 학급에 편성되어 자연스럽게 함께 생활하는 것이라고 볼 때, 상대적으로 경남지역 남녀공학 중학교 수는 적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단성학교나 남녀공학이냐의 여부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들이 계층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 가외변인들을 통제했을 때 학교의 성별 유형은 학업성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남녀공학과 단성학교 간의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측면에서 교육적 효과를 비교했을 때 학교유형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 당장의 학업적 효과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청소년기 이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남녀가 조화롭게 협업의 미래 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성평등 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교육이라 할 때, 남녀공학 환경은 남녀가 함께 살아가는 성인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교육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성과의 관계를 더 자연스럽고 용이하게 만든다. 학교를 졸업한 뒤의 사회생활은 남녀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다. 이런 측면에서 학업성취나 생활지도의 편리성 등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남녀학생을 구분하는 환경보다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더불어 살아가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성인 사회의 삶을 준비하는 데 보다 바람직한 교육환경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남녀공학 교육의 질적 제고 및 내실 있는 운영이 요구된다. 남녀공학 교육의 중요한 장점 중 하나는 학생시절부터 남녀 간의 자연스런 접촉을 통한 반대 성에 대한 이해와 성별 차이를 넘나드는 활동으로 인해 성차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전통적인 성역할 의식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 따르면, 남녀공학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생활지도 및 학급활동 측면에서 교사들의 불필요한 남녀 구분 및 무의식적 성 차별적 발언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남녀공학 내에서 이성을 의식해서 수업시간에 떠들지 않거나 거친 행동 및 언어를 자제하는 것과 같이 이성의 존재로 인해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는 남녀공학의 긍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남녀공학 교육이 성평등한 교육의 장으로서 기능하고 발전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과 개선이 필요한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남녀공학 학교 수를 늘리는 양적인 확대가 아니라 남녀공학 교육 및 남녀분리 수업 운영의 질적 내실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원의 성평등 교육 확대 및 교원연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녀공학 학생들은 남녀공학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학교규칙을 공평하게 적용’과 ‘성별 구분이 아닌 개인의 특성과 적성에 따른 학급활동 배정 및 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특히 남녀공학의 남녀합반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학교규칙을 공평하게 적용’하는 것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였다. 교사들의 ‘남자가’ 혹은 ‘여자가’ 식의 성 고정관념적 발언은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사회의 통념적인 성역할을 암묵적으로 학습하게 만든다. 즉 교사의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젠더 감수성은 교수 과정 중에 직·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이것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의 성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 형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학교장의 성평등 의식과 의지는 학교 전체의 성평등 교육 및 성평등 문화 정착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교원의 성평등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장 및 교원에 대한 성평등 교육 관련 연수를 확대·실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부모들의 남녀공학 교육 및 남녀분리 수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들이 남녀공학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남학생들의 학업부진 현상이다. 또한 남녀공학에서 이성과 함께 있으면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 외모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이성교제를 할 가능성이 높아 학업에 집중하지 못할 거라는 염려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녀공학 학생들은 교과과목, 수행평가, 내신성적 등에서 여학생과 남학생 간에 성적 차이가 크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녀공학 학생들이 특별히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거나 이성교제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도 않았다. 물론 남녀학생이 함께 있으면 교류도 많고 관심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러나 이성 간의 교류 빈도와 관심의 증가가 반드시 문제적 상황을 불러온다고만 볼 수는 없으며, 문제가 생긴다는 의견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남녀공학이라는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다른 가외요인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학부모들의 남녀공학 교육 및 남녀분리 수업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성 고정관념을 깨트릴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교육과정과 연계된 성평등 교육 실시 및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남녀가 함께 생활하는 남녀공학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남녀 간의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성평등한 역할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성평등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평등 교육은 학교에서의 일방적인 지식의 전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 차별 현상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나가면서 내면화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내용이 학생들에게 보다 현실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으로 보강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와 같이 성평등 교육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의 일부 시간을 할애하여 일회성 교육이나 전달식 방법보다는 토론식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학생들 스스로가 남녀가 이겨야 하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면서 공존해 나가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

<목 차>

I. 서론	2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6
2. 연구내용	29
3. 연구방법	29
II. 이론적 고찰	36
1. 우리나라 및 경남지역 남녀공학 현황	36
2. 학교의 성별 유형에 대한 논쟁 및 교육적 효과	44
3. 국내외 성평등 교육 사례	52
III. 남녀공학과 단성중학교 운영 실태 및 교육적 성과 분석	65
1. 남녀공학과 단성중학교의 교육활동 및 교육경험	65
2. 남녀공학과 단성중학교의 교육적 성과	88
3. 남녀공학에 대한 태도 및 개선방안	126
4. 학교유형의 효과 검증을 위한 다층분석 결과	134
IV. 남녀공학 교육의 교육적 제고 및 내실화 방안	140
1.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40
2. 정책 제언	144

참고문헌 151

부록_설문지 155

〈표 목차〉

〈표 I-1〉 본 연구의 지역별 표집학교 수	31
〈표 I-2〉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수	32
〈표 I-3〉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3
〈표 I-4〉 설문조사 내용	34
〈표 II-1〉 전국 시도별 중등학교 남녀분리 및 공학 학교 수	37
〈표 II-2〉 경남지역별 중학교 남녀분리 및 공학 현황	39
〈표 II-3〉 경남지역별 일반계 고등학교 남녀분리 및 공학 현황	40
〈표 II-4〉 경남지역 남녀공학 중학교의 학급형태 현황	41
〈표 II-5〉 경남지역 남녀공학 중학교의 학교규모에 따른 학급형태	42
〈표 II-6〉 경남지역 남녀공학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급형태 현황	42
〈표 II-7〉 경남지역 남녀공학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교규모에 따른 학급형태	43
〈표 II-8〉 중학교 교과별 양성평등교육 내용	53
〈표 II-9〉 고등학교 교과별 양성평등교육 내용	55
〈표 II-10〉 교원대상 양성평등교육 관련 집합직무연수 운영(경남교육연수원)	57
〈표 II-11〉 교원대상 양성평등교육 관련 원격직무연수 운영(한국양성평등교육 진흥원)	58
〈표 III-1〉 학교유형에 따른 학교의 생활교육 중점 내용	66
〈표 III-2〉 학교에서 동료학생들로부터의 선망요인(전체)	67
〈표 III-3〉 학교유형별 동료학생들로부터의 선망요인	67
〈표 III-4〉 학급형태 및 성별에 따른 동료학생들로부터의 선망요인(1 순위만)	68

<표 III-5>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외모에 대한 관심도의 기술통계	70
<표 III-6>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외모에 대한 관심도에서의 차이 분석	70
<표 III-7>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외모에 대한 관심도의 기술통계	70
<표 III-8>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외모에 대한 관심도에서의 차이 분석	71
<표 III-9>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이성친구 유무	71
<표 III-10>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이성친구 유무	72
<표 III-11> 남녀공학의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이성친구 대상	73
<표 III-12>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이성친구의 영향 인식의 기술통계	74
<표 III-13>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이성친구의 영향 인식에서의 차이 분석	74
<표 III-14>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이성친구의 영향 인식의 기술통계	76
<표 III-15>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이성친구의 영향 인식에서의 차이 분석	76
<표 III-16>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교사의 성 고정관념적 발언의 기술통계	78
<표 III-17>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교사의 성 고정관념적 발언에서의 차이 분석	78
<표 III-18>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교사의 성 고정관념적 발언의 기술통계	79
<표 III-19>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교사의 성 고정관념적 발언에서의 차이 분석	79
<표 III-20>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동료학생의 성 고정관념적 발언의 기술통계	80
<표 III-21>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동료학생의 성 고정관념적 발언에서의 차이 분석	80
<표 III-22>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동료학생의 성 고정관념적 발언의 기술통계	81

<표 III-23>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동료학생의 성 고정관념적 발언에서의 차이 분석	81
<표 III-24> 학교유형 및 학급형태별 양성평등교육 경험 유무	82
<표 III-25> 학교유형 및 학급형태별 양성평등교육 시간	83
<표 III-26> 학교유형별 양성평등교육 방법	84
<표 III-27> 학교유형별 선호하는 양성평등교육 방법	85
<표 III-28>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양성평등교육 도움 정도의 기술통계	86
<표 III-29>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양성평등교육 도움 정도에서의 차이 분석	86
<표 III-30>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양성평등교육 도움 정도의 기술통계	87
<표 III-31>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양성평등교육 도움 정도에서의 차이 분석	87
<표 III-32>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국어효능감의 기술통계	89
<표 III-33>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국어효능감에서의 차이 분석	89
<표 III-34>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국어효능감의 기술통계	90
<표 III-35>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국어효능감에서의 차이 분석	90
<표 III-36>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영어효능감에서의 기술통계	91
<표 III-37>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영어효능감에서의 차이 분석	91
<표 III-38>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영어효능감의 기술통계	92
<표 III-39>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영어효능감에서의 차이 분석	92
<표 III-40>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수학효능감의 기술통계	93
<표 III-41>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수학효능감에서의 차이 분석	93
<표 III-42>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수학효능감의 기술통계	94
<표 III-43>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수학효능감에서의 차이 분석	94
<표 III-44>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국어선호도의 기술통계	95

<표 III-45>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국어선호도에서의 차이 분석	95
<표 III-46>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국어선호도의 기술통계	96
<표 III-47>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국어선호도에서의 차이 분석	96
<표 III-48>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영어선호도의 기술통계	96
<표 III-49>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영어선호도에서의 차이 분석	97
<표 III-50>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영어선호도의 기술통계	97
<표 III-51>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수학선호도의 기술통계	98
<표 III-52>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수학선호도에서의 차이 분석	98
<표 III-53>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수학선호도의 기술통계	98
<표 III-54>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수학선호도에서의 차이 분석	99
<표 III-55>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과학선호도의 기술통계	99
<표 III-56>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과학선호도에서의 차이 분석	99
<표 III-57>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과학선호도의 기술통계	100
<표 III-58>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과학선호도에서의 차이 분석	100
<표 III-59>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체육선호도의 기술통계	101
<표 III-60>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체육선호도에서의 차이 분석	101
<표 III-61>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체육선호도의 기술통계	102
<표 III-62>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체육선호도에서의 차이 분석	102
<표 III-63>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수업태도의 기술통계	103
<표 III-64>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수업태도에서의 차이 분석	103
<표 III-65>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수업태도의 기술통계	104
<표 III-66>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수업태도에서의 차이 분석	104
<표 III-67>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성역할 의식의 기술통계	105

<표 III-68>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성역할 의식에서의 차이 분석	105
<표 III-69>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성역할 의식의 기술통계	106
<표 III-70>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성역할 의식에서의 차이 분석	106
<표 III-71>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_① 도구 또는 공구나 기계를 다루는 일	108
<표 III-72>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_① 도구 또는 공구나 기계를 다루는 일	109
<표 III-73>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_② 개인이나 조직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지도하거나 설득하는 일	110
<표 III-74>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_② 개인이나 조직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지도하거나 설득하는 일	110
<표 III-75>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_③ 다른 사람들의 복지, 교육, 치료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	111
<표 III-76>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_③ 다른 사람들의 복지, 교육, 치료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	112
<표 III-77>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_④ 문학·미술· 음악 작품 등을 창작하거나 자신을 표현하는 일	113
<표 III-78>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_④ 문학·미술· 음악 작품 등을 창작하거나 자신을 표현하는 일	113
<표 III-79>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사회성의 기술통계	115
<표 III-80> 성별 학교유형에 따른 사회성에서의 차이 분석	115
<표 III-81>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사회성의 기술통계	116
<표 III-82>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사회성에서의 차이 분석	116
<표 III-83>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사회성_① 의사소통능력의 기술통계 ...	117
<표 III-84>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사회성_① 의사소통능력에서의 차이 분석	117

<표 III-85>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사회성_① 의사소통능력의 기술통계	118
<표 III-86>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사회성_① 의사소통능력에서의 차이 분석	118
<표 III-87>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사회성_② 협동심의 기술통계	119
<표 III-88> 성별 학교유형에 따른 사회성_② 협동심에서의 차이 분석	119
<표 III-89>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사회성_② 협동심의 기술통계	119
<표 III-90>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사회성_② 협동심에서의 차이 분석	120
<표 III-91>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사회성_③ 사회적 책무성의 기술통계	120
<표 III-92> 성별 학교유형에 따른 사회성_③ 사회적 책무성에서의 차이 분석	120
<표 III-93>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사회성_③ 사회적 책무성의 기술통계 ..	121
<표 III-94>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사회성_③ 사회적 책무성에서의 차이 분석	121
<표 III-95>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교우관계의 기술통계	122
<표 III-96>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교우관계에서의 차이 분석	122
<표 III-97>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교우관계의 기술통계	123
<표 III-98>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교우관계에서의 차이 분석	123
<표 III-99>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학교생활 행복감의 기술통계	124
<표 III-100>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학교생활 행복감에서의 차이 분석	124
<표 III-101>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 행복감의 기술통계	125
<표 III-102>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고등학교 진학 시 학교 선택 고려 기준	126
<표 III-103>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고등학교 진학 시 학교 선택 고려 기준	127
<표 III-104>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고등학교 진학 시 선호하는 학교유형	128
<표 III-105>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이성의 긍정적 영향 인식의 기술통계	129
<표 III-106>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성적 차이 인식_① 교과과목	130

<표 III-107>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성적 차이 인식_② 수행평가	130
<표 III-108>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성적 차이 인식_③ 내신성적	131
<표 III-109>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성적 차이 인식_④ 비교과활동	131
<표 III-110>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남녀공학의 개선방안의 기술통계	132
<표 III-111> 성별 국어선호도 및 수학선호도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	136
<표 III-112> 성별 성역할 의식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	137
<표 III-113> 성별 학교생활 행복감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	139

<그림 목차>

[그림 II-1] 양성평등교육과 성교육의 관계	52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3년간의 ‘성평등’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부정 연관어 1위로 ‘여혐’이, 2위는 ‘차별’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8.1.). 이를 증명하듯, 2016년 디비피아(DBpia) 사회과학 논문트렌드 사회·경제 분야에서도 ‘여혐’이 전체 이용 1위를 기록하여 올해의 키워드로 등극하였다. 이제 더 이상 언론 기사나 우리의 일상 대화 속에 ‘김치녀, 된장녀’ 등과 같은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들이나 반대로 남성을 비하하는 ‘한남충’과 같은 단어가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낯선 풍경이 아닐 정도로, 최근 한국사회에서 혐오, 차별 표현의 문제는 어떤 특정 집단의 문제적 행동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김수아, 2017).

또한 최근 성폭력 관련 이슈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성평등 문화 및 성평등 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6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남성의 삶에 관한 기초연구(Ⅱ)’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남성 54%, 남자 청소년의 66.7%가 여성혐오 표현에 ‘공감한다’고 응답했으며, 인터넷에 여성혐오 댓글을 쓰는 사람은 남자 청소년과 대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혐오성 댓글을 단 사람들은 남자 청소년(27.9%), 취업준비생 및 무직 남성(24.2%), 남자 대학생(23.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비하와 혐오, 차별과 관련된 표현들은 자아정체성뿐만 아니라 성정체성이 형성되어 가는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여성 혹은 남성에 대한 무비판적 편견과 차별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2차 성장을 비롯한 신체적 성장을 통해 남녀가 서로 다른 ‘생물학적 성(sex)’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 및 사회구조 내에서 서로 다른 ‘사회적 성(gender)’임을 경험하고 인지하는 시기이다. 청소년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 인식 및 성의식 향상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성에 대한 소중함을 인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즉 남녀가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남녀 차이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청소년은 그렇

지 않은 청소년보다 성의식이 높고, 타인의 성에 대한 소중함을 더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동식, 2012). 따라서 청소년기에 남녀가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알아가면서 남녀 간의 성역할의 차이를 체득해 나갈 수 있는 성인지적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남녀공학의 학교 환경은 남녀가 함께 살아가는 성인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교육 환경을 제공하며, 이성과의 관계를 더 자연스럽게 용이하게 한다(오민아, 2013). 또한 남녀공학은 성장기에 있는 남녀 간의 다름과 차이에 대한 상호간 이해와 감정의 공유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존중은 개인의 정서와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이숙정, 2006).

공교육에서 남녀공학화 추세는 경제적, 인구학적 요인과 남녀 간 교육기회의 평등 및 양성평등의식 형성을 추구하는 이념적 요인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이혜영 외, 2011).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중등교육 단계에서 남녀공학은 1990년대 말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여 2017년 현재 남녀공학 수는 중학교의 76.9%, 일반계 고등학교의 64.7%를 차지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2017).

전 세계적으로 남녀공학이 보편화되면서, 남녀학생들을 분리해서 교육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동일한 공간에서 같이 교육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각각 찬반의 논쟁들이 있어 왔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학교의 성별 유형에 따른 교육적 효과를 밝히려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남녀공학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남녀공학과 단성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간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학업성취도는 물론 교과 중심인 학교교육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핵심적 지표라 할 수 있지만, 교육이 인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전인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남녀공학의 교육적 효과를 학업성취도와 같은 인지적 측면에서만 평가하는 것은 일면적이고 협소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즉 학업성취도 중심의 접근에서는 다른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간과할 위험이 있다(김희삼, 2013; 오민아, 2013).

또한 최근 우리나라 중등교육 현장에서는 남녀공학 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기존의 남녀공학 고등학교를 남학교 또는 여학교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나 새로 설립하는 고등학교는 남녀별학인 단성학교로 설립하려는 지역

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남녀공학의 남녀별학 전환 논란의 중심에는 남녀공학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학생의 내신성적이 불리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이혜영 외, 2011; 정해숙·유진은·김미윤, 2009). 이것은 남녀공학 교육의 교육적 가치를 학업성적이라는 인지적인 성취 측면에서만 평가하는 것으로, 남녀공학이 청소년기 이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 및 성평등적 시각을 갖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정의적 측면은 간과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논란은 성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의 해소, 성 사회성 함양 등과 같은 남녀공학 교육의 본질적 가치나 철학과는 거리가 있다. 더 나아가, 남녀공학교에서 여학생들에 비해 남학생들의 상대적 낮은 학업성취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청소년기부터 남녀 간의 경쟁과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성평등 교육기회의 제공이라는 명분하에 확대된 남녀공학 교육이 학생들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남녀공학과 단성학교 학생들 간의 인지적 성과 측면에서의 차이를 단순히 비교함으로써 남녀공학을 지지 혹은 반대하느냐가 아니라, 그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학교의 성별 유형에 따른 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교육활동 경험이 어떠한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남지역 남녀공학과 단성중학교(남중, 여중), 더 나아가 남녀공학의 남녀 혼성학급과 분리학급 간의 교육경험 및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교육적 성과를 비교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의 세 집단 간의 차이만을 비교함으로써 남학교 남학생과 남녀공학의 남학생, 여학교의 여학생과 남녀공학의 여학생 간의 차이를 분석하지 않은 것을 보완하여, 성별 차이에 따른 학교유형의 효과를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남녀공학 안에서도 남녀 혼성학급과 분리학급을 구분하여 이러한 학급 운영 형태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경험 및 교육적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중등학교에서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남녀공학 교육 및 남녀분리 수업의 교육적 제고 및 내실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가. 우리나라 중등학교 남녀공학 현황

- 1) 전국 중등학교 남녀공학 현황 분석
- 2) 경남지역 중등학교 남녀공학 현황 분석

나. 학교의 성별 유형에 대한 논쟁 및 교육적 효과

- 1) 학교의 성별 유형에 대한 논쟁
- 2) 학교의 성별 유형에 따른 교육적 효과
- 3) 남녀공학 교육의 국제적 동향

다. 국내외 성평등 교육 사례 조사

- 1) 우리나라의 성평등 교육 사례
- 2) 외국의 성평등 교육 사례

라. 경남지역 남녀공학 운영 실태 및 교육적 성과 분석

- 1) 남녀공학과 단성중학교의 교육활동 및 교육경험
- 2) 남녀공학과 단성중학교의 교육적 성과
- 3) 남녀공학에 대한 태도 및 개선사항
- 4) 학교유형의 효과 분석

마. 남녀공학 교육의 교육적 제고 방안 및 내실화를 위한 정책 제언

- 1) 남녀공학 교육의 교육적 제고 방안
- 2) 남녀공학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 제언

3. 연구방법

가. 선행연구 고찰 및 해외사례 조사

- 1) 학교의 성별 유형에 대한 논쟁 고찰

- 2) 학교의 성별 유형에 따른 교육적 효과에 관한 문헌분석
- 3) 해외의 남녀공학 교육 동향 탐색
- 4) 국내외 성평등 교육 사례 조사 분석 및 탐색

나. 남녀공학 및 단성중학교의 학교생활 및 교육경험 설문조사

1) 조사목적

본 설문조사는 남녀공학과 단성학교 중학생의 학교생활 및 교육경험과 교육적 성과를 비교해보고, 남녀공학 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2) 표집학교 선정 및 표집학교 수

본 연구의 모집단은 2017년 경남지역에 있는 전체 중학교 중, 분교를 제외한 총 265개교이다. 이 중 본 연구의 표집학교는 18개 지역별로 학교유형별 학교 수를 기준으로 학교유형에 따른 남학교-여학교-남녀공학을 짝짓기 표집하였다. 예를 들어, 창원 지역의 경우 남중 11개교, 여중 12개교, 남녀공학중 40개교 포함 총 63개교가 분포되어 있다. 이 때, 창원 지역의 표집학교 수는 남학교 개수를 기준으로 하여 남학교 11개, 여학교 11개, 남녀공학중 11개교이며, 남녀공학 내에서도 남녀 혼성학급과 분리학급 운영학교를 구분하여 표집하였다.

이에 <표 I-1>에 제시한 것처럼, 경남지역 18개 시·군 지역 중 단성학교가 없는 거제, 하동, 산청 지역은 표집에서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7개 시·지역에서 남중, 여중, 남녀공학중 포함 28쌍의 84개교, 8개 군 지역에서 10쌍의 30개교를 선정하여 총 114개교를 최종 표집학교로 선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짝짓기 된 학교별 학생 수준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가 소재해 있는 지역 및 행정구, 설립유형, 학급당 평균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이 유사한 학교를 선정하였다.

〈표 1-1〉 본 연구의 지역별 표집학교 수

지역	학교 수	단성중		남녀공학중		
		남학교	여학교	소계	남녀혼성반	남녀분리반
창원시	33	(11)	(11)	(11)	3	8
진주시	12	(4)	(4)	(4)	3	1
통영시	9	(3)	(3)	(3)	3	-
사천시	9	(3)	(3)	(30)	3	-
김해시	9	(3)	(3)	(3)	2	1
밀양시	6	(2)	(2)	(2)	1	1
거제시	-	-	-	-	-	-
양산시	6	(2)	(2)	(2)	1	1
의령군	3	(1)	(1)	(1)	1	-
함안군	3	(1)	(1)	(1)	1	-
창녕군	6	(2)	(2)	(2)	2	-
고성군	3	(1)	(1)	(1)	1	-
남해군	3	(1)	(1)	(1)	1	-
하동군	-	-	-	-	-	-
산청군	-	-	-	-	-	-
함양군	3	(1)	(1)	(1)	1	-
거창군	6	(2)	(2)	(2)	2	-
합천군	3	(1)	(1)	(1)	1	-
전 체	114	(38)	(38)	(38)	26	12

3) 조사대상자 및 조사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표집학교로 선정된 중학교의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는 남학교, 여학교, 그리고 남녀공학교가 갖고 있는 학교 특성, 즉 학교의 성별 유형에 따른 고유한 환경 속에서 학교생활 및 교육활동을 가장 많이 경험했고, 이에 따라 학교유형별 특성 차이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집단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으로 선정된 총 114개교를 대상으로 2018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유형별로 단성학교의 경우는 학교별로 1개 학급을, 남녀공학의 경우는 '남녀공학 남학생과 남학교 남학생',

<표 1-2> 본 연구의 응답학교 및 조사대상자 수

구 분		표본학교 수	응답학교 수	전체 학생 수	소계
단성	남학교	38	27	640	1,216
	여학교	38	27	576	
공학	남녀합반	26	16	539	960
	남녀분반	12	8	421	
전 체		114	78	2,176	

‘남녀공학 여학생과 여학교 여학생’을 비교하는 데 있어 집단별 학생 수를 유사하게 하기 위해 학교별로 2개 학급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남녀공학 중, 남녀 분리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는 남학생 반과 여학생 반 각각 1개 학급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안내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교 수 및 학생 수는 <표 1-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78개교로부터 총 2,226명의 설문 응답을 얻었지만,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50명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총 2,176명의 자료만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포함된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3>과 같다.

전체 2,176명 중, 학교유형별로는 남학교 640명, 여학교 576명 포함 단성중학교 1,216명(55.9%), 남녀공학 내 남녀합반 539명, 남녀분반 421명 포함 남녀공학교 960명(44.1%), 성별로는 남학생 1,100명(50.6%), 여학생 1,076명(49.9%)이 참여하였다.

〈표 1-3〉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학교 소재지	창원	758(34.8)	
	진주	181(8.3)	
	통영	118(5.4)	
	사천	211(9.7)	
	김해	229(10.5)	
	밀양	79(3.6)	
	양산	141(6.5)	
	의령	8(.4)	
	함안	71(3.3)	
	창녕	77(3.5)	
	고성	47(2.2)	
	남해	61(2.8)	
	함양	52(2.4)	
	거창	98(4.5)	
	합천	45(2.1)	
지역 규모	시	1,243(57.1)	
	읍면	933(42.9)	
학교 설립유형	국공립	1,432(65.8)	
	사립	744(34.2)	
학교유형 및 남녀공학의 학급형태	단성	남학교	640(29.4)
		여학교	576(26.5)
	남녀공학	남녀합반	539(24.8)
		남녀분반	421(19.3)
성별	남자	1,100(50.6)	
	여자	1,076(49.4)	
전 체		2,176(100.0)	

4) 조사내용

본 연구에서 조사한 설문내용은 다음 <표 I-4>와 같다.

<표 I-4> 설문조사 내용

영역	세부 영역	문항 구성	문항번호
	※ 학교 및 학생 기본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정보: 학교소재지 및 지역 규모, 설립유형, 학교 유형 및 학급 형태 ○ 학생 정보: 성별, 부모님의 학력, 가정 형편, 학교 성적 	
I. 운영 실태 및 학교생활	1. 학교 운영 실태	○ 성 차별적 경험_교사의 성 고정 관념적 발언	I_1_1
		○ 성 차별적 경험_동료학생의 성 고정관념적 발언	I_1_2
		○ 학생 생활교육 중점 내용	I_2
		○ 양성평등교육 유무 및 도움 정도	I_3, I_3_1
		○ 양성평등교육 시간 및 방법	I_3_2, I_3_3
		○ 양성평등교육 희망 방법	I_3_4
	2. 학교생활	○ 학교의 가치분위기	II_1
		○ 외모관심도	II_2
		○ 이성 친구 유무 및 대상	II_3, II_3_1
		○ 학교생활에 대한 이성친구의 영향 인식	II_4
		○ 교우관계	II_5_1~3
		○ 수업태도	II_5_4~6
		○ 학교생활 행복감	II_5_7~10
	3. 학교분위기 및 가정분위기	○ 교사-학생 간의 관계	III_1_1~3
		○ 교사의 상호적 수업방식	III_1_4~6
		○ 부모-자녀 간의 관계	III_2_1~3
		○ 부모의 학업 관여	III_2_4~6

영역	세부 영역	문항 구성	문항번호
II. 교육경험 및 교육적 성과	1. 인지적 측면	○ 교과 효능감	IV_1
		○ 교과 선호도	IV_2
	2. 정의적, 사회적 측면	○ 성차와 성역할 의식	V_1
		○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	V_2
		○ 사회성_의사소통능력	V_2_1~3
		○ 사회성_협동심	V_2_4~6
	○ 사회성_사회적 책무성	V_2_7~9	
III. 남녀공학에 대한 태도 및 개선방안	1. 남녀공학에 대한 태도	○ 학생의 고등학교 진학 시 학교 선택 기준	VI_1
		○ 학생이 선호하는 학교 성별 유형 및 선호 이유	VI_1_1
		○ 남녀공학에서 이성의 긍정적 영향	VII_1
	2. 남녀공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남녀공학에서의 성별 성적 차이에 대한 인식	VII_2
		○ 남녀공학의 개선점	VII_3, VII_4

II. 이론적 고찰

1. 우리나라 및 경남지역 남녀공학 현황

가. 우리나라 중등학교 남녀공학 현황 분석

우리나라 중등교육에서 남녀공학은 1969년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와 1974년 고교 평준화 정책과 더불어 남녀학생 배정의 편의와 교육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확산되었다(박문태·나정·이재분, 1987). 즉 중등교육 단계의 평준화 정책 시행으로 인해 거주지 인근학교로의 학생 배정이라는 행정적 필요가 증대하는 가운데,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경제적인 측면이 맞물려 남학교 또는 여학교의 남녀공학 학교로의 전환이나 남녀공학 학교의 신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정해숙·유진은·김미윤, 2009).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 여성차별 철폐조약이 발효되고 1998년 ‘남녀 평등 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선정되면서 중등학교 남녀공학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권오남 외, 2001). 이에 따라 남녀공학 확대 정책이 추진된 1999년에는 중학교의 경우 60.2%가 남녀공학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표 II-1>에 제시한 것처럼, 2017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중학교의 76.9%인 2,472개교가 남녀공학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역시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1999년 40.1%였던 남녀공학 비율은 2017년 현재 24.6%포인트 증가한 64.7%인 1,528개교가 남녀공학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등학교 남녀공학 운영상의 특징 중 하나는 우리나라에 남녀공학이 처음 도입되고 이후 확대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남녀공학 학교는 교육 이념이나 철학의 구현을 위해서가 아니라 근거리 학교 배정이나 소규모 학교 운영의 영세성 탈피 방안의 하나로 남녀공학을 운영했다는 것이다(박문태 외, 1987). 또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남녀공학은 서구에서 말하는 남녀공학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즉 서구에서 남녀공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같은 학교 내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재학하는 수준을 넘어 남녀학생이 같은 학급에 편성되는 ‘남

녀 혼성학급'을 의미하는 것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남녀공학이면서도 교육 과정 편성 및 생활지도의 편리성을 위해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학급을 편성하는 '남녀 분리학급'까지 남녀공학의 범위에 포함한다.

더 나아가, 남녀공학 내에서도 성별 학급구성을 학년에 따라 달리 구성하여 일부 학년에는 혼성학급을 일부 학년에는 분리학급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이혜영 외, 2011; 정해숙 외, 2009).

〈표 II-1〉 전국 시도별 중등학교 남녀분리 및 공학 학교 수

시도별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	여	공학	계	남	여	공학
총 계	3,213(29)	391	350	2,472(29)	2,360	404	428	1,528
국립	9	1	1	7	19	1	-	18
공립	2,567(9)	207	188	2,172(29)	1,394	167	150	1,077
사립	637	183	161	293	947	236	278	433
서울	384	48	44	292	320	74	86	160
국립	2	1	1	-	3	-	-	3
공립	273	5	3	265	117	11	11	95
사립	109	42	40	27	200	63	75	62
부산	174	38	33	103	144	39	35	70
국립	-	-	-	-	4	1	-	3
공립	137	23	23	91	63	16	11	36
사립	37	15	10	12	77	22	24	31
대구	125	12	8	105	93	23	18	52
국립	1	-	-	1	1	-	-	1
공립	90	-	1	89	43	7	4	32
사립	34	12	7	15	49	16	14	19
인천	134(1)	30	26	78(1)	125	39	36	50
국립	-	-	-	-	1	-	-	1
공립	124	25	24	75(1)	91	28	24	39
사립	10	5	2	3	33	11	12	10
광주	90	8	7	75	67	16	19	32
국립	1	-	-	1	1	-	-	1
공립	64	-	-	64	24	3	4	17
사립	25	8	7	10	42	13	15	14
대전	88	11	9	68	62	15	12	35
국립	-	-	-	-	-	-	-	-
공립	72	3	4	65	34	4	3	27
사립	16	8	5	3	26	11	9	8

시도별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	여	공학	계	남	여	공학
울산	63	4	4	55	57	9	7	41
국립	-	-	-	-	-	-	-	-
공립	59	3	4	52	44	6	5	33
사립	4	1	-	3	13	3	2	8
세종	22	1	1	20	16	1	1	14
국립	-	-	-	-	-	-	-	-
공립	22	1	1	20	15	1	1	13
사립	-	-	-	-	1	-	-	1
경기	625	29	28	568	472	22	27	423
국립	-	-	-	-	-	-	-	-
공립	538	17	15	506	336	11	7	318
사립	87	12	13	62	136	11	20	105
강원	164	24	21	119	117	21	18	78
국립	-	-	-	-	1	-	-	1
공립	149	20	17	112	95	16	13	66
사립	15	4	4	7	21	5	5	11
충북	127	17	16	94	84	10	12	62
국립	2	-	-	2	2	-	-	2
공립	106	11	11	84	61	5	7	49
사립	19	6	5	8	21	5	5	11
충남	187(2)	26	23	138(2)	117	14	23	80
국립	1	-	-	1	1	-	-	1
공립	143(2)	16	15	112(2)	80	8	13	59
사립	43	10	8	25	36	6	10	20
전북	209	20	19	170	133	28	33	72
국립	-	-	-	-	2	-	-	2
공립	160	9	6	145	63	11	10	42
사립	49	11	13	25	68	17	23	28
전남	249(10)	27	25	197(10)	143	13	17	113
국립	-	-	-	-	-	-	-	-
공립	215(10)	20	20	175(10)	99	7	7	85
사립	34	7	5	22	44	6	10	28
경북	262(12)	47	39	176(12)	188	43	42	103
국립	-	-	-	-	1	-	-	1
공립	189(12)	21	18	150(12)	96	14	13	69
사립	73	26	21	26	91	29	29	33
경남	265(4)	42	40	183(4)	192	31	35	126
국립	1	-	-	1	1	-	-	1
공립	188(4)	29	21	138(4)	113	16	13	84
사립	76	13	19	44	78	15	22	41

시도별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	여	공학	계	남	여	공학
제주	45	7	7	31	30	6	7	17
국립	1	-	-	1	1	-	-	1
공립	38	4	5	29	20	3	4	13
사립	6	3	2	1	9	3	3	3

* ()안의 숫자는 분교 수임.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자료(2017.4.1.기준)

나. 경남지역 중등학교 남녀공학 현황 분석

경남지역의 중등학교 남녀공학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II-2>와 <표 II-3>와

<표 II-2> 경남지역별 중학교 남녀분리 및 공학 현황

지역	합 계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학교 수	비율(%)	학교 수	비율(%)	학교 수	비율(%)	학교 수	비율(%)
창원	63	(100.0)	11	(17.5)	12	(19.0)	40	(63.5)
진주	21	(100.0)	6	(28.6)	4	(19.0)	11	(52.4)
통영	12	(100.0)	3	(25.0)	3	(25.0)	6	(50.0)
사천	11	(100.0)	3	(27.3)	3	(27.3)	5	(45.5)
김해	32	(100.0)	3	(9.4)	3	(9.4)	26	(81.3)
밀양	12	(100.0)	3	(25.0)	2	(16.7)	7	(58.3)
거제	19	(100.0)	-	-	-	-	19	(100.0)
양산	14	(100.0)	2	(14.3)	2	(14.3)	10	(71.4)
의령	5	(100.0)	1	(20.0)	1	(20.0)	3	(60.0)
함안	9	(100.0)	1	(11.1)	1	(11.1)	7	(77.8)
창녕	10	(100.0)	2	(20.0)	3	(30.0)	5	(50.0)
고성	8	(100.0)	2	(25.0)	1	(12.5)	5	(62.5)
남해	11	(100.0)	1	(9.1)	1	(9.1)	9	(81.8)
하동	9	(100.0)	-	-	-	-	9	(100.0)
산청	6	(100.0)	-	-	-	-	6	(100.0)
함양	6	(100.0)	1	(16.7)	1	(16.7)	4	(66.7)
거창	8	(100.0)	2	(25.0)	2	(25.0)	4	(50.0)
합천	9	(100.0)	1	(11.1)	1	(11.1)	7	(77.8)
합 계	265	(100.0)	42	(15.8)	40	(15.1)	183	(69.1)

* 분교 수는 제외함

〈표 II-3〉 경남지역별 일반계 고등학교 남녀분리 및 공학 현황

지역	합 계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교	
	학교 수	비율(%)	학교 수	비율(%)	학교 수	비율(%)	학교 수	비율(%)
창원	37	(100.0)	10	(27.0)	12	(32.4)	15	(40.5)
진주	12	(100.0)	3	(25.0)	4	(33.3)	5	(41.7)
통영	5	(100.0)	1	(20.0)	2	(40.0)	2	(40.0)
사천	6	(100.0)	1	(16.7)	1	(16.7)	4	(66.7)
김해	15	(100.0)	2	(13.3)	3	(20.0)	10	(66.7)
밀양	6	(100.0)	1	(16.7)	1	(16.7)	4	(66.7)
거제	6	(100.0)	-	-	-	-	6	(100.0)
양산	9	(100.0)	-	-	1	(11.1)	8	(88.9)
의령	2	(100.0)	1	(50.0)	1	(50.0)	-	-
함안	4	(100.0)	-	-	-	-	4	(100.0)
창녕	6	(100.0)	1	(16.7)	1	(16.7)	4	(66.7)
고성	3	(100.0)	-	-	-	-	3	(100.0)
남해	4	(100.0)	-	-	-	-	4	(100.0)
하동	5	(100.0)	1	(20.0)	1	(20.0)	3	(60.0)
산청	6	(100.0)	-	-	-	-	6	(100.0)
함양	3	(100.0)	-	-	-	-	3	(100.0)
거창	6	(100.0)	1	(16.7)	1	(16.7)	4	(100.0)
합천	4	(100.0)	1	(25.0)	1	(25.0)	2	(50.0)
합 계	139	(100.0)	23	(16.5)	29	(20.9)	87	(62.6)

같다. 중학교는 2017년 현재 265개교 중 69.1%에 해당하는 183개교가 남녀공학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139개교 중 62.6%에 해당하는 87개교가 남녀공학을 운영하고 있다.

중등학교 남녀공학 운영학교의 학급형태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4>와 같이 183개교 남녀공학 중학교 중 남녀 혼성학급(남녀합반)을 운영하는 학교가 73.2%, 분리학급(남녀분반)을 운영하는 학교가 24.6%, 혼성학급과 분리학급을 혼합하여 운영하는 학교가 2.2%로 나타나, 대부분의 남녀공학 중학교에서는 남녀합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창원의 경우 남녀공학 중학교 중 남녀합반보다는 남녀 분리학급을 운영하는 학교가 70.0%로 나타나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

〈표 II-4〉 경남지역 남녀공학 중학교의 학급형태 현황

지역	합 계		혼성학급		분리학급		혼합(혼성+분리)	
	학교 수	비율(%)	학교 수	비율(%)	학교 수	비율(%)	학교 수	비율(%)
창원	40	(100.0)	12	(30.0)	28	(70.0)	-	-
진주	11	(100.0)	10	(90.9)	1	(9.1)	-	-
통영	6	(100.0)	6	(100.0)	-	-	-	-
사천	5	(100.0)	5	(100.0)	-	-	-	-
김해	26	(100.0)	16	(61.5)	7	(26.9)	3	(11.5)
밀양	7	(100.0)	6	(85.7)	1	(14.3)	-	-
거제	19	(100.0)	15	(78.9)	4	(21.1)	-	-
양산	10	(100.0)	6	(60.0)	4	(40.0)	-	-
의령	3	(100.0)	3	(100.0)	-	-	-	-
함안	7	(100.0)	7	(100.0)	-	-	-	-
창녕	5	(100.0)	5	(100.0)	-	-	-	-
고성	5	(100.0)	5	(100.0)	-	-	-	-
남해	9	(100.0)	9	(100.0)	-	-	-	-
하동	9	(100.0)	9	(100.0)	-	-	-	-
산청	6	(100.0)	6	(100.0)	-	-	-	-
함양	4	(100.0)	4	(100.0)	-	-	-	-
거창	4	(100.0)	3	(75.0)	-	-	1	(25.0)
합천	7	(100.0)	7	(100.0)	-	-	-	-
합계	183	(100.0)	134	(73.2)	45	(24.6)	4	(2.2)

출처 : 경상남도교육청 2017년 학교정보공시 자료

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표 II-5>와 같이 남녀공학 중학교의 학교규모에 따라 학급 운영 형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본 결과, 학생 수가 많은 대규모나 중규모 학교에 비해 남녀학생 간 균형적인 수급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에서 혼성학급 운영이 95.5%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남녀공학 일반계 고등학교의 남녀합반 운영 비율은 <표 II-6>과 같이, 58.6%로 중학교에 비해 훨씬 낮으며, 학년별로 남녀혼성과 분리 운영을 혼합하여 운영하는 학교도 32.2%로 나타났다. 혼합 운영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남녀공학 일반계 고등학교의 특성 상, 학생들의 문·이과 선택 및 선택교과에 따른 교육과

<표 II-5> 경남지역 남녀공학 중학교의 학교규모에 따른 학급형태

학급형태	학교규모			전 체
	소	중	대	
혼성학급	105(95.5)	23(43.4)	6(30.0)	134(73.2)
분리학급	4(3.6)	27(50.9)	14(70.0)	45(24.6)
혼합(혼성+분리)	1(.9)	3(5.7)	-	4(2.2)
합 계	110(100.0)	53(100.0)	20(100.0)	183(100.0)

*학교규모는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사용한 기준에 기초하여, 전체 학생 수가 300명 미만인 학교는 소규모, 300~800명 미만인 학교는 중규모, 800명 이상인 학교는 대규모로 구분함

<표 II-6> 경남지역 남녀공학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급형태 현황

지역	합 계		혼성학급		분리학급		혼합(혼성+분리)	
	학교 수	비율(%)	학교 수	비율(%)	학교 수	비율(%)	학교 수	비율(%)
창원	15	(100.0)	1	(6.7)	6	(40.0)	8	(53.3)
진주	5	(100.0)	4	(80.0)	-	-	1	(20.0)
통영	2	(100.0)	2	(100.0)	-	-	-	-
사천	4	(100.0)	3	(75.0)	-	-	1	(25.0)
김해	10	(100.0)	3	(30.0)	1	(10.0)	6	(60.0)
밀양	4	(100.0)	4	(100.0)	-	-	-	-
거제	6	(100.0)	2	(33.3)	-	-	4	(66.7)
양산	8	(100.0)	3	(37.5)	1	(12.5)	4	(50.0)
의령	-	(100.0)	-	-	-	-	-	-
함안	4	(100.0)	2	(50.0)	-	-	2	(50.0)
창녕	4	(100.0)	3	(75.0)	-	-	1	(25.0)
고성	3	(100.0)	3	(100.0)	-	-	-	-
남해	4	(100.0)	4	(100.0)	-	-	-	-
하동	3	(100.0)	3	(100.0)	-	-	-	-
산청	6	(100.0)	6	(100.0)	-	-	-	-
함양	3	(100.0)	3	(100.0)	-	-	-	-
거창	4	(100.0)	3	(75.0)	-	-	1	(25.0)
합천	2	(100.0)	2	(100.0)	-	-	-	-
합계	87	(100.0)	51	(58.6)	8	(9.2)	28	(32.2)

출처 : 경상남도교육청 2017년 학교정보공시 자료

〈표 II-7〉 경남지역 남녀공학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교규모에 따른 학급형태

학급형태	학교규모			전 체
	소	중	대	
혼성학급	25(100.0)	18(51.4)	8(29.6)	51(58.6)
분리학급	-	4(11.4)	4(14.8)	8(9.2)
혼합(혼성+분리)	-	13(37.1)	15(55.6)	28(32.2)
합 계	25(100.0)	35(100.0)	27(100.0)	87(100.0)

*학교규모는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사용한 기준에 기초하여, 전체 학생 수가 300명 미만인 학교는 소규모, 300~800명 미만인 학교는 중규모, 800명 이상인 학교는 대규모로 구분함

정 편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표 II-7>과 같이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교규모에 따른 학급 운영 형태를 살펴보면, 남녀학생 간 균형적인 수급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에서 100% 남녀합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공학이 소규모 학교 운영의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학교의 성별 유형에 대한 논쟁 및 교육적 효과

가. 학교의 성별 유형에 대한 논쟁

남녀학생들을 분리해서 교육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동일한 공간에서 같이 교육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각각 찬반의 논쟁들이 있어 왔다.

남녀공학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경제적 효율성, 자연스러운 교육환경 제공, 평등한 성의식과 역할 발달, 남녀 간 교육기회 평등’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오민아, 2013). 청소년의 발달 측면에서 남녀공학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남녀공학 환경이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심리적·성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형성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남녀공학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남녀공학의 최대 장점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행해지는 것처럼 남녀가 함께 배우고 생활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을 제공해준다는 점이다(민무숙, 1991). 또한 남녀가 함께 배우고 생활하는 남녀공학의 장점으로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유익하며 양성평등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남녀공학에서는 이성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자연스러운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며, 학생들은 이성 앞에서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남녀학생의 행동에 대한 교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남녀학생이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학교분위기가 보다 부드러워지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장차 사회생활이나 결혼생활에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민무숙, 1991; 이상복, 2008). 일례로, 남녀공학과 단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태도를 비교한 연구들에 따르면, 남녀공학이 학생들의 성평등, 이성에 대한 우호적 태도, 이성의 존재로 인해 행동이나 외모, 훈육의 개선, 성에 대한 건강한 태도, 결혼생활에서의 행복 증진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Atherton, 1973; Dale, 1971; Harris, 1986).

반면, 남녀공학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성차에 적합한 교육 제공, 역할모델 제공, 전통적 성역할 형성, 학구적 풍토 조성’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오민아,

2013). 남녀공학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청소년기에는 남녀 간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발달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남녀 간의 성차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교육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입장이다(민무숙, 1991). 실제 Riordan(1994; 1998)의 연구에 의하면, 일부 학생들은 단성교육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약과목의 경우 단성교육을 실시하면 집중강화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 여학생의 경우 취약과목으로 알려진 수학과 과학에서, 남학생의 경우 여학과 문학에서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은 인지적 발달 속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학습방식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교실에서 같은 과목을 같은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은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 따라서 남녀 분리교육을 통해 각 성에 맞는 교육방법을 적용해야만 더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이상복, 2008).

Cowell(1981)은 "우리 사회가 여성의 지적, 정서적 잠재력을 충분히 끌어내어 활용하려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자질들을 부끄럼 없이 보유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이는 남녀 분리교육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남녀 분리교육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평등의 원칙은 반드시 동등하게 다루는 것에 의해 만족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지적한다. 즉 다른 것을 똑같이 다루는 것은 같은 것을 다르게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녀학생들의 발달상의 차이에 맞춰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평등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럴 때 비로소 교육의 효율성 또한 제고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정해숙·정경아, 1995).

이러한 성차의 무시라는 측면 이외에, 남녀공학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남녀공학이 학생들로 하여금 이성 간의 인기나 신체적·성적 매력이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지는 '청소년 하위문화'를 형성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한다(Coleman, 1961). 이러한 청소년 하위문화는 남녀 상호 간에 건전하지 못한 이성관을 심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학업활동이나 높은 학업성취에 대해 낮은 가치를 부여하게 함으로써 학력의 저하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민무숙, 1991).

나. 학교의 성별 유형에 따른 교육적 효과

1) 학교유형과 학업성취도

남녀공학이 학생들의 인지, 정서, 행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Mael et al., 2005). 특히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남녀공학과 단성학교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서로 상반된 연구결과와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학교의 성별 유형 외에도 개인적, 가정적, 지역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학교의 성별 유형만의 차이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정해숙 외, 2009).

학업에의 관심 및 학업성취 면에서 남녀별학(단성학교)의 장점을 제시하는 연구자들은(Coleman, 1961; Feather, 1974; Lee & Bryk, 1986; Riordan, 1990) 남녀공학과 별학의 학생들 간 학업성취도에서 남녀별학의 학생들이 우세함을 지적하고 있다. 즉 이성간의 조화로운 발달과 기타 학업 외의 활동에 대하여 남녀공학 학생들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반면, 학업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어 성취도에서 별학이 유리하다는 입장을 경험적 자료에 기초하여 주장하고 있다(권오남 외, 2001).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Marsh(1989)는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외변수를 통제하면 남녀학생 모두에게 학교유형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하였다. 정해숙과 정경아(1995)의 연구에서도 학교유형에 따른 수학성취도를 비교한 결과 학교의 성별 유형에 따른 수학성취도에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Meighan(1981)은 남녀공학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시기에 따라서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즉 중학교에서는 여학생의 성숙 속도가 남학생보다 빨라 여학생이 남녀공학에서 능동적으로 학습 및 학교활동에 주도권을 행사하여 단성학교에 있을 때보다 높은 성취도를 나타내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이와는 반대 현상이 두드러져 남녀공학의 부정적 효과가 여학생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강창희 외(2011)의 연구에서도 단성학교가 남녀공학에 비해 성적 향상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그 효과는 남학생에게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단성학교에 다닐 때 성적 향상 효과가 가장 큰 집단

은 ‘중상위권’ 남학생이었고, ‘하위권’ 학생에게는 거의 영향이 없었다. 즉 남학생에게는 수학 성적 향상 효과가 컸지만, 여학생에게는 효과가 거의 없어, 남녀간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김희삼(2013)은 남녀공학이 단성학교에 비해 학업성취도에서 차이가 나는지의 여부와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남녀공학의 부정적 효과가 주요 과목에서 모두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그 부정적 영향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남녀공학 학생들의 낮은 수능점수는 남녀공학 학생들이 단성학교 학생들보다 학습시간이 더 짧고, 휴대폰 통화 및 문자 전송, 컴퓨터 채팅 및 매신저, 개인 홈페이지 및 블로그 관리 등 이성교제와 일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2) 학교유형과 정의적·사회적 발달과 성장

남녀공학은 남녀가 함께 살아가는 성인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교육환경을 제공하며 이성과의 관계를 더 자연스럽게 용이하게 한다(오민아, 2013). 또한 사회화 효과와 민주적인 평등사상, 사회성 발달 등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남녀 상호 간의 지적·정서적 성숙을 돕고, 인격 형성과 전인적인 교육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문혜경, 2011). 일부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남녀공학 학생들이 단성학교 학생들보다 학습능률이 향상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건전한 이성관 그리고 성역할 개념이 확립되며, 정서적·사회적 발달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하였다(강상철, 1997; 정미란, 1983). 이숙정(2006)의 연구에서는 남녀공학 학생들의 교사신뢰 수준이 비공학 학생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남녀공학이 신뢰성 요인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학교환경을 더 풍부하게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남녀공학이 성역할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정해숙 외, 2009). 즉 남녀공학은 “남성은 더욱 남성답게, 여성은 더욱 여성답게”와 같이, 각자 성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성 정체화된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성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평등 교육에 기여한다는 남녀공학 체제가 오히려 성 차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암시를 주고 있다(김경년, 2013). 김재철(2008)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의식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가정변수, 개인변수, 학교변수 등의 가외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후, 학교유형에 따른 양성평등의식과 수학성취도에서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학교유형이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Riordan(1990)의 연구에서는 남녀공학에서 남학생들이 보다 높은 자아존중감, 보다 높은 내적통제 점수, 여성의 역할에 대한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여학생은 단성학교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무숙(1992)은 미국 중등학교 학생들의 2차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학교의 성별 유형이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정의적 특성, 그리고 진로선택에 미치는 직·간접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학생의 경우 일관되게 단성학교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즉 남녀공학 여학생들에 비하여 여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이 교사로부터의 관심을 높이 인지하고 보다 비전통적인 성역할관을 형성함으로써 전공이나 직업 선택에 있어서 비전통적인 성향을 띄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의 성별 유형의 상당 부분이 학교생활 경험에 의하여 매개되어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이나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학교생활 경험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이 연구결과는 최근 남녀 분리교육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입장을 상당 부분 지지한다. 남녀 분리교육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남녀가 섞여 있는 교육환경에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의 우세한 주도권이나 남학생 위주의 학교풍토, 교사와의 관계 등에 의하여 부차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거나 드러나지 않는 집단에 머물게 된다고 주장한다(Mahony, 1985; Sandler, 1987). 더 나아가 교사나 동료 남학생으로부터 무의식적으로 받은 존재 가치의 절하, 그러한 가치의 자발적 내면화 등으로 남녀공학 여학생들은 단성학교 여학생들에 비해 자신들의 성역할을 확실히 규정하고 그에 맞는 행동 특성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Finn et al., 1980).

김경년(2013)은 남녀공학이 양성평등을 실천하는 학교형태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는 시점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남녀공학이 학교풍토에 대한 인식과 학습시간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남녀공학과 교육활동 간에는 부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남녀공학이 학교풍토 인식 및 학습시간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남녀공학의 모든 학생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가정의 남학생에게 강하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남녀공학으로의 확산에 있어 저소득가정이나 취학계층의 남학생들을 배려

할 필요성이 있으며, 저소득가정이 밀집한 학교는 단성학교로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이상의 인지적·정의적·사회적 측면에서의 남녀공학과 단성학교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최근의 연구결과들은 남녀공학보다는 단성학교의 긍정적 효과나 같은 학교유형 내에서도 성별이나 사회계층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 중등학교에서 남녀공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을 감안해 볼 때, 남녀공학과 단성학교 학생들 간의 인지, 정서, 행동에서의 차이를 단순히 비교함으로써 남녀공학을 지지 혹은 반대하느냐가 아니라, 그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학교의 성별 유형에 따른 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교육활동 경험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다. 남녀공학 교육의 국제적 동향¹⁾

역사적,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에서 공교육의 기회가 발전되어 가는 과정은 전 세계적으로 일정한 양상을 띠고 전개되어 왔다(Riordan, 1990). 즉 남성만을 위한 단성학교가 먼저 만들어져 운영되다가 민주주의 이념이 도입되면서 교육기회의 균등, 남녀 차등적 교육연한 철폐 등으로 인해 현재는 공교육 체제 안에서 남녀공학이 보편적인 학교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조경원, 1999). 그럼에도 남녀공학 교육이 진정한 성평등한 교육의 장인가 하는 점과 더불어 남녀공학과 단성학교의 교육적 효과와 관련한 논란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정해숙 외, 2009).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공립학교에서 다양한 형태의 남녀분리 교육(단성교육) 및 남녀분리 수업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이노홍, 2007).

최근 남녀분리 학교 및 남녀분리 수업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이다. 즉 다원화를 추구하는 국가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남녀분리 학교의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은 공교육 체제

1) 이 부분에 기술된 미국, 영국, 호주의 남녀공학 교육의 현황 및 정책 동향은 정해숙·유진은·김미윤(2009)의 「남녀공학 중등학교에서의 성별 교육 실태와 향후과제」 연구에서 소개한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속에서 교육기회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는 학생들에게 하나의 유형화된 교육기관이 아닌 각자의 특성과 학습수요에 가장 적합한 교육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현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는 것이다. 또한 남녀분리 학교는 과거처럼 성적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한 분리가 아니라 남녀 간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좀 더 효율적인 학습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학생은 동성끼리 수업을 받을 경우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고, 특히 취약과목, 여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학과 과학에서 남성의 경우는 어학과 문학에서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Riordan, 1994, 1998; 이노홍, 2007).

이와 관련하여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성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관심을 갖고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녀공학 교육과 학업성취도에서의 성차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러한 맥락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기존의 공립학교는 남녀공학 교육이라는 원칙을 완화하여 최근 남녀분리 학급과 남녀분리 학교를 허용하는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공립학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경제적 배경에 관계 없이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 전국단성공립교육협회(NASSPE)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들어 남녀공학이지만 남녀분리 수업을 하거나 동성의 학생들로만 구성된 단성학교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미국과 같이 남녀분리 학급의 교육적 성취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법제를 마련하여 공립학교에서의 남녀분리 교육기회를 확대하기보다는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학업성취도에서의 성차를 줄이면서 남녀학생간의 성취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호주 역시 영국과 유사하게 남녀공학 교육이라는 큰 틀의 변화 없이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서 남녀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호주는 남학생의 성취를 제고하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보다는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학생의 성에 따른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각 학교가 학교의 특성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여러 나라들에서 남녀분리 교육의 확대를 검

토하고 있는 배경에는 보편화되어 있는 남녀공학 교육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교육 차원에서 교육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즉 과거와는 달리 학습과정에서 보이는 남녀학생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남녀분리라는 수단을 통해 남녀학생 모두의 학습효과 및 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즉 남녀평등 교육의 증진을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노홍, 2007).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남녀분리 교육에 대한 목소리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입시의 주요 요소인 내신성적과 관련하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리해 남학생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따라 남녀분리교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은 인성교육보다는 대학입시에 치중하다보니 학교교육의 많은 부분이 학업성취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우리나라 남녀공학 교육의 현 실정이라 할 수 있다(이상복, 2008).

3. 국내외 성평등 교육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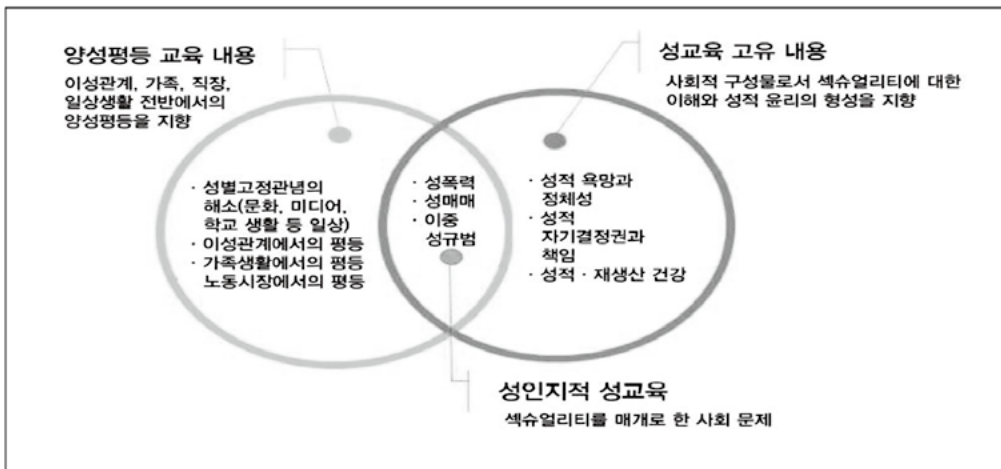
가. 우리나라의 성평등 교육 사례

1) 중등학교 교과 교육과정에서의 성평등 교육

양성평등교육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범교과 학습 주제 39개 주제 중 하나로, 각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교육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정상적 운영과 범교과 학습 주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그 주제를 10개 주제로 대폭 축소하였다. 10개로 축소된 범교과 학습 주제 중, 양성평등교육은 ‘인권교육’ 주제 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아동, 청소년, 장애인, 양성평등, 노동 인권 등)과 관련된 내용 요소에 포함되어, 양성평등을 인권의 관점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다 (홍후조 외, 2016).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중등학교 학교교육활동 전반에서 성평등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중등학교 교과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



[그림 II-1] 양성평등교육과 성교육의 관계

출처: 정해숙·마경희·최윤정(2013). 초·중등학교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방안. P.20

는 성평등 교육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교과별 성평등 관련 내용 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해숙 외(2013)의 연구에서 분류한 양성평등교육, 성교육, 그리고 양성평등교육과 성교육이 교차하는 성인지적 성교육의 정의 및 교육 내용을 참고하였다(그림 II-1 참조).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별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내용요소, 학습요소, 성취기준 해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을 모두 검토한 후, 성평등 관련 내용 요소를 담고 있는 교과별 교육내용 및 성취기준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학교 교과 교육과정에 포함된 성평등 교육 내용은 다음 <표 II-8>과 <표 II-9>와 같다.

<표 II-8> 중학교 교과별 성평등 교육 내용

교육 내용	교과	성취기준
성별 고정관념의 해소	도덕	[9도03-01] 인간 존엄성과 인권, 양성평등이 보편적 가치를 도덕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타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통제하여 보편적 관점에서 모든 인간을 인권을 가진 존재로서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다.
	보건	[9보05-03] 성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 편견과 차별이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상황을 분석하고, 양성적 성역할을 재설정하여 제시한다.
이성관계에서의 평등	도덕	[9도02-03] 성과 사랑의 다양한 의미를 이해하고, 청소년기의 성 문제를 도덕적 시각에서 평가하며, 일상생활에서 이성친구에 대한 예절을 지키는 실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기술·가정	[9기가01-02] 청소년기 또래문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친구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분석하여 건강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보건	[9보05-02] 남녀 성의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성교제 시 변화 단계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 및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대해 토론한다.
가족생활에서의 평등	기술·가정	[9기가01-05] 다양한 가족 관계의 유형과 특징을 파악하고, 양성평등하고 세대 간의 민주적인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방안을 탐색하여 실천한다.

교육 내용	교과	성취기준
		[9기가02-09] 가정폭력의 사회·구조적인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고, 가정 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대처 및 지원 방안을 탐색한다. [9기가03-07] 일·가정을 양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개인 및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노동시장에서의 평등	사회	[9사(일사)06-03]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노동권 침해 사례와 구제 방법을 조사한다.
	진로와 직업	[9진02-06] 직업에 대한 사회의 여러 가지 편견과 고정관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다.
성폭력	기술·가정	[9기가02-08] 성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성폭력의 원인과 영향을 개인 및 사회적 차원에서 분석하여 예방 및 대처 방안을 탐색한다.
성매매	보건	[9보05-05] 대중매체를 통한 음란물과 성 상품화가 섹슈얼리티에 미치는 영향을 토론힬하여 비판적 대안을 제시한다.
이중 성규범	보건	[9보05-02] 남녀 성의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성교제 시 변화 단계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 및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대해 토론힬한다.
성적욕망과 정체성	보건	[9보05-01] 청소년기 성적 변화와 욕구의 개인차를 탐색하여 적절한 대처 및 건강한 섹슈얼리티 형성 방안을 제시한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책임	기술·가정	[9기가01-03] 청소년의 성적 발달 특징을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의 성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한 성 가치관을 형성한다. [9기가02-08] 성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성폭력의 원인과 영향을 개인 및 사회적 차원에서 분석하여 예방 및 대처 방안을 탐색한다.
	보건	[9보05-02] 남녀 성의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성교제 시 변화 단계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 및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대해 토론힬한다.
성적·재생산 건강	보건	[9보05-04] 임신과 출산이 개인·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임신·출산·피임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하여 이해한다. [9보05-06] 성폭력·성매매, 성 매개 감염병의 원인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예방 및 대처 방법을 제시한다.

〈표 II-9〉 고등학교 교과별 성평등 교육 내용

교육내용	교과	성취기준
성별 고정관념의 해소	생활과 윤리	[12생윤02-03] 사랑과 성의 의미를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성과 관련된 문제를 여러 윤리 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으며 가족윤리의 관점에서 오늘날의 가족 해체 현상을 탐구하고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가족생활에서의 평등	기술·가정	[12기가03-04] 가족생활설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미래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요소를 파악하여 설계한다.
성폭력	기술·가정	[12기가02-04] 생애주기별로 발생할 수 있는 생활 및 신변 안전사고의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고, 개인·가족·사회적 차원에서 예방 및 대처방법을 탐색한다.
	보건	[12보05-03]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유발 요인 및 관련법·정책과 관련지어 개인·공동체·국가 수준의 예방 대책을 토론한다.
성매매	보건	[12보05-03]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유발 요인 및 관련법·정책과 관련지어 개인·공동체·국가 수준의 예방 대책을 토론한다.
이중 성규범	보건	[12보05-04] 성 문화, 성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사회적 요인과 관련지어 개인·공동체·국가 수준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성적욕망과 정체성	보건	[12보05-01] 섹슈얼리티의 개념과 생애 주기별 성적 특성을 이해하고, 건강한 섹슈얼리티를 갖기 위한 개인, 공동체의 대안을 제시한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책임	보건	[12보05-02] 이성 간의 사랑 및 성적 자기 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성적 자기 결정권의 기준을 제시한다.
성적·재생산 건강	보건	[12보05-05] 성 매개 감염병의 특성과 현황을 탐색하고, 개인·사회적 측면에서 예방법을 제시한다. [12보05-06] 준비된 임신과 피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미혼모, 저출산에 대한 관점의 차이와 영향 요인을 탐색하며, 국가별 미혼모, 저출산 관련 정책 및 지원 대책을 비교·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시한다.

2) 비교과활동에서의 성평등 교육

교과활동 외 성평등 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의 자율활동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간 이수해야 하는 양성평등교육 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간 자율활동 시수로 확보하고 있으며, 활동 내용으로는 주로 성폭력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평등 교육은 연 1~2회 정도 이루어지며, 교육 방법은 동영상 시청, 외부강사 초청 특강, 여러 형태의 대회(예: 글짓기, 캠페인 UCC, 신문 만들기, 포스터 등)로 주로 일회성 활동이 대부분이다. 또한 교육의 대상을 가정으로 확대하여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가정통신문의 내용은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가정에서의 성평등 정도를 알아보는 체크리스트와 실천 방안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교원 대상 성평등 교육 관련 직무연수 현황

성평등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사가 갖고 있는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인지 감수성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원의 성평등 의식 함양 및 성인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직무연수 중, 경상남도교육연수원과 한국양성평등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원대상 성평등 교육 관련 집합연수 및 원격직무연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 경상남도교육연수원의 교원 집합직무연수

경상남도교육연수원에서는 <표 II-10>에 제시한 것과 같이, 2018년 교원대상 성평등 교육 관련 집합직무연수로 초등학교 교원 및 중등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인권향상' 직무연수를 2회 실시하였다. 이 직무연수의 목적은 교원들의 성인지 및 성인권 향상을 통한 올바른 성의식 함양과 학생 성인지 교육을 위한 교원 및 관리자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참여 인원을 40명 내외로 제한함으로써 많은 교원들이 직무연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학교장의 성평등 의식과 의지는 학교 전체의 성평등 교육 및 성평등 문화 정착

〈표 II-10〉 교원대상 성평등 교육 관련 집합직무연수 운영(경상남도교육연수원)

연수명	내용	대상	시수
2018. 초등 성인지 인권향상 직무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바른 성의식 함양을 위한 법령 이해 - 성인권 교육을 말하다 - 미디어 리터러시 성교육을 통한 사회문화 읽기 - 우리사회의 성문화 이해 - 성인지 감수성 키우기 	초등학교 교원	15
2018. 중등 성인지 인권향상 직무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바른 성의식 함양을 위한 법령 이해 - 젠더와 페미니즘 교육이란 무엇인가? - 성인지 감수성 키우기 - 성인권 교육을 말하다 - 우리사회의 성문화 이해 	중등 교장·교감	15

* 실제 직무연수 교육시수는 18시수이나, 여기에서는 성평등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한 직무교육 시수만을 제시함.

출처: 2018년 경상남도교육연수원 연수정보 교육과정 안내

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교사가 수업시간에 교과과정에서의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 수업을 가르칠 때 교사가 가지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이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교원의 성평등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장 및 교원에 대한 성평등 교육 관련 연수를 확대·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교원 원격직무연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성평등 교육의 확산을 목적으로 2003년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이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는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공무원 대상 성인지 정책 교육 및 여성리더십 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안 개발, 시범·선도학교 및 원격교육연수원 운영, 그 외 여성가족부 위탁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8년 현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격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원대상 성평등 교육 관련 원격직무연수 과정은 <표 II-11>에 제시된 것과 같이 3개의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각 교육과정마다 일 년에 2~3회씩 운영된다. 이 중, ‘성인지 UP! 학교에서의 성 인권’ 과정은 유료강의이다.

<표 II-11> 교원대상 성평등 교육 관련 원격직무연수 운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과정	내용	대상	시수
공감! 특특! 양성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의 이해(학교에서의 양성평등, 성차이와 성차별, 사회적 성역할과 고정관념 등) - 섹슈얼리티와 한국의 성문화(젠더와 섹슈얼리티, 한국성문화의 특성 등) - 성인지 감수성(성인지 감수성의 이해, 학교에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 현대사회와 젠더(가족의 변화, 일·삶 균형 맞추기, 해외사례 등) 	<p>각급학교 (초·중·고·특수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p>	15
양성평등 모두를 위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에 대한 새로운 이해 - 역사 속 양성평등 - 젠더와 사회구조 - 가족의 탄생 - 미디어 속 외모지상주의 - 청소년 지금은 연애 중 - 교사들은 양성평등한가?(생활지도편) 	<p>각급학교 (초·중·고·특수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p>	30
성인지 UP! 학교에서의 성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인권 - 성과 평등(젠더와 성역할 고정관념, 평등과 양성평등, 차이와 차별 등) - 성과 문화(미디어와 문화와 성,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대처방법 등) - 관계와 소통(의사소통, 관계 형성, 사랑과 친밀감 등) - 학교에서의 성 인권 수업 사례 	<p>각급학교(초·중·고·특수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p>	15

출처: 한국양성평등교육원 원격교육연수원 교원원격직무연수 과정 안내

나. 외국의 성평등 교육 사례²⁾

1) 스웨덴: 성평등 유치원 이갈리아(Egalia)

대표적인 성평등 국가로 알려진 스웨덴은 1998년 모든 교육과정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 하였고, 2010년부터 시행된 교육법(Education Act)에서는 모든 교육기관과 교육활동이 성평등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1950년대부터 아동이 민주주의 및 인권 가치를 통해 사회화될 필요를 명문화한 스웨덴은 2010년 교육법을 통해 그 이전에는 보건사회부 관할이었던 유치원을 교육연구부 관할로 변경하고, 성평등을 위한 기관임을 명시하였다. 스톡홀름시 쇠테말름 구역에 위치한 남녀공학 공립 유치원인 이갈리아 유치원은 2010년 「교육법」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갈리아 유치원에서는 모든 장난감, 책, 자료 그리고 아이들과 어른들을 대하는 자세까지 성평등 관점에서 고려된다. 특히 남아와 푸른색, 여아와 분홍색과 같은 전형적인 색깔은 피한다. 교사들은 1중일에 한 번씩 아동들을 둘러싼 환경, 그들의 사고와 감정에 대해서 토론하는 데, 해당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특히 이갈리아 유치원에서는 여성을 뜻하는 'hon(she)'이나 남성을 뜻하는 'han(he)' 대신 'hen'이라는 중립적인 대명사를 사용한다. 이는 매일 사용하는 언어가 성별을 구분할 때 성평등은 달성되기 어렵다는 교육철학에 기초한다.

또한 아동들은 ‘엄마와 아빠, 자녀’라는 전통적 성역할에 기반한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2명의 아빠와 자녀 또는 2명의 엄마와 자녀’, ‘한부모와 자녀’ 등 가족의 형태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즉 전통적인 가족 구성 이외에 동성커플, 입양이나 한부모 가정 등 가족의 형태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놀이와 그림책을 통해 배운다. 이와 같이 학령기 이전부터 성 중립적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존중하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2) 이 부분에 기술된 각국의 성평등 교육 사례는 마경희 외(2016)의 「남성의 양성평등정책 통합을 위한 정책논리와 추진과제」 연구에서 소개한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2) 독일: 비전통 분야로의 진로 탐색

유럽을 위시한 서구에서도 특정 전공에 성별이 편중되는 현상은 여전하다. 중등 교육 단계에서 남학생들은 직업과 직접 연관된 전공, 예컨대 공학이나 제조업, 건설 분야 전공을 택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인문사회 혹은 돌봄 분야 전공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현재의 지배적 남성성을 구성하는 성별 분업이 여전히 관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독일은 서유럽 국가 중에서 전통적 성역할 분리가 강한 나라이며, 이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성별 직종분리 현상도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중등단계에서 이미 대학 진학을 위한 김나지움(Gymnasium) 과정과 직업 선택을 위한 하우트슐레(Hauptschule) 과정으로 나뉘는 이중 체계 교육은 독일의 성별 직종분리 현상의 핵심 기제라 할 수 있다.

독일은 2000년부터 매년 4월 24일을 ‘소녀의 날(Girls’ Day)’로 지정하여 전국의 중등학교 여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직업 관련 행사와 미니 인턴십을 개최해 왔다. 여학생들이 비전통적인 직업을 체험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행사는 하루 동안 치러지지만 각 기관 참여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참석 예약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여학생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하며, 각 기관에서 준비한 체험들의 수준 또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점이 특징이다. 일방적인 주입식 설명보다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인 정보, 직업의 어려운 점과 문제점 등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여학생들이 직접 직업을 체험해 보도록 하는 것이 행사의 주요 내용이다. 독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소녀의 날’ 제정 이후 공학 분야 특히 금속과 전자공학으로의 여학생 진출이 10% 정도 증가했다고 한다.

‘소녀의 날’이 성공리에 정착되면서 2005년 연방정부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중등교육을 마치고 직업을 구하는 청년 남성을 대상으로 2005년에서 2010년까지 ‘소년의 새로운 진로(New Paths for Boys)’라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소년의 새로운 진로’ 시범사업 이후 2011년부터는 ‘소년의 날(Boys’ Day)’이 제정되었다. ‘소녀의 날’이 기술직 미니 인턴십 경험에 중점을 두는 데 반해 ‘소년의 날’은 미니 인턴십을 포함하여 ‘직업과 생애 계획’, ‘남성성을 보다 다양화하기’, ‘사회적 역량 확대’ 등 3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이러한 접근은 전통적이건 현대

적이건 남성들의 ‘일반적인 생애주기’가 직업과 커리어를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통찰에 기인한 것이다. 이에 기반하여 각 학교 재량에 따라 소년들을 위한 사회적 섹터나 돌봄 관련 직종 미니 인턴십, 소년들의 생애 계획과 지배적 남성성, 여성에 대한 비판적 세미나 등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남학생들은 사회적 섹터 영역에 속하는 직업에서의 본인의 능력에 스스로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아이들을 보살피는 직종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사업 평가를 위한 집단면접에서도 학생들은 프로그램이 직업에 대한 새로운 기회와 경험을 제공해 준 즐겁고 흥미로운 행사였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고하였다.

3) 아일랜드: 남학생을 위한 ‘남성성 탐험’ 프로그램

교육에서의 성평등을 위한 아일랜드 정부의 노력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 교육과학부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10여개의 성평등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이 프로젝트들은 여학생들이 어떻게 더 평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것인가를 다루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는 성평등 교육이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어나면서, 1995년부터 남학교의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아일랜드는 서유럽 국가 중에서 특이하게 중등교육 단계에서 성별 분리교육 전통이 공고한 나라이다. 2002년 기준 남학생의 16%, 여학생의 23%가 성별 분리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남학교를 다닌 남학생들이 성평등에 대해 관심을 가질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대체로 이들은 남녀공학 남학생들이나 여학생들에 비해 성별 전형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특정 범주의 사람들 예컨대, 동성애자 남성들에 대한 편견도 높고, 지배적 남성성을 우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등 남학교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평등적 관점에서 남성성을 성찰하도록 하는 ‘남성성 탐험(EM: Exploring Masculinities)’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남성성 탐험 프로그램은 전환학년을 맞이한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는 중등교육 과정 중에서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주니어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시니어 과정에 들어가기 전 1년 동안 운영되는 학교교육과정이다. 전환학년 1년 동안 학생

들은 시험을 치르지 않는 대신 체험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자신들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남성성 탐험 프로그램은 ‘지배적 남성성과는 다른 다양한 남성성을 이해하고 경험하기,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성별 간 그리고 남성들 내부와 여성들 내부의 평등을 고취시키기, 남성들에게 사람들 간의 관계와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킬 기회 부여하기, 건강한 생활양식 고취시키기, 남성들에게 인생에서의 선택, 사회에서의 역할 변화, 노동관계, 건강과 섹슈얼리티, 여성과 남성, 아동에 대한 성폭력, 스포츠에 대한 의식을 고양시키기’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도입과 결론, 그리고 5개의 주제인 ‘남성과 일/ 남성과 힘/ 관계와 건강, 섹슈얼리티/ 여성과 남성, 아동에 대한 폭력/ 스포츠’로 구성되어 있으며, 76개 시수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교사를 위한 참고자료와 학생들을 위한 자료와 비디오가 제공된다. 각 학교에서는 76개 시수를 모두 운영하기보다는 학교별 특성이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주제를 골라 그 주제를 깊이 다루는 교육을 실시한다.

4) 프랑스: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평등의 ABCD’ 프로젝트³⁾

‘평등의 ABCD’ 프로젝트는 어린 시절 학생들의 학과 성적과 학창 시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 불평등적 인식 형성을 막고, 학교 안팎의 성별 고정관념을 학생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프랑스 여성권리부와 교육부가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10개 지역의 247개 학교와 600명의 자원교사들이 참여하였는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 교사들을 위한 성평등 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신입교원이나 현직교원을 위한 교사연수에 성평등 교육을 필수교육과정으로 포함하여 성평등 내용에 대한 교육연수를 실시하고, 교육부에서 승인한 모든 성평등 교육 자료를 모아놓은 웹사이트 개설을 통해 적절한 교육 자료를 배포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성평등 가치를 알리기 위해 교과과목 내 성평등 내용을 반영하며, 학부모들이 성평등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사업의 주요 내용으

3) 프랑스의 성평등 교육 사례는 이수연 외(2014)의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연구에서 소개된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한 것임.

로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 소개한 해외의 다양한 성평등 교육 사례들은 학교교육에서의 성평등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일상생활에서 사회·문화적으로 만들어진 여성성과 남성성의 특징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이러한 여성성과 남성성으로 인한 성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스웨덴의 이갈리아 유치원은 유치원의 교재와 교구를 비롯한 교육과정 전반에서 아이들이 전통적인 성별 고정관념이나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에 대한 편견을 학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를 통해 어린아이 때부터 장난감이나 놀이 등 일상생활에서 성별 고정관념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성평등 의식이 자연스럽게 내면화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령기 이전부터 성평등 교육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독일은 ‘소녀의 날’과 ‘소년의 날’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직업 선택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이 모두 전통적으로 성별화된 직업 선택을 넘어서서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를 통해 성별 직종분리나 직업 고정관념을 깨는 진로탐색 및 직업교육이 중요함을 말해준다.

아일랜드는 고등학교 1학년 연령대의 남학교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배적 남성성을 성찰하고 건강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남성성 탐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배적 남성성에서 중심이 되는 폭력에 대해 성찰 및 다양한 남성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제공한다. 프랑스의 ‘평등의 ABCD’ 프로젝트는 교육 분야에서의 성평등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직원에 대한 성평등 교육연수 및 교육자료 배포 등을 통해 학교에서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여성부처와 교육부가 함께 노력한 사례이다.

이러한 해외의 성평등 교육 사례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를 통해 학교에서의 성평등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특히 교사의 성별 고정관념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다양한 성평등 교육을 위한

연수나 세미나, 워크숍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교육 자료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현장 교사들의 성평등 의식 제고 및 학교 교원의 성평등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남성은 의사, 여성은 간호사”식의 직업 고정관념이나 성별 직종 분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강하기 때문에, 성별 직종 분리와 고정관념을 깨는 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따라서 남녀학생들의 비전통 분야로의 진로탐색을 돕기 위한 독일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학생들에게 전통적인 성별 직업 선택을 넘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 체험활동 기회 및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직업교육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잘 활용하여, 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신의 관심과 적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상담을 위한 교원 대상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III. 남녀공학과 단성중학교 운영 실태 및 교육적 성과 분석

1. 남녀공학과 단성중학교의 교육활동 및 교육경험

가. 학생 생활교육(생활지도) 중점 내용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활지도(생활교육)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표 III-1>에 제시한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학교폭력 관련 생활지도가 5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용의복장 관련(23.7%), 교우관계 관련(11.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남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생활지도가 5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학교에서는 용의복장 관련(38.9%)과 학교폭력 관련(38.2%) 생활지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녀공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관련이 5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용의복장 관련이 23.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녀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남녀공학에서 이성교제와 같은 교우관계 관련 생활지도에 더 중점을 둘 거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학교유형에 따른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폭력 관련 생활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 특히 중학생들의 학교폭력 관련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학교유형에 상관없이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측면에서 왕따, 집단따돌림 등 학생들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남학생만 있는 남학교보다 여학생이 포함되어 있는 여학교나 남녀공학교에서 용모나 복장과 관련된 생활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학교 교육활동에서 여학생에게는 여성다움을 강조하는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우리 사회의 이중적인 성 규범이 작동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표 III-1〉 학교유형에 따른 학교의 생활교육 중점 내용

	학교유형			전 체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학교폭력 관련(왕따, 집단따돌림 등)	372(58.1)	220(38.2)	496(51.7)	1,088(50.0)
용의복장 관련(복장, 두발, 화장 등)	65(10.2)	224(38.9)	226(23.5)	515(23.7)
교우관계 관련(이성교제, 또래관계 등)	87(13.6)	59(10.2)	106(11.0)	252(11.6)
등하교 관련(무단 지각·조퇴·결석 등)	83(13.0)	58(10.1)	93(9.7)	234(10.8)
기타(예: 인성교육, 흡연·음주 등)	33(5.2)	15(2.6)	39(4.1)	87(4.0)
전 체	640(100.0)	576(100.0)	960(100.0)	2,176(100.0)

나. 학교문화(학교의 가치 문화)

Coleman(1961)은 남녀공학은 단성학교에 비해 학업성취보다는 이성학생에게 매력이나 인기 등에 가치를 두는 청소년 하위문화가 생성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남녀공학의 남학생들은 학업성취보다는 ‘다른 학생들로부터 인기’와 ‘여학생과의 사교’에 집착하게 되는데, 남녀공학 환경은 이러한 두 가지 행동이 지배적인 학교문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Lee & Bryk, 1986).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동료학생들로부터 선망이나 부러움의 대상 요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여 학교유형에 따라 학교의 가치 문화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학교에서 동료학생들로부터 선망이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지를 조사한 결과(표 III-2 참조), 전체적으로는 ‘성격이 좋은 것’(28.8%)과 ‘공부를 잘 하는 것’(27.7%) 요인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왔다. 그 다음으로는 ‘멋있는 외모를 갖는 것’(16.6%), ‘운동을 잘 하는 것’(11.5%)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응답 중 1순위 요인만을 포함하여 학교유형별로 그리고 남녀공학 내 학급형태별로 이러한 선망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학교유형별로 보면(표 III-3 참조), 남학교에서는 ‘공부를 잘 하는 것(42.7%) > 성격이 좋은 것(24.5%) > 운동을 잘 하는 것(12.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학교에서는 ‘성격이 좋은 것(40.5%) > 공부를 잘 하는 것(33.0%) > 멋있는 외모를

〈표 III-2〉 학교에서 동료학생들로부터의 선망요인(전체)

구 분	1순위	2순위	전체(1+2)
공부를 잘 하는 것	790(36.4)	411(18.9)	1,201(27.7)
운동을 잘 하는 것	176(8.1)	324(14.9)	500(11.5)
멋있는 외모를 갖는 것	285(13.1)	434(20.0)	719(16.6)
교내활동에서 리더로 활동하는 것	122(5.6)	278(12.8)	400(9.2)
이성친구가 많은 것	60(2.8)	137(6.3)	197(4.5)
성격이 좋은 것	710(32.7)	542(25.0)	1,252(28.8)
기타	29(1.3)	43(2.0)	72(1.7)
전 체	2,172(100.0)	2,169(100.0)	4,341(100.0)

〈표 III-3〉 학교유형별 동료학생들로부터의 선망요인(1순위만)

구 분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전 체
공부를 잘 하는 것	273(42.7)	190(33.0)	327(34.2)	790(36.4)
운동을 잘 하는 것	77(12.0)	10(1.7)	89(9.3)	176(8.1)
멋있는 외모를 갖는 것	63(9.8)	80(13.9)	142(14.9)	285(13.1)
교내활동에서 리더로 활동하는 것	34(5.3)	42(7.3)	46(4.8)	122(5.6)
이성친구가 많은 것	28(4.4)	9(1.6)	23(2.4)	60(2.8)
성격이 좋은 것	157(24.5)	233(40.5)	320(33.5)	710(32.7)
기타	8(1.3)	12(2.1)	9(.9)	29(1.3)
전 체	640(100.0)	576(100.0)	956(100.0)	2,172(100.0)

갖는 것(13.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녀공학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것(34.2%) > 성격이 좋은 것(33.5%) > 멋있는 외모를 갖는 것(14.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녀공학교만을 대상으로 학급형태, 즉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은 학급에 소속되어 함께 생활하는 남녀합반과 분리되어 생활하는 남녀분반에 따라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살펴본 결과(표 III-4 참조), 남녀합반에서는 ‘공부를 잘 하는 것(35.5%) > 성격이 좋은 것(29.7%) > 멋있는 외모를 갖는 것(15.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녀분반에서는 ‘성격이 좋은 것(38.2%) > 공부를 잘 하는 것(32.5%) > 멋있는 외모를 갖는 것(14.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학급유형

〈표 III-4〉 학급형태 및 성별에 따른 동료학생들로부터의 선망요인(1순위만)

구 분	남녀합반			남녀분반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공부를 잘 하는 것	101(36.6)	89(34.4)	190(35.5)	64(35.2)	73(30.5)	137(32.5)
운동을 잘 하는 것	45(16.3)	13(5.0)	58(10.8)	28(31.5)	3(1.3)	31(7.4)
멋있는 외모를 갖는 것	45(16.3)	37(14.3)	82(15.3)	24(13.2)	36(15.1)	60(14.3)
리더로 활동하는 것	9(3.3)	15(5.8)	24(4.5)	7(3.8)	15(1.6)	22(5.2)
이성친구가 많은 것	8(2.9)	7(2.7)	15(2.8)	5(2.7)	3(1.3)	8(1.9)
성격이 좋은 것	65(23.6)	94(36.3)	159(29.7)	53(29.1)	108(45.2)	161(38.2)
기타	3(1.1)	4(1.5)	7(1.3)	1(.5)	1(.4)	2(.5)
전 체	276(100.0)	259(100.0)	535(100.0)	182(100.0)	239(100.0)	421(100.0)

에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남학생은 ‘공부’ 요인을, 여학생은 ‘성격’ 요인을 선망요인으로 뽑았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학교에서 ‘운동을 잘 하는 것’ 요인이 선망요인 중 하나로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학교유형이나 학급형태에 상관없이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공부, 성격, 외모’의 세 가지 요인을 중요한 선망요인으로 들었다. 이 세 가지 선망요인 중, 남학생은 ‘공부를 잘 하는 것’ 요인을 여학생은 ‘성격이 좋은 것’ 요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 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 극명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단성학교에 비해 남녀공학에서 멋있는 외모나 운동을 잘 하는 것과 같은 신체적 매력이 더 강조되는 반면 단성학교에서는 학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학구적인 풍토가 증진된다고 주장하는 일부 연구결과(Coleman, Schneider, & Coutts, 1982; 정해숙 외, 2009)를 지지하지 않는다.

다. 외모에 대한 관심 및 이성교제

남녀학생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남녀공학 환경에서 학생들의 이성 간 관계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것은 남녀공학 교육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정해숙 외, 2009). Riordan(1990)에 따르면,

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과 이성교제는 이성과 함께 생활하는 남녀공학에서 더욱 커지고, 이로 인해 학구적인 풍토는 약화된다는 점이 남녀공학 교육의 단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남녀공학 환경은 또래 이성에게 주의를 뺏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남녀공학 학생들이 단성학교 학생들에 비해 학습시간이 더 적고, 이것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쳐 남녀공학의 학업성취도가 단성학교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김경년, 2013; 김희삼,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나 이성교제 측면에서 학교유형 및 남녀공학 내 학급 운영 형태를 고려하여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1) 외모에 대한 관심도

학교유형 및 남녀공학의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외모에 대한 관심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학교유형과 성별에 따른 이원분산분석은 학교유형 중 단성학교인 남학교와 여학교에는 이미 성별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재설계(Nested design)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남녀공학의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차이는 각 요인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교차설계(Crossed design)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학교유형에 따른 외모에 대한 관심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내재설계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외모에 대한 관심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II-5>에 제시하였고,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III-6>에 각각 제시하였다.

이원분산분석 결과(표 III-6 참조) 성별 외모에 대한 관심에서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3.04점)이 남학생(2.45점)보다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23.11, p<.001$).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남학교 남학생(2.50점)이 남녀공학 남학생(2.38점)보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더 높게 나타났고($F=6.46, p<.01$), 여학생의 경우는 여학교 여학생이나 남녀공학 여학생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녀공학 학생들이 이성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외모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표 III-5>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외모에 대한 관심도의 기술통계

구 분	남자			여자			전 체
	단성	공학	합계	단성	공학	합계	
사례수	640	460	1,100	576	500	1,076	2,176
평균 (표준편차)	2.50 (.82)	2.38 (.73)	2.45 (.79)	3.03 (.78)	3.06 (.76)	3.04 (.77)	2.74 (.83)

<표 III-6>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외모에 대한 관심도에서의 차이 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성별	197.76	1	197.76	323.11***
학교유형(in 남자)	3.95	1	3.95	6.46**
학교유형(in 여자)	.40	1	.40	.42
집단 내	1329.38	2172	.61	
전 체	1527.28	2175	.70	

*** $p < .001$, ** $p < .01$

다음으로, 남녀공학만을 대상으로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외모에 대한 관심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외모에 대한 관심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II-7>에 제시하였고,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III-8>에 각각 제시하였다.

이원분산분석 결과(표 III-8 참조)는 성별 주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96.46$, $p < .001$). 즉 학급형태에 상관없이 여학생(3.06점)이 남학생(2.38점)에 비해 외모 관심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7>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외모에 대한 관심도의 기술통계

구 분	남녀합반		남녀분반		전 체	
	n	M(SD)	n	M(SD)	N	M(SD)
남자	278	2.39(.71)	182	2.36(.77)	460	2.38(.73)
여자	261	3.09(.76)	239	3.03(.77)	500	3.06(.76)
합 계	539	2.73(.81)	421	2.74(.84)	960	2.73(.82)

〈표 III-8〉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외모에 대한 관심도에서의 차이 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학급형태(A)	.42	1	.42	.73
성별(B)	111.08	1	111.08	196.46***
A×B	.07	1	.07	.12
오차	540.54	956	.57	
수정합계	654.42	959		

*** $p < .001$

2) 이성친구 유무 및 대상

지난 1년 동안 일대일로 만나는 이성친구가 있는지, 이성친구 유무를 알아보았다. 이성친구 유무를 알아본 결과(표 III-9 참조), 전체적으로는 이성친구가 ‘없다’는 응답이 74.2%로 이성친구가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교 남학생과 남녀공학 남학생 간의 이성친구 유무 비율에는 차이가 없으나 여학생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 남녀공학 여학생(31.4%)이 이성친구가 있다는 응답이 여학교 여학생(22.2%)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9〉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이성친구 유무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남자	단성	161(25.2)	479(74.8)	640(100.0)
	공학	116(25.2)	344(74.8)	460(100.0)
	합계	277(25.2)	823(74.8)	1,100(100.0)
여자	단성	128(22.2)	448(77.8)	576(100.0)
	공학	157(31.4)	343(68.6)	500(100.0)
	합계	285(26.5)	791(73.5)	1,076(100.0)
전체	562(25.8)	1,614(74.2)	2,176(100.0)	11.58***

*** $p < .001$

<표 III-10>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이성친구 유무

단위: 명(%)

구 분	있다	없다	전 체	χ^2
남녀합반	남자	70(25.2)	208(74.8)	278(100.0)
	여자	90(34.5)	171(65.5)	261(100.0)
	합계	160(29.7)	379(70.3)	539(100.0)
남녀분반	남자	46(25.3)	136(74.7)	182(100.0)
	여자	67(28.0)	172(72.0)	239(100.0)
	합계	113(26.8)	308(73.2)	421(100.0)
전 체	273(28.4)	687(71.6)	960(100.0)	

7.05[†]

[†]p=.070

다음으로, 남녀공학만을 대상으로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이성친구 유무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표 III-10 참조), 학급형태에 따른 남학생 간의 이성친구 유무 비율에는 거의 차이가 없으나 여학생 간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 남녀합반의 여학생(34.5%)이 남녀분반의 여학생(28.0%)에 비해 이성친구가 있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이성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남녀공학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이성친구가 같은 학교 학생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았다. 알아본 결과(표 III-11 참고), 전체적으로는 이성친구가 같은 학교 학생이라는 응답이 전체 59.8%로 나타났다.

학급형태 및 성별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같은 학교 학생과 사귀다는 비율이 남학생의 경우는 남녀분반에서 69.6%로 많았고, 여학생의 경우는 남녀합반에서 61.5%로 더 많았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녀공학 환경은 남녀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만남이나 교류의 빈도가 더 많게 되고, 이러한 물리적 환경은 남녀공학 학생들의 이성교제 확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남녀공학 내 이성교제 양상에 있어서는 남녀 간 차이가 있어, 이성과 함께 생활하는 물리적 근접성 요인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은 학교유형이나 학급형태에 따른 이성교제 비율에 큰 차이가 없지만, 여학생은 여학교보다는 남녀공학에서, 그리고 남녀분반보다는 남녀합반에서 이성교제 비율이 더 높

〈표 III-11〉 남녀공학의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이성친구 대상

단위: 명(%)

구 분		같은 학교 학생	다른 학교 학생	기타	전 체
남녀합반	남자	39(57.4)	27(39.7)	2(2.9)	68(100.0)
	여자	56(61.5)	31(34.3)	3(3.3)	90(100.0)
	합계	95(60.1)	58(36.7)	5(3.2)	158(100.0)
남녀분반	남자	32(69.6)	13(28.3)	1(2.2)	46(100.0)
	여자	35(51.5)	30(44.8)	2(2.9)	67(100.0)
	합계	67(59.3)	43(38.1)	3(2.7)	113(100.0)
전 체		162(59.8)	101(37.3)	8(3.0)	271(100.0)

은 것을 알 수 있다.

3) 이성친구가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인식

이성친구를 사귀는 것이 본인의 학교생활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줄 거라고) 생각하는지, 즉 이성친구가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인식 정도를 알아보았다.

먼저, 학교유형에 따른 이성친구의 영향 인식에 대한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II-12>에, 성별 내 학교유형 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이원분산 분석 결과는 <표 III-13>에 각각 제시하였다.

이원분산분석 결과(표 III-13 참고), 이성친구가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 ‘학교생활이 재미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성별 차이가 유의하여, 남학생(3.54점)이 여학생(3.28점)에 비해 이성친구를 사귀면 학교생활이 재미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인식이 더 높았다($F=32.17, p<.001$). 학교유형 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남녀공학 남학생(3.60점)이 남학교 남학생(3.49점)보다 이성친구를 사귀면 학교생활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긍정적 인식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43, p=.064$). 여학생의 경우도 남녀공학 여학생(3.41점)이 여학교 여학생(3.17점)보다 이성친구를 사귀면 학교생활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긍정적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4.73, p<.001$).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된다’ 측면에서는 성별 차이만 유의하여, 남학생(2.67점)이 여학생(3.04점)에 비해 이성친구가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정적 인식

〈표 III-12〉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이성친구의 영향 인식의 기술통계

문항	남자			여자			전체
	단성	공학	합계	단성	공학	합계	
학교생활이 재미있다 (재미있을 것이다)	3.49 (1.02)	3.60 (1.05)	3.54 (1.03)	3.17 (1.03)	3.41 (1.02)	3.28 (1.03)	3.41 (1.04)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된다 (방해가 될 것이다)	2.70 (1.06)	2.64 (1.07)	2.67 (1.07)	3.07 (1.07)	3.00 (1.07)	3.04 (1.07)	2.85 (1.08)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될 것이다)	3.07 (.95)	3.03 (.97)	3.05 (.96)	2.68 (.89)	2.75 (.92)	2.71 (.91)	2.88 (.95)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 (조심하게 될 것이다)	3.51 (1.01)	3.46 (1.01)	3.49 (1.01)	3.19 (.99)	3.39 (.97)	3.28 (.99)	3.39 (1.00)

*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된다'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임.

〈표 III-13〉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이성친구의 영향 인식에서의 차이 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F
학교생활이 재미있다 (재미있을 것이다)	성별	32.17***
	학교유형(in 남자)	3.43 [†]
	학교유형(in 여자)	14.73***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된다 (방해가 될 것이다)	성별	61.95***
	학교유형(in 남자)	.88
	학교유형(in 여자)	1.13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될 것이다)	성별	68.13***
	학교유형(in 남자)	.46
	학교유형(in 여자)	1.30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 (조심하게 될 것이다)	성별	20.65***
	학교유형(in 남자)	.71
	학교유형(in 여자)	11.31***

*** $p < .001$, [†] $p = .064$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F=61.95$, $p < .001$), 학교유형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도 성별 차이만 유의하여, 남학생

(3.05점)이 여학생(2.71점)에 비해 이성친구가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68.13, p<.001$), 학교유형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 측면에서는 남학생(3.49점)이 여학생(3.28점)에 비해 이성친구를 사귀면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는 긍정적 인식이 더 높았다($F=20.65, p<.001$). 학교유형 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남녀공학 남학생과 남학교 남학생 간의 차이는 크게 없으나, 여학생의 경우는 그 차이가 유의하여 남녀공학 여학생(3.39점)이 여학교 여학생(3.19점)보다 이성친구로 인해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F=11.31, p<.001$).

다음으로, 남녀공학의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이성친구의 학교생활 영향 인식에 대한 문항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원분산분석에 앞서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이성친구의 영향 인식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II-14>에 제시하였다.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이원분산분석 결과(표 III-15 참고), 이성친구가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 ‘학교생활이 재미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성별 주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3.60점)이 여학생(3.41점)에 비해 이성친구를 사귀면 학교생활이 재미있을 거라는 긍정적 영향 인식이 더 높았다($F=6.33, p<.05$). 학급형태별 차이에서는 .05 수준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남녀합반 학생(3.57점)이 남녀분반 학생(3.43점)보다 이성친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55, p=.060$).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성별 주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2.64점)이 여학생(3.00점)에 비해 이성친구가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정적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23.79, p<.001$). 학급형태별 차이에서도 .05 수준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남녀합반 학생(2.76점)이 남녀분반 학생(2.91점)보다 이성친구가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부정적 인식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3.41, p=.065$).

반대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도 성별 주효과만 유의하여, 남학생(3.03점)이 여학생(2.75점)보다 이성친구가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긍정적 인식이 더 높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다($F=19.49, p<.001$).

<표 III-14>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이성친구의 영향 인식의 기술통계

문항	성별	학급형태		전 체
		합반	분반	
학교생활이 재미있다 (재미있을 것이다)	남자	3.68(1.04)	3.48(1.06)	3.60(1.05)
	여자	3.44(1.07)	3.38(.96)	3.41(1.02)
	합계	3.57(1.06)	3.43(1.01)	3.51(1.04)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된다 (방해가 될 것이다)	남자	2.56(1.07)	2.75(1.10)	2.64(1.07)
	여자	2.97(1.10)	3.03(1.04)	3.00(1.07)
	합계	2.76(1.10)	2.91(1.06)	2.83(1.09)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될 것이다)	남자	3.06(.93)	2.97(1.02)	3.03(.97)
	여자	2.78(1.01)	2.71(.83)	2.75(.92)
	합계	2.93(.98)	2.82(.92)	2.88(.95)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 (조심하게 될 것이다)	남자	3.47(.99)	3.45(1.05)	3.46(1.01)
	여자	3.42(1.03)	3.35(.92)	3.39(.97)
	합계	3.45(1.00)	3.39(.98)	3.42(.99)

*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된다'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임.

<표 III-15>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이성친구의 영향 인식에서의 차이 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F
학교생활이 재미있다 (재미있을 것이다)	학급형태	3.55 [†]
	성별	6.33*
	학급형태×성별	1.13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된다 (방해가 될 것이다)	학급형태	3.41 [†]
	성별	23.79***
	학급형태×성별	.76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될 것이다)	학급형태	1.63
	성별	19.49***
	학급형태×성별	.04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 (조심하게 될 것이다)	학급형태	.59
	성별	1.28
	학급형태×성별	.14

*** $p < .001$, * $p < .05$, [†] $p < .07$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학급유형이나 성별에 따른 특별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이성교제에 대해 부정적 인식보다는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이성이 학교생활의 재미나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남녀공학에서 여학생의 존재가 남학생을 순화시켜 부드러운 학교문화를 만든다는 주장에 대한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여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 이성친구가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인식을 가장 부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여학교 여학생의 이성교제 비율이 가장 낮은 것과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다. 즉 여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은 이성교제가 학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이성교제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그들의 이성교제 행동에 영향을 미쳐 이성교제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라. 학교에서의 성 차별적 경험

남녀공학 찬성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남녀공학 교육이 성평등한 교육의 장이 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교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에 대한 가치관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정해숙·정경아, 2003; 정해숙 외 2009). 즉 교사의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젠더 감수성은 교수 과정 중에 직·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이것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의 성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 형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성 역할 사회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학교에서의 성 차별적 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1) 교사의 성 고정관념적 발언

우리학교 선생님들은 수업이나 학교생활 중에 성 고정관념적 언어 표현(예: ‘남자가...’, ‘여자가...’)을 자주 하는 편인지 즉 교사의 성 고정관념적 발언 정도를 알아보았다.

먼저, 학교유형에 따른 교사의 성 고정관념적 발언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학교유형에 따른 교사의 성 고정관념적 발언 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II-16>에,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III-17>에 >에 각각 제시하였다.

학교유형에 따른 이원분산분석 결과(표 III-17 참조), 성별 교사의 성 고정관념적 발언 정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2.95점)이 남학생(2.49점)보다 높게 나타나, 여학생이 학교생활 중에 교사의 성 고정관념적 발언을 들은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84.59, p<.001$). 이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교사의 성 고정관념적 언어 표현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남학교 남학생이나 공학남학생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여학생의 경우는 학교유형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교 여학생(3.16점)이 남녀공학 여학생(2.70점)에 비해 교사의 성 고정관념적 발언을 들은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46.09, p<.001$)

<표 III-16>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교사의 성 고정관념적 발언의 기술통계

구 분	남자			여자			전 체
	단성	공학	합계	단성	공학	합계	
사례수	640	460	1,100	576	500	1,076	2,176
평균 (표준편차)	2.53 (1.14)	2.44 (1.10)	2.49 (1.12)	3.16 (1.11)	2.70 (1.10)	2.95 (1.13)	2.72 (1.15)

<표 III-17>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교사의 성 고정관념적 발언에서의 차이 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성별	106.42	1	106.42	84.59***
학교유형(in 남자)	2.05	1	2.05	1.63
학교유형(in 여자)	57.99	1	57.99	46.09***
집단 내	2372.62	2172	1.26	
전 체	2905.35	2175	1.34	

*** $p<.001$

다음으로, 남녀공학만을 대상으로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교사의 성 고정관념적 발언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II-18>에,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III-19>에 제시하였다.

이원분석결과(표 III-19 참조), 학급형태별 주효과, 성별 주효과, 그리고 학급형태와 성별 상호작용효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급형태별로는 남녀합반(2.45점)보다는 남녀분반(2.74점)에서 교사로부터 성 고정관념적 발언을 들은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15.79, p<.001$). 성별로는 여학생(2.70점)이 남학생(2.44점)보다 교사의 성 고정관념적 발언을 들은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8.38, p<.01$). 학급형태와 성별을 함께 고려하면, 남녀분반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는 없지만 남녀합반의 남학생(2.24점)과 여학생(2.66점) 간에는 차이가 있어 여학생이 학교생활 중에 교사의 성 고정관념적 발언을 들은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8.37, p<.01$).

<표 III-18>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교사의 성 고정관념적 발언의 기술통계

구 분	남녀합반		남녀분반		전 체	
	<i>n</i>	<i>M(SD)</i>	<i>n</i>	<i>M(SD)</i>	<i>N</i>	<i>M(SD)</i>
남자	278	2.24(1.05)	182	2.74(1.11)	460	2.44(1.10)
여자	261	2.66(1.11)	239	2.74(1.10)	500	2.70(1.10)
합 계	539	2.45(1.10)	421	2.74(1.10)	960	2.57(1.11)

<표 III-19>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교사의 성 고정관념적 발언에서의 차이 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i>F</i>
학급형태(A)	18.93	1	18.93	15.79***
성별(B)	10.05	1	10.05	8.38**
A×B	10.03	1	10.03	8.37**
오차	1145.75	956	1.20	
수정합계	1188.90	959		

*** $p<.001$, ** $p<.01$

2) 동료학생의 성 고정관념적 발언

학교 친구들로부터 성 고정관념적 언어 표현(예: ‘남자가...’, ‘여자가...’)을 자주 듣는 편인지 즉 동료학생의 성 고정관념적 발언 정도를 알아보았다.

먼저, 성별 학교유형에 따른 동료학생의 성 고정관념적 발언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학교유형에 따른 동료학생의 성 고정관념적 발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II-20>에,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III-21>에 각각 제시하였다.

먼저,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III-21 참조)는, 여학생 간의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공학 여학생(2.21점)이 여학교 여학생(2.09점)보다 동료학생으로부터 성 고정관념적 언어 표현을 들은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3.47, p=.063$).

다음으로, 남녀공학만을 대상으로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동료학생의 성 고정관념적 발언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II-22>에,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III-20>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동료학생의 성 고정관념적 발언의 기술통계

구 분	남자			여자			전 체
	단성	공학	합계	단성	공학	합계	
사례수	640	460	1,100	576	500	1,076	2,176
평균 (표준편차)	2.23 (1.08)	2.15 (1.02)	2.20 (1.06)	2.09 (.96)	2.21 (1.03)	2.14 (1.00)	2.17 (1.03)

<표 III-21>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동료학생의 성 고정관념적 발언에서의 차이 분석

분산원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성별	.98	1	.98	.93
학교유형(in 남자)	1.54	1	1.54	1.45
학교유형(in 여자)	3.69	1	3.69	3.47 [†]
집단 내	2310.31	2172	1.06	
전 체	2317.09	2175	1.07	

[†]p=.063

<표 III-22>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동료학생의 성 고정관념적 발언의 기술통계

구 분	남녀합반		남녀분반		전 체	
	n	M(SD)	n	M(SD)	N	M(SD)
남자	278	2.00(.96)	182	2.38(1.07)	460	2.15(1.02)
여자	261	2.20(1.08)	239	2.21(.98)	500	2.21(1.03)
합 계	539	2.10(1.02)	421	2.28(1.02)	960	2.18(1.02)

<표 III-23>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동료학생의 성 고정관념적 발언에서의 차이 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학급형태(A)	8.515	1	8.515	8.14***
성별(B)	.051	1	.051	.05
A×B	7.976	1	7.976	7.63**
오차	999.614	956	1.046	
수정합계	1015.824	959		

*** $p < .001$, ** $p < .01$

<표 III-23>에 제시하였다. 이원분산분석 결과(표 III-23 참조), 학급형태별 주효과와 학급형태×성별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녀합반(2.10점)보다 남녀분반(2.28점)에서 동료학생으로부터 성 고정관념적 발언을 더 많이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F=8.14$, $p < .001$). 학급형태와 성별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학급형태에 따른 여학생 간의 차이는 거의 없으나, 남학생 간에는 차이가 있어 남녀분반 남학생(2.38점)이 동료학생으로부터 성 고정관념적 발언을 들은 경험이 더 많고, 남녀합반 남학생(2.20점)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F=7.63$, $p < .01$).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사나 동료학생으로부터 성 고정관념적 발언을 들은 경험 정도는 5점 척도 중 평균 2.5점 내외로 높지 않게 나타나 학교 교육 안에서 성평등 의식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여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성별 차이에 대한 경험 인식이 보고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학교에서의 성평등 문화 조성 및 성평등 교육 실천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 양성평등교육 현황

양성평등교육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범교과 학습 주제 중 하나로, 각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권교육 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의 하위요소에 양성평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학교에서 양성평등교육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양성평등교육 현황을 살펴보았다.

1) 양성평등교육 경험 유무

지난 1년 동안 학교에서 양성평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한 결과(표 III-24 참조), 전체적으로는 양성평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71.1%로 높게 나타났으나, 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도 28.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남학교(71.6%)나 남녀공학(79.1%)에 비해 여학교에서 양성평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57.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남녀공학의 학급형태별로는 남녀분반(76.7%)보다는 남녀합반(80.9%)에서 양성평등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4〉 학교유형 및 학급형태별 양성평등교육 경험 유무

단위: 명(%)

구 분	예	아니오	전 체	
학교유형	남학교	458(71.6)	182(28.4)	640(100.0)
	여학교	331(57.5)	245(42.5)	576(100.0)
	남녀공학	759(79.1)	201(20.9)	960(100.0)
전 체	1,548(71.1)	628(28.9)	2,176(100.0)	
학급형태	남녀합반	436(80.9)	103(19.1)	539(100.0)
	남녀분반	323(76.7)	98(23.3)	421(100.0)
	전 체	759(79.1)	201(20.9)	960(100.0)

2) 양성평등교육 시간

학교에서 양성평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은 주로 어떤 시간에 받았는지를 알아본 결과(III-25 참조), 전체적으로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받았다는 응답이 70.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과시간'이 25.5%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남학교(25.5%)나 남녀공학(21.7%)에 비해 여학교에서 교과시간에 양성평등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34.1%로 가장 높았다.

남녀공학의 학급형태별로 살펴보면, 남녀분반(18.0%)에 비해 남녀합반(24.4%)에서 교과시간에 양성평등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각 학교마다 교과시간보다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교과외의 경우 각 교과마다 교육내용을 지도하기 위한 수업시수가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시간을 활용하여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양성평등과 관련된 교육내용이 다루어지는 교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속에서 양성평등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여학교의 경우, 남학교나 남녀공학에 비해 양성평등교육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낮았지만, 양성평등교육을 교과시간에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표 III-25〉 학교유형 및 학급형태별 양성평등교육 시간

단위: 명(%)

구 분	교과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기타	전 체	
학교유형	남학교	126(25.5)	346(69.9)	23(4.6)	495(100.0)
	여학교	125(34.1)	221(60.2)	21(5.7)	367(100.0)
	남녀공학	177(21.7)	616(75.5)	23(2.8)	816(100.0)
전 체	428(25.5)	1,183(70.5)	67(4.0)	1,678(100.0)	
학급형태	남녀합반	115(24.4)	344(72.9)	13(2.8)	472(100.0)
	남녀분반	62(18.0)	272(79.1)	10(2.9)	344(100.0)
	전 체	117(21.7)	616(75.5)	23(2.8)	816(100.0)

* 복수응답

중학생들의 경우,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교과수업을 받는 데 보내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과시간에 수업내용과 연계하여 자연스럽게 양성평등의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및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3) 양성평등교육 방법 및 선호하는 방법

양성평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양성평등교육 방법을 알아본 결과(표 III-26 참조), ‘외부강사 초청 특강’이 4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정통신문 또는 유인물 배포’(20.2%), ‘글짓기나 캠페인과 같은 참여 활동’(13.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도 비슷하여 현재 양성평등교육은 외부강사 초청 특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현재 양성평등교육이 외부강사 초청 특강이나 유인물 배포, 캠페인 등과 같이 일회성 행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표 III-26〉 학교유형별 양성평등교육 방법

단위: 명(%)

	학교유형			전 체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외부강사 초청 특강	294(45.0)	197(41.0)	543(52.3)	1,034(47.6)
가정통신문 또는 유인물 배포	132(20.2)	104(21.6)	204(19.6)	440(20.2)
동영상 시청	30(4.6)	17(3.5)	18(1.7)	65(3.0)
글짓기나 캠페인과 같은 참여 활동	76(11.6)	78(16.2)	131(12.6)	285(13.1)
교과내용 관련 강의식 수업	85(13.0)	65(13.5)	107(10.3)	257(11.8)
교과내용 관련 토론허기	15(2.3)	11(2.3)	18(1.7)	44(2.0)
일상생활의 불평등 사례조사 및 분석	15(2.3)	9(1.9)	17(1.6)	41(1.9)
기타	6(.9)	-	1(.1)	7(.3)
전 체	653(100.0)	481(100.0)	1,039(100.0)	2,173(100.0)

* 복수응답

〈표 III-27〉 학교유형별 선호하는 양성평등교육 방법

단위: 명(%)

	학교유형			전 체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외부강사 초청 특강	255(41.3)	188(38.8)	417(39.8)	860(40.0)
가정통신문 또는 유인물 배포	119(19.3)	80(16.5)	204(19.4)	403(18.7)
동영상 시청	8(1.3)	2(4)	3(3)	13(6)
글짓기나 캠페인과 같은 참여 활동	50(8.1)	41(8.5)	108(10.3)	199(9.3)
교과내용 관련 강의식 수업	68(11.0)	52(10.7)	103(9.8)	223(10.4)
교과내용 관련 토론허기	48(7.8)	41(8.5)	94(9.0)	183(8.5)
일상생활의 불평등 사례조사 및 분석	64(10.1)	77(15.9)	105(10.0)	246(11.4)
기타	6(1.0)	3(6)	15(1.4)	24(1.1)
전 체	618(100.0)	484(100.0)	1,049(100.0)	2,151(100.0)

* 복수응답

학생들에게 희망하는 양성평등교육 방법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표 III-27 참조), ‘외부강사 초청 특강(40.0%) > 가정통신문 또는 유인물 배포(18.7%) > 일상생활의 불평등 사례 조사 및 분석(11.4%) > 교과내용 관련 강의식 수업(10.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여학교에서 ‘일상생활의 불평등 사례 조사 및 분석’ 방법을 희망하는 비율이 15.9%로 나타나, 남학교나 남녀공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양성평등교육의 방법에 있어 학생들은 현재와 같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의 일부를 할애하여 외부강사 초청 특강으로 이루어지는 일회성 행사 이외에 교과 수업시간을 활용하거나 일상생활의 불평등 사례조사 및 분석과 같이 좀 더 다양한 방법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4) 양성평등교육 도움 정도

양성평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받은 양성평등교육이 성 고정관념을 바꾸고 양성평등의식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먼저, 학교유형에 따른 양성평등교육 도움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

<표 III-28>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양성평등교육 도움 정도의 기술통계

구 분	남자			여자			전 체
	단성	공학	합계	단성	공학	합계	
사례수	458	376	834	331	383	714	1,548
평균 (표준편차)	3.20 (.96)	3.23 (1.03)	3.21 (.99)	3.02 (.94)	3.19 (.87)	3.11 (.91)	3.16 (.95)

<표 III-29>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양성평등교육 도움 정도에서의 차이 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성별	4.56	1	4.56	4.98*
학교유형(in 남자)	.15	1	.15	.17
학교유형(in 여자)	5.12	1	5.12	5.59*
집단 내	1415.06	1544	.92	
전 체	1424.32	1547	.92	

* $p < .05$

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양성평등교육 도움 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II-28>에,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III-29>에 각각 제시하였다.

학교유형에 따른 이원분산분석 결과(표 III-29 참조), 성별 양성평등교육 도움 정도에서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3.21점)이 여학생(3.19점)보다 양성평등교육의 도움 정도를 높게 평가하였다($F=4.98, p < .05$).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남학교 남학생과 남녀공학 남학생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여학생 간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교 여학생(3.02 점)에 비해 남녀공학 여학생(3.19점)이 양성평등교육 도움 정도를 높게 평가하였다($F=5.59, p < .05$).

다음으로, 남녀공학만을 대상으로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양성평등교육 도움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II-30>에,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III-31>에 제시하였다.

〈표 III-30〉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양성평등교육 도움 정도의 기술통계

구 분	남녀합반		남녀분반		전 체	
	<i>n</i>	<i>M(SD)</i>	<i>n</i>	<i>M(SD)</i>	<i>N</i>	<i>M(SD)</i>
남자	232	3.37(1.02)	144	3.00(1.01)	376	3.23(1.03)
여자	204	3.25(.92)	179	3.12(.82)	383	3.19(.87)
합 계	436	3.31(.98)	323	3.07(.91)	759	3.21(.95)

〈표 III-31〉 학급형태과 성별에 따른 양성평등교육 도움 정도에서의 차이 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i>F</i>
학급형태(A)	11.46	1	11.46	12.67***
성별(B)	0	1	0	.00
A×B	2.51	1	2.51	2.78 [†]
오차	682.64	755	.90	
수정 합계	696.52	758		

*** $p < .05$, [†] $p = .096$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이원분산분석 결과(표 III-31 참조)는 학급형태별 주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급형태별로는 남녀합반(3.31점)의 도움 정도가 남녀분반(3.07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F=12.67$, $p < .001$). 학급형태×성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는 .05 수준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F=2.78$, $p = .096$), 남녀합반 남학생(3.37점)과 여학생(3.25점)의 도움 정도가 남녀분반 남학생(3.00점)과 여학생(3.12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녀분반 학생들보다 남녀가 함께 생활하는 남녀합반의 남학생과 여학생이 양성평등교육의 도움 정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기 학교에서의 양성평등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올바른 양성평등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양성평등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녀가 함께 생활하는 남녀공학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남녀 간의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성애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성평등한 역할을 확립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교육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남녀공학이 진정한 양성평등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2. 남녀공학과 단성중학교의 교육적 성과

학교교육은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지향하기 때문에 교육의 성과는 학생들의 인지적 발달 이외에도 정서적·사회적 측면에서의 발달과 성장을 포함해야 한다(남궁지영 외,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중학교의 교육적 경험 및 교육성과를 학생들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측면을 중심으로 학교유형 및 남녀공학 내 학급유형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발달 측면에서는 학업성취도와 관련이 있는 교과에 대한 학업 효능감 및 교과 선호도, 수업태도를, 정의적 발달 측면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관련된 성역할 의식 및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사회적 발달 측면에서는 사회성과 교우관계, 학교생활 행복감을 교육적 성과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가. 인지적 발달

교과에 대한 학업효능감이나 선호도 등과 같은 교과에 대한 태도는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더 나아가 진로 결정 및 직업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언어능력에 있어서는 여성이 강세를 보이고, 수학능력에 있어서는 남성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학에 있어서의 남성 우세가 점점 감소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Berk, 2009; 남궁지영 외, 2017). 또한 성별 교과 선호의 차이는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짓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선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어 특정 전공 및 직업 선택에 성별이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비교적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주요 교과들을 중심으로, 학교유형 및 남녀공학 내 학급유형에 따른 교과 효능감 및 교과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1) 교과에 대한 학업효능감

(가) 국어효능감

학교유형 및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국어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국어효능감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II-32>에,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III-33>에 각각 제시하였다.

학교유형별 이원분산분석 결과(표 III-33 참고), 성별 국어효능감에서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3.06점)이 남학생(3.01점)에 비해 국어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6.34$, $p<.05$).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비록 .05 수준에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남학생의 경우 남학교 남학생(3.01점)이 남녀공학 남학생(2.92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2.86$, $p=.091$). 여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05 수준에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남녀공학 여학생(3.11점)이 여학교 여학생(3.01점)보다 국어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41$, $p=.065$).

다음으로, 남녀공학의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국어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국어효능감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II-34>에,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III-35>에 각각 제시하였다.

<표 III-32>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국어효능감의 기술통계

구 분	남자			여자			전 체
	단성	공학	합계	단성	공학	합계	
사례수	639	460	1,099	572	497	1,069	2,168
평균 (표준편차)	3.01 (.94)	2.92 (.99)	2.97 (.96)	3.01 (.80)	3.11 (.85)	3.06 (.84)	3.01 (.91)

<표 III-33>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국어효능감에서의 차이 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성별	5.24	1	5.24	6.34*
학교유형(in 남자)	2.37	1	2.37	2.86†
학교유형(in 여자)	2.82	1	2.82	3.41†
집단 내	1790.50	2164	.83	
전 체	1799.88	2167	.83	

* $p<.05$, † $p<.10$

〈표 III-34〉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국어효능감의 기술통계

구 분	남녀합반		남녀분반		전 체	
	<i>n</i>	<i>M(SD)</i>	<i>n</i>	<i>M(SD)</i>	<i>N</i>	<i>M(SD)</i>
남자	278	2.89(.98)	182	2.95(1.01)	460	2.92(.99)
여자	259	3.22(.86)	238	3.00(.82)	497	3.11(.85)
합 계	537	3.05(.94)	420	2.98(.91)	957	3.02(.92)

〈표 III-35〉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국어효능감에서의 차이 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i>F</i>
학급형태(A)	1.68	1	1.68	1.98
성별(B)	8.14	1	8.14	9.59**
A×B	4.76	1	4.76	5.61*
오차	809.10	953	.85	
수정 합계	825.24	956		

** $p < .01$, * $p < .05$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이원분산분석 결과(표 III-35 참조), 학급형태에 따른 국어효능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9.59$, $p < .01$). 즉 남녀공학의 여학생(3.11점)이 남학생(2.92점)보다 국어효능감이 더 높았다. 학급형태와 성별 간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여($F=5.61$, $p < .05$), 남녀합반 여학생(3.22점)의 국어효능감이 가장 높은 반면 남녀합반의 남학생(2.89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어 과목에 대한 효능감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유형에 관계없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어를 잘 한다는 것을 지지한다. 그러나 단성학교에서 남녀학생 간의 국어효능감의 차이보다 남녀공학에서의 남녀학생 간의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남녀분반에서의 남녀학생 간의 국어효능감에서의 차이보다 남녀합반에서의 남녀학생 간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녀공학이 교과에 대한 정형화된 성별 선호를 강화시킨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Spielhofer et al., 2002; 민무숙, 1992; 정해숙 외, 2009).

(나) 영어효능감

마찬가지로, 학교유형 및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영어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먼저,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영어효능감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II-36>에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III-37>에 각각 제시하였다.

학교유형별 이원분산분석 결과(표 III-37 참고), 성별 영어효능감에서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94, p<.05$). 그러나 국어효능감과는 반대로 영어효능감에서는 남학생(3.03점)이 여학생(2.92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비록 .05 수준에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남학생의 경우 남학교 남학생(3.09점)이 남녀공학 남학생(2.96점)보다 영어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35, p=.067$).

<표 III-36>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영어효능감의 기술통계

구 분	남자			여자			전 체
	단성	공학	합계	단성	공학	합계	
사례수	639	460	1,099	572	497	1,069	2,168
평균 (표준편차)	3.09 (1.18)	2.96 (1.21)	3.03 (1.19)	2.89 (1.07)	2.96 (1.10)	2.92 (1.09)	2.98 (1.16)

<표 III-37>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영어효능감에서의 차이 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성별	5.18	1	5.18	3.94*
학교유형(in 남자)	4.41	1	4.41	3.35†
학교유형(in 여자)	.98	1	.98	.74
집단 내	2849.16	1	1.32	
전 체	2861.24	2167	1.32	

* $p<.05$, † $p=.067$

다음으로, 남녀공학만을 대상으로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영어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영어효능감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II-38〉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영어효능감의 기술통계

구 분	남녀합반		남녀분반		전 체	
	<i>n</i>	<i>M(SD)</i>	<i>n</i>	<i>M(SD)</i>	<i>N</i>	<i>M(SD)</i>
남자	278	2.88(1.21)	182	3.08(1.21)	460	2.96(1.10)
여자	259	2.97(1.11)	238	2.94(1.10)	497	2.96(1.10)
합 계	537	2.92(1.17)	420	3.00(1.15)	957	2.96(1.16)

〈표 III-39〉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영어효능감에서의 차이 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i>F</i>
학급형태(A)	1.71	1	1.71	1.27
성별(B)	.14	1	.14	.10
A×B	2.64	1	2.64	1.96
오차	1288.09	953	1.35	
수정합계	1292.20	956		

〈표 III-38〉에,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III-39〉에 제시하였다.

이원분산분석 결과(표 III-39 참조), 남녀합반은 2.92점, 남녀분반은 3.00점으로 남녀분반의 영어효능감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1.27, p>.05$). 또한 남학생(2.96점)과 여학생(2.96점) 간의 영어효능감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F=.104, p>.05$), 학급형태와 성별 간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1.96, p>.05$).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어는 국어와 같이 여학생이 우세한 언어관련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국어 과목과 같은 전통적인 정형화된 성별 선호는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고, 반대로 남학생들의 영어효능감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다) 수학효능감

먼저,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수학효능감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II-40〉에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III-41〉에 각각 제시하였다.

학교유형에 따른 수학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III-33 참조), 성별 수학효능감에서의 차이만 유의한 것으로 나

〈표 III-40〉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수학효능감의 기술통계

구 분	남자			여자			전 체
	단성	공학	합계	단성	공학	합계	
사례수	639	460	1,099	572	497	1,069	2,168
평균 (표준편차)	3.04 (1.19)	3.12 (1.24)	3.07 (1.21)	2.79 (1.09)	2.84 (1.13)	2.82 (1.11)	2.95 (1.17)

〈표 III-41〉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수학효능감에서의 차이 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성별	36.81	1	36.81	26.95***
학교유형(in 남자)	1.48	1	1.48	1.09
학교유형(in 여자)	.71	1	.71	.52
집단 내	2955.66	2164	1.37	
전 체	2994.06	2167	1.38	

*** $p < .001$

타났다($F=26.95$, $p < .001$). 즉 남학생(3.07점)이 여학생(2.82점)보다 수학효능감이 높았다.

다음으로, 남녀공학만을 대상으로 학급형태와 수학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수학효능감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II-42>에,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III-43>에 각각 제시하였다. 이원분산분석 결과(표 III-43 참조)도 위의 학교유형에 따른 이원분산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성별 주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1.77$, $p < .001$). 즉 남녀공학의 남학생(3.12점)이 여학생(2.84점)보다 수학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학 과목에 대한 효능감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다. 즉 수학 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는 학교유형 및 남녀공학 내 학급형태에 상관없이 남학생 우위의 성별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III-42>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수학효능감의 기술통계

구 분	남녀합반		남녀분반		전 체	
	n	M(SD)	n	M(SD)	N	M(SD)
남자	278	3.13(1.24)	182	3.10(1.24)	460	3.12(1.24)
여자	259	2.78(1.15)	238	2.91(1.11)	497	2.84(1.13)
합 계	537	2.96(1.21)	420	2.99(1.17)	957	2.98(1.19)

<표 III-43>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수학효능감에서의 차이 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학급형태(A)	.57	1	.57	.40
성별(B)	16.68	1	16.68	11.77***
A×B	1.70	1	1.70	1.20
오차	1350.28	953	1.42	
수정 합계	1370.62	956		

*** $p < .001$

2) 교과에 대한 선호도

(가) 국어선호도

학교유형 및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국어선호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학교유형에 따른 국어선호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II-44>에,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III-45>에 각각 제시하였다.

이원분산분석 결과(표 III-44 참조), 성별 국어선호도에서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3.16점)이 남학생(3.08점)보다 국어선호도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F=4.87, p<.05$).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비록 .05 수준에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남학교 남학생(3.13점)의 국어선호도가 남녀공학 남학생(3.02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57, p=.059$).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남녀공학 여학생(3.24점)이 여학교 여학생(3.10점)보다 국어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5.76, p<.05$).

〈표 III-44〉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국어선호도의 기술통계

구 분	남자			여자			전 체
	단성	공학	합계	단성	공학	합계	
사례수	639	460	1,099	572	497	1,069	2,168
평균 (표준편차)	3.13 (1.04)	3.02 (1.04)	3.08 (1.04)	3.10 (.94)	3.24 (.90)	3.16 (.92)	3.12 (.99)

〈표 III-45〉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국어선호도에서의 차이 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성별	4.75	1	4.75	4.87*
학교유형(in 남자)	3.48	1	3.48	3.57†
학교유형(in 여자)	5.61	1	5.61	5.76*
집단 내	2109.56	2164	.97	
전 체	2122.12	2167	.98	

* $p < .05$, † $p = .059$

다음으로, 남녀공학의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국어선호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국어선호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II-46>에 제시하였다.

이원분산분석 결과(표 III-47 참조), 학급형태별 주효과와 성별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급형태별로는 남녀분반(3.05점)보다는 남녀합반(3.20)에서의 국어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F=7.67$, $p < .01$). 성별로는 여학생(3.24점)이 남학생(3.02점)보다 국어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3.65$, $p < .001$).

이와 같은 결과는 앞의 국어효능감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교유형에 상관없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국어 과목을 선호한다는 것을 지지하며, 특히 이러한 남녀 간의 차이는 남녀공학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III-46>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국어선호도의 기술통계

구 분	남녀합반		남녀분반		전 체	
	n	M(SD)	n	M(SD)	N	M(SD)
남자	278	3.08(1.05)	182	2.93(1.01)	460	3.02(1.04)
여자	259	3.34(.93)	238	3.13(.86)	497	3.24(.90)
합 계	537	3.20(1.00)	420	3.05(.94)	957	3.13(.98)

<표 III-47>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국어선호도에서의 차이 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학급형태(A)	7.24	1	7.24	7.67**
성별(B)	12.88	1	12.88	13.65***
A×B	.20	1	.20	.21
오차	899.28	953	.94	
수정 합계	918.88	956		

*** $p < .001$, ** $p < .01$

(나) 영어선호도

학교유형 및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영어선호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영어선호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II-48>에, 이원 분산분석 결과는 <표 III-49>에 제시하였다. 이원분산분석 결과(표 III-49 참조), 학교유형에 따른 영어선호도 차이에서는 남학생 간의 차이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교 남학생(3.07점)의 영어선호도가 남녀공학 남학생(2.91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8>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영어선호도의 기술통계

구 분	남자			여자			전 체
	단성	공학	합계	단성	공학	합계	
사례수	639	460	1,099	572	497	1,069	2,168
평균 (표준편차)	3.07 (1.27)	2.91 (1.21)	3.00 (1.25)	2.94 (1.08)	2.96 (1.14)	2.95 (1.11)	2.98 (1.18)

〈표 III-49〉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영어선호도에서의 차이 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성별	.73	1	.73	.52
학교유형(in 남자)	6.49	1	6.49	4.62*
학교유형(in 여자)	.10	1	.10	.07
집단 내	3041.05	2164	1.41	
전 체	3049.02	2167	1.41	

* $p < .05$

〈표 III-50〉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영어선호도의 기술통계

구 분	남녀합반		남녀분반		전 체	
	n	M(SD)	n	M(SD)	N	M(SD)
남자	278	2.87(1.23)	182	2.98(1.18)	460	2.91(1.21)
여자	259	2.96(1.19)	238	2.97(1.13)	497	2.96(1.14)
합 계	537	2.91(1.21)	420	2.97(1.13)	957	2.94(1.18)

마찬가지로, 남녀공학의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영어선호도에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영어선호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II-50>에서 제시하였다.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영어선호도의 차이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이원분산분석 결과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즉 <표 III-50>에 제시한 영어선호도의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남녀합반과 남녀분반,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영어선호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수학선호도

먼저,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수학선호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분산분석에 앞서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수학선호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II-51>에 제시하였다.

이원분산분석 결과(표 III-52 참조), 수학선호도에서의 남녀 간의 차이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4.28$, $p < .001$). 즉 남학생(3.16점)이 여학생(2.90점)보다 수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학선호도에서의 성별 차이는 학교유형별로는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1>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수학선호도의 기술통계

구 분	남자			여자			전 체
	단성	공학	합계	단성	공학	합계	
사례수	639	460	1,099	572	497	1,069	2,168
평균 (표준편차)	3.15 (1.29)	3.19 (1.33)	3.16 (1.31)	2.86 (1.14)	2.94 (1.19)	2.90 (1.17)	3.03 (1.25)

<표 III-52>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수학선호도에서의 차이 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성별	37.63	1	37.63	24.28***
학교유형(in 남자)	.46	1	.46	.30
학교유형(in 여자)	1.46	1	1.46	.94
집단 내	3353.82	2164	1.55	
전 체	3393.92	2167	1.57	

*** $p < .001$

다음으로, 남녀공학의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수학선호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수학선호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II-53>에 제시하였다.

이원분산분석 결과(표 III-54 참조)도 위의 학교유형별 이원분산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성별 주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7.94, p<.01$). 즉 남녀공학의 학급형태에 상관없이 남학생(3.19점)이 여학생(2.84점)보다 수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3>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수학선호도의 기술통계

구 분	남녀합반		남녀분반		전 체	
	n	M(SD)	n	M(SD)	N	M(SD)
남자	278	3.25(1.37)	182	3.09(1.27)	460	3.19(1.33)
여자	259	2.95(1.22)	238	2.93(1.17)	497	2.94(1.19)
합 계	537	3.11(1.31)	420	3.00(1.22)	957	3.06(1.27)

〈표 III-54〉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수학선호도에서의 차이 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학급형태(A)	2.07	1	2.07	1.29
성별(B)	12.755	1	12.755	7.94**
A×B	.86	1	.86	.53
오차	1530.21	953	1.61	
수정 합계	1547.84	956		

** $p < .01$ **(라) 과학선호도**

학교유형 및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과학선호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과학선호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II-55>에,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III-56>에 제시하였다.

이원분산분석 결과(표 III-56 참조), 과학선호도에서의 성별 차이가 유의한 것

〈표 III-55〉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과학선호도의 기술통계

구 분	남자			여자			전 체
	단성	공학	합계	단성	공학	합계	
사례수	639	460	1,099	572	497	1,069	2,168
평균 (표준편차)	3.17 (1.24)	3.24 (1.18)	3.20 (1.22)	2.83 (1.11)	2.97 (1.14)	2.90 (1.12)	3.05 (1.18)

〈표 III-56〉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과학선호도에서의 차이 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성별	49.39	1	49.39	35.81***
학교유형(in 남자)	1.40	1	1.40	.31
학교유형(in 여자)	4.77	1	4.77	3.46†
집단 내	2984.67	2164	1.38	
전 체	3040.62	2167	1.40	

*** $p < .001$, † $p = .063$

으로 나타났다($F=35.81, p<.001$). 즉 남학생(3.20점)이 여학생(2.90점)보다 과학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여학생의 경우 여학교 여학생보다 남녀공학 여학생이 과학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46, p=.063$). 다음으로, 남녀공학만을 대상으로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과학선호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과학선호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II-57>에 제시하였다.

이원분산분석 결과(표 III-58 참조), 학급형태별 주효과, 성별 주효과, 그리고 학급형태와 성별 상호작용효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급형태별로는 남녀합반(3.18점)의 과학선호도가 남녀분반(3.00점)보다 높게 나타났다($F=4.41, p<.05$). 성별로는 남학생(3.24점)이 여학생(2.97점)보다 과학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0.10, p<.01$). 학급형태와 성별을 함께 고려하면, 학급형태에 따른 여학생간의 차이는 특별히 없으나 남학생 간에는 차이가 있어 남녀합반 남학생(3.36점)의 과학선호도가 남녀분반 남학생(3.05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83, p<.05$).

<표 III-57>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과학선호도의 기술통계

구 분	남녀합반		남녀분반		전 체	
	<i>n</i>	<i>M(SD)</i>	<i>n</i>	<i>M(SD)</i>	<i>N</i>	<i>M(SD)</i>
남자	278	3.36(1.19)	182	3.05(1.16)	460	3.24(1.18)
여자	259	2.97(1.17)	238	2.96(1.10)	497	2.97(1.14)
합 계	537	3.18(1.19)	420	3.00(1.13)	957	3.10(1.17)

<표 III-58>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과학선호도에서의 차이 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i>F</i>
학급형태(A)	5.94	1	5.94	4.41*
성별(B)	13.61	1	13.61	10.10**
A×B	5.16	1	5.16	3.83*
오차	1283.23	953	1.35	
수정 합계	1311.57	956		

** $p<.01$, * $p<.05$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과학선호도에서의 남녀 차이는 극명하게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과학을 더 좋아한다는 일반적인 주장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선호도에서의 남녀 차이는 남녀공학 내 남녀분반보다는 남녀합반에서 더 크게 나타나, 남녀가 함께 공부하는 혼성학급에서 남학생들의 과학 교과에 대한 선호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마) 체육선호도

학교유형 및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체육선호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체육선호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II-59>에,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III-60>에 제시하였다.

이원분산분석 결과(III-59 참조), 성별 간 체육선호도에서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11.96$, $p<.001$).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체육선호도가 높았다. 이러한 성별 차이를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남녀공학 남학생(4.12점)이

<표 III-59>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체육선호도의 기술통계

구 분	남자			여자			전 체
	단성	공학	합계	단성	공학	합계	
사례수	639	460	1,099	572	497	1,069	2,168
평균 (표준편차)	3.96 (1.14)	4.12 (1.09)	4.03 (1.12)	3.12 (1.25)	3.46 (1.25)	3.28 (1.26)	3.66 (1.25)

<표 III-60>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체육선호도에서의 차이 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성별	299.10	1	299.10	211.96***
학교유형(in 남자)	7.00	1	7.00	4.96*
학교유형(in 여자)	31.08	1	31.08	22.03***
집단 내	3053.68	2164	1.41	
전 체	3394.68	2167	1.57	

*** $p<.001$, * $p<.05$

남학교 남학생(3.96점)보다 체육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F=4.96, p<.05$), 여학생의 경우도 남녀공학 여학생(3.46점)이 여학교 여학생(3.12점)보다 체육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22.03, p<.001$).

다음으로, 남녀공학만을 대상으로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체육선호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체육선호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II-61>에 제시하였다.

이원분산분석 결과(표 III-62 참조), 학급형태별 주효과와 성별 주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급형태별로는 남녀합반(3.87점)의 체육선호도가 남녀분반(3.65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F=4.77, p<.05$), 이와 같은 차이는 남녀합반에서의 남녀학생 간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체육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68.38, p<.01$). 이와 같은 결과는 앞의 과학선호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체육선호도에서도 일반적인 남녀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체육선호도에서의 남녀 차이는 남녀공학교의 남녀분반보다는 남녀합반에서 더 크게 나타나, 남녀

<표 III-61>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체육선호도의 기술통계

구 분	남녀합반		남녀분반		전 체	
	n	M(SD)	n	M(SD)	N	M(SD)
남자	278	4.21(1.04)	182	3.98(1.15)	460	4.12(1.09)
여자	259	3.51(1.24)	238	3.41(1.25)	497	3.46(1.25)
합 계	537	3.87(1.19)	420	3.65(1.24)	957	3.78(1.22)

<표 III-62>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체육선호도에서의 차이 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학급형태(A)	6.593	1	6.593	4.77*
성별(B)	94.473	1	94.473	68.38***
A×B	1.018	1	1.018	.74
오차	1283.227	953	1.347	
수정합계	1427.592	956		

*** $p<.001$, * $p<.05$

함께 공부하는 혼성학급에서 남학생들의 체육교과에 대한 선호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3) 수업태도

학교유형 및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수업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수업태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II-63>에,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III-64>에 제시하였다.

이원분산분석 결과(III-64 참조), 남학생 간 학교유형에 따른 수업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80, p<.05$). 즉 남학생의 경우 남학교 남학생(3.39점)의 수업태도가 남녀공학 남학생(3.26점)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3>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수업태도의 기술통계

구 분	남자			여자			전 체
	단성	공학	합계	단성	공학	합계	
사례수	640	460	1,100	576	500	1,076	2,176
평균 (표준편차)	3.39 (.91)	3.26 (.88)	3.34 (.90)	3.30 (.83)	3.38 (.78)	3.34 (.81)	3.34 (.86)

<표 III-64>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수업태도에서의 차이 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성별	.14	1	.14	.19
학교유형(in 남자)	4.28	1	4.28	5.80*
학교유형(in 여자)	1.69	1	1.69	2.29
집단 내	1630.44	2172	.74	
전 체	1609.42	2175	.74	

* $p<.05$

다음으로, 남녀공학의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수업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수업태

〈표 III-65〉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수업태도의 기술통계

구 분	남녀합반		남녀분반		전 체	
	<i>n</i>	<i>M(SD)</i>	<i>n</i>	<i>M(SD)</i>	<i>N</i>	<i>M(SD)</i>
남자	278	3.65(.82)	182	3.39(.81)	460	3.55(.83)
여자	262	3.42(.83)	238	3.21(.72)	500	3.32(.78)
합 계	539	3.54(.83)	421	3.29(.76)	960	3.43(.81)

〈표 III-66〉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수업태도에서의 차이 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i>F</i>
학급형태(A)	12.81	1	12.81	19.92***
성별(B)	9.73	1	9.73	15.13***
A×B	.253	1	.253	.39
오차	614.85	956	.64	
수정 합계	640.13	959		

*** $p < .001$

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II-65>에 제시하였다.

이원분산분석 결과(표 III-66 참조), 학급형태별 주효과와 성별 주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급형태별로는 남녀합반(3.54점)의 수업태도가 남녀분반(3.29점)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F=19.92$, $p < .001$).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수업태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F=15.13$, $p < .001$). 본 연구결과는 남녀학생이 함께 있으면 이성교제나 수업태도, 수행평가와 같은 문제들을 고려하여 남녀공학 내에서도 남녀 분리학급을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과는 반대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나. 정의적 발달

남녀공학 교육을 찬성하는 학자들은 남녀학생 간의 상호교류를 통한 사회화 과정에 초점을 맞춰, 남녀공학은 학생시절부터 남녀 간의 자연스런 접촉을 통한 반대 성에 대한 이해와 성별 차이를 넘나드는 활동으로 인해 성차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전통적인 성역할 의식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남녀공학

이 이성과 함께 생활하는 자연스러운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사회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남녀공학 교육이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남녀공학이 성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상반된 연구결과 또한 제시하고 있다(정해숙 외,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유형 및 학급형태와 성별을 고려하여 성적 고정관념 및 사회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1) 성역할 의식

학교유형 및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성역할 의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성역할 의식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II-67>에,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III-68>에 제시하였다.

이원분산분석 결과(III-68 참조), 성별 성역할 의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42.94$, $p<.001$). 즉 여학생(2.21점)이 남학생(2.64점)보다 성역할 의식 점수가 낮게 나타나, 여학생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표 III-67>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성역할 의식의 기술통계

구 분	남자			여자			전 체
	단성	공학	합계	단성	공학	합계	
사례수	634	457	1,091	566	495	1,061	2,152
평균 (표준편차)	2.62 (.85)	2.67 (.82)	2.64 (.83)	2.14 (.80)	2.29 (.79)	2.21 (.80)	2.43 (.84)

* 성역할 의식은 점수가 낮을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

<표 III-68>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성역할 의식에서의 차이 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성별	99.48	1	99.48	142.94***
학교유형(in 남자)	.72	1	.72	1.07
학교유형(in 여자)	5.86	1	5.86	8.71**
집단 내	1444.31	2148	.67	
전 체	1552.27	2151	.72	

*** $p<.001$, ** $p<.01$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 차이가 학교유형별로 다른지를 살펴보면, 남학생 간에는 학교유형에 차이가 없지만 여학생의 경우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8.71, p<.01$). 즉 여학교 여학생(2.14점)이 남녀공학 여학생(2.29점)보다 성역할 의식 점수가 더 낮게 나타나, 남녀공학 여학생에 비해 성적 고정관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공학 교육의 중요한 장점 중 하나로 남녀 상호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성평등한 역할관을 갖는 데 도움을 준다는 주장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오히려 남녀공학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이 서로를 의식하고 비교하다보니 성역할 고정화의 가능성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다음으로, 남녀공학의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성역할 의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성역할 의식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II-69>에 제시하였다.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성역할 의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표 III-70 참조), 성별 주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49.52, p<.01$). 즉 남녀공학의 학급유형과 상관없이 여학생(2.29점)이 남학생(2.67점)보다 성적 고정관념에 얽

<표 III-69>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성역할 의식의 기술통계

구 분	남녀합반		남녀분반		전 체	
	n	M(SD)	n	M(SD)	N	M(SD)
남자	276	2.72(.81)	181	2.60(.83)	457	2.67(.82)
여자	259	2.30(.81)	236	2.27(.76)	495	2.29(.79)
합 계	535	2.51(.84)	417	2.42(.81)	952	2.47(.82)

* 성역할 의식은 점수가 낮을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

<표 III-70>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성역할 의식에서의 차이 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학급형태(A)	1.169	1	1.17	.18
성별(B)	32.30	1	32.30	49.52**
A×B	.53	1	.53	.82
오차	618.20	948	.65	
수정합계	655.03	951		

** $p<.01$

메이지 않는 좀 더 개방적인 성역할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여학교 여학생이 가장 진보적인 성역할 의식을 갖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민무숙, 1992; 정해숙 외, 2009; Riordan, 1990)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는 남녀공학 교육이 학생들에게 성평등 의식을 갖게 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따라서 남녀공학 교육이 성평등한 교육의 장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과 개선이 필요한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2)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은 직업적 속성을 일로 표현하여 개별 일 유형이 남성 또는 여성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청소년 양성평등 실태조사에서 사용한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 문항을 사용하여, 직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성별 고정관념을 크게 4가지 직업과 관련된 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직업과 관련된 일은 보통 남성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직종 2개와 여성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직종 2개를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 자동차 정비사, 전기기술자, 공학자 등과 같이 도구 또는 공구나 기계를 다루는 일, ② 정부나 정치 조직의 관료, 기업의 CEO 등과 같이 개인이나 조직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지도하거나 설득하는 일, ③ 어린이 보육교사, 초등학교 교사, 상담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복지, 교육, 치료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 ④ 작가, 음악가, 연극인 등 미술·문학·음악 작품 등을 창작하거나 자신을 표현하는 일이다(여성가족부, 2016).

(가) 도구 또는 공구나 기계를 다루는 일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알아보기 위해, ‘도구 또는 공구나 기계를 다루는 일’이 남성 또는 여성에게 어울리는지의 여부를 질문하였다.

먼저, ‘도구 또는 공구나 기계를 다루는 일’이 어떤 성별에 어울리는지를 물어본 결과(표 III-71 참고), 전체적으로는 ‘남녀 간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7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남성에게 어울린다’는 응답이 20.3%로 나타

〈표 III-71〉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_① 도구 또는 공구나 기계를 다루는 일

단위: 명(%)

구 분	남성에게 어울림	남녀 간 차이 없음	여성에게 어울림	전 체	χ^2	
남자	단성	167(26.1)	470(73.6)	2(.3)	639(100.0)	4.72 [†]
	공학	132(28.7)	322(70.0)	6(1.3)	460(100.0)	
	합계	299(27.2)	792(72.1)	8(.7)	1,099(100.0)	
여자	단성	58(10.1)	506(88.5)	8(1.4)	570(100.0)	12.46 ^{**}
	공학	83(16.7)	412(82.9)	2(.4)	497(51.9)	
	합계	141(13.2)	918(85.9)	10(.9)	1,069(100.0)	
전 체	440(20.3)	1,710(78.9)	18(.8)	2,168(100.0)		

** $p < .01$, [†] $p = .094$

났다.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남학교 남학생에 비해 남녀공학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해당 분야의 일이 ‘남성에게 어울린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고, ‘남녀 간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학교 여학생에 비해 남녀공학 여학생이 해당 분야의 일이 ‘남성에게 어울린다’고 응답한 비율은 더 높고, ‘남녀 간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녀공학만을 대상으로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도구 또는 공구나 기계를 다루는 일’이 어떤 성별에 어울리는지를 물어본 결과(표 III-72 참고), 전체적으로는 ‘남녀 간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7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남성에게 어울린다’는 응답이 22.5%로 나타났다.

학급형태와 성별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학급형태에 상관없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해당 분야의 일에 ‘남녀 간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녀합반의 남학생보다 남녀분반의 남학생이 해당 분야의 일이 ‘남성에게 어울린다’고 응답한 비율이 33.0%로 가장 높고, ‘남녀 간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5.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II-72〉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_① 도구
또는 공구나 기계를 다루는 일

단위: 명(%)

구 분	남성에게 어울림	남녀 간 차이 없음	여성에게 어울림	전 체	χ^2	
남녀 합반	남자	72(25.9)	202(72.7)	4(1.4)	278(100.0)	7.05*
	여자	44(17.0)	213(82.2)	2(.8)	259(100.0)	
	합계	116(21.6)	415(77.3)	6(1.1)	537(100.0)	
남녀 분반	남자	60(33.0)	120(65.9)	2(1.1)	182(100.0)	26.99***
	여자	39(16.4)	199(83.6)	-	238(100.0)	
	합계	99(23.6)	319(76.0)	2(.5)	420(100.0)	
전 체	215(22.5)	734(76.7)	8(.8)	957(100.0)		

*** $p < .001$, * $p < .05$

(나) 개인이나 조직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지도하거나 설득하는 일
먼저, ‘개인이나 조직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지도하거나 설득하는 일’이 어떤 성별에 어울리는지를 물어본 결과(표 III-73 참고), 전체적으로는 ‘남녀 간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94.0%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에게 어울린다’고 응답한 비율은 4.0%로 낮게 나타났다.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학교유형에 상관없이 해당 분야의 일이 ‘남녀 간에 차이가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개인이나 조직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지도하거나 설득하는 일’이 어떤 성별에 어울리는지를 물어본 결과(표 III-74 참고), 전체적으로는 ‘남녀 간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94.4%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에게 어울린다’고 응답한 비율은 3.8%로 낮게 나타났다. 학급형태와 성별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학급형태에 상관없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해당 분야의 일이 ‘남녀 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고, ‘남성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교유형이나 남녀공학의 학급형태에 상관없이 현재 중학생들은 직업에 대한 성적 고정관념을 특별히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표 III-73>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_② 개인이나 조직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지도하거나 설득하는 일

단위: 명(%)

구 분	남성에게 어울림	남녀 간 차이 없음	여성에게 어울림	전 체	χ^2	
남자	단성	48(7.5)	580(90.8)	11(1.7)	639(100.0)	.40
	공학	32(7.0)	418(90.9)	10(2.2)	460(100.0)	
	합계	80(7.3)	998(90.8)	21(1.9)	1,099(100.0)	
여자	단성	2(.3)	556(97.2)	14(2.4)	572(100.0)	1.89
	공학	4(.8)	485(97.6)	8(1.6)	497(100.0)	
	합계	6(.6)	1,041(97.4)	22(2.1)	1,069(100.0)	
전 체	86(4.0)	2,039(94.0)	43(2.0)	2,168(100.0)		

<표 III-74>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_② 개인이나 조직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지도하거나 설득하는 일

단위: 명(%)

구 분	남성에게 어울림	남녀 간 차이 없음	여성에게 어울림	전 체	χ^2	
남녀 합반	남자	18(6.5)	253(91.0)	7(2.5)	278(100.0)	12.96**
	여자	2(.8)	253(97.7)	4(1.5)	259(100.0)	
	합계	20(3.7)	506(94.2)	11(2.0)	537(100.0)	
남녀 분반	남자	14(7.7)	165(90.7)	3(1.6)	182(100.0)	26.47***
	여자	2(.8)	232(97.5)	4(1.7)	238(100.0)	
	합계	16(3.8)	397(94.5)	7(1.7)	420(100.0)	
전 체	36(3.8)	903(94.4)	18(1.9)	957(100.0)		

*** $p < .001$, ** $p < .01$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이 상대적으로 더 약함을 알 수 있다.

(다) 다른 사람들의 복지, 교육, 치료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

먼저, ‘다른 사람들의 복지, 교육, 치료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이 어떤 성별에 어울리는지를 물어본 결과(표 III-75 참고), 전체적으로는 ‘남녀 간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91.4.%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에게 어울린다’고 응답한

〈표 III-75〉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_③ 다른 사람들의 복지, 교육, 치료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

단위: 명(%)

구 분	남성에게 어울림	남녀 간 차이 없음	여성에게 어울림	전 체	χ^2	
남자	단성	14(2.2)	573(89.7)	52(8.1)	639(100.0)	.73
	공학	12(2.6)	405(88.0)	43(9.3)	460(100.0)	
	합계	26(2.4)	978(89.0)	95(8.6)	1,099(100.0)	
여자	단성	-	543(94.9)	29(5.1)	572(100.0)	4.72 [†]
	공학	3(.6)	461(92.8)	33(6.6)	497(100.0)	
	합계	3(.3)	1,004(93.9)	62(5.8)	1,069(100.0)	
전 체	29(1.3)	1,982(91.4)	157(7.2)	2,168(100.0)		

[†] $p=.095$

비율은 7.2%로 낮게 나타났다.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가 없지만, 여학생의 경우 여학교 여학생이 남녀공학 여학생에 비해 해당 분야의 일이 '남녀 간에 차이가 없다'는 응답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다른 사람들의 복지, 교육, 치료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이 어떤 성별에 어울리는지를 물어본 결과(표 III-76 참고), 전체적으로는 '남녀 간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90.5%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에게 어울린다'고 응답한 비율은 7.9%로 낮게 나타났다.

학급형태와 성별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학급형태에 상관없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해당 분야의 일이 '남녀 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매우 높고, '여성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특히 남녀합반에서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보다 남녀분반에서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 남녀분반의 남학생이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강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남녀공학 내 남녀합반 조건이 남녀분리 조건보다 성 차별을 제거하지는 않지만 완화된다는 주장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Lee, Marks, & Byrd, 1994).

〈표 III-76〉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_③ 다른 사람들의 복지, 교육, 치료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

단위: 명(%)

구 분		남성에게 어울림	남녀 간 차이 없음	여성에게 어울림	전 체	χ^2
남녀 합반	남자	6(2.2)	250(89.9)	22(7.9)	278(100.0)	3.50
	여자	1(.4)	240(92.7)	18(6.9)	259(100.0)	
	합계	7(1.3)	490(91.2)	40(7.4)	537(100.0)	
남녀 분반	남자	6(3.3)	155(85.2)	21(11.5)	182(100.0)	7.24*
	여자	2(.8)	221(92.9)	15(6.3)	238(100.0)	
	합계	8(1.9)	376(89.5)	36(8.6)	420(100.0)	
전 체		15(1.6)	866(90.5)	76(7.9)	957(100.0)	

* $p < .05$, † $p = .059$

(라) 작품을 창작하거나 자신을 표현하는 일

먼저, ‘문학·미술·음악 작품 등을 창작하거나 자신을 표현하는 일’이 어떤 성별에 어울리는지를 물어본 결과(표 III-77 참고), 전체적으로는 ‘남녀 간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91.0%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에게 어울린다’고 응답한 비율은 7.6%로 낮게 나타났다.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남학교 남학생에 비해 남녀공학 남학생이 해당 분야의 일이 ‘여성에게 어울린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고 ‘남녀 간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학교 여학생에 비해 남녀공학 여학생이 해당 분야의 일이 ‘여성에게 어울린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고 ‘남녀 간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문학·미술·음악 작품 등을 창작하거나 자신을 표현하는 일’이 어떤 성별에 어울리는지를 물어본 결과(표 III-78 참고), 전체적으로는 ‘남녀 간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88.0%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에게 어울린다’고 응답한 비율은 10.3%로 낮게 나타났다.

학급형태와 성별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학급형태에 상관없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당 분야의 일이 ‘남녀 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표 III-77〉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_④ 문학·미술·음악 작품 등을 창작하거나 자신을 표현하는 일

단위: 명(%)

구 분	남성에게 어울림	남녀 간 차이 없음	여성에게 어울림	전 체	χ^2	
남자	단성	14(2.2)	582(91.1)	43(6.7)	639(100.0)	8.36*
	공학	13(2.8)	394(85.7)	53(11.5)	46.(100.0)	
	합계	27(2.5)	976(88.8)	96(8.7)	1,099(100.0)	
여자	단성	1(.2)	548(95.8)	23(4.0)	572(100.0)	13.51***
	공학	3(.6)	461(92.8)	33(6.6)	497(100.0)	
	합계	4(.4)	996(93.2)	69(6.5)	1,069(100.0)	
전 체	31(1.4)	1,972(91.0)	165(7.6)	2,168(100.0)		

*** $p < .001$, * $p < .05$

〈표 III-78〉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_④ 문학·미술·음악 작품 등을 창작하거나 자신을 표현하는 일

단위: 명(%)

구 분	남성에게 어울림	남녀 간 차이 없음	여성에게 어울림	전 체	χ^2	
남녀 합반	남자	5(1.8)	242(87.1)	31(11.2)	278(100.0)	1.68
	여자	2(.8)	233(90.0)	24(9.3)	259(100.0)	
	합계	7(1.3)	475(88.5)	55(10.2)	537(100.0)	
남녀 분반	남자	8(4.4)	152(83.5)	22(12.1)	182(100.0)	13.57*
	여자	1(.4)	215(90.3)	22(9.2)	238(100.0)	
	합계	9(2.1)	367(87.4)	44(10.5)	420(100.0)	
전 체	16(1.7)	842(88.0)	99(10.3)	957(100.0)		

* $p < .05$

매우 높고, '여성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특히 남녀합반에서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보다 남녀분반에서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 남녀분반의 남학생이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강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 역할이나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 측면에서 학교유형이나 남녀공학의 학급형태에 상관없이 학생들의 전통적인 성별화된 고정관념 수용

정도는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업적 속성을 일로 표현하여 개별 일 유형이 남성 또는 여성에게 어느 정도 적합한지를 물어본 결과 전반적으로 ‘남녀 간 차이 없다’라는 응답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으로써, 여성 적합 직업 또는 남성 적합 직업으로 분리하여 생각하는 직업에 대한 성별 분리 현상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구 또는 공구나 기계를 다루는 일’에서는 ‘남성에게 어울린다’는 응답이 전체 20.3%로 높게 나타났고, 특히 남녀공학의 남학생이 남학교 남학생에 비해 해당 분야의 일을 ‘남성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학교 여학생에 비해 남녀공학 여학생이 해당 분야의 일이 ‘남성에게 어울린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단성학교에 비해 남녀공학 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공학 교육이 성 평등한 역할관 함양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남녀공학 환경이 오히려 성역할 고정화를 강화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그러나 남녀공학의 학급 운영 형태와 성별을 고려했을 때 학급형태에 따른 여학생들 간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남학생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녀분반의 남학생이 남녀합반의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공학의 남녀분리 학급보다 남녀합반 학급에서 성 차별이 더욱 드물게 나타나고,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있는 조건이 성 역할의 고정화가 상대적으로 덜 나타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준다.

다. 사회적 발달

1) 사회성(의사소통능력/협동심/사회적 책무성)

학교유형 및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사회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성은 사회적 역량으로 측정하였는데, 사회적 역량은 미래핵심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요인 중 하나로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역할 수행 및 관리 능력을 말한다(임현정 외, 2011, 남궁지영 외 2014). 본 연구에서 사회성은 의사소통능력, 협동심, 사회적 책무성 포함 3개의 하위요인을 총 9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먼저,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사회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II-79>에,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III-80>에 각각 제시하였다.

이원분산분석 결과(표 III-80 참조), 사회성에서의 성별 차이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5.51$, $p<.05$). 즉 여학생(3.50점)이 남학생(3.43점)보다 사회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9>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사회성의 기술통계

구 분	남자			여자			전 체
	단성	공학	합계	단성	공학	합계	
사례수	634	457	1,091	566	495	1,061	2,152
평균 (표준편차)	3.42 (.73)	3.43 (.71)	3.43 (.73)	3.48 (.62)	3.51 (.63)	3.50 (.63)	3.46 (.68)

<표 III-80> 성별 학교유형에 따른 사회성에서의 차이 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성별	2.58	1	2.58	5.51*
학교유형(in 남자)	.01	1	.01	.02
학교유형(in 여자)	.33	1	.33	.71
집단 내	1055.99	2148	.47	
전 체	1088.90	2151	.47	

* $p<.05$

다음으로, 남녀공학의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사회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사회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II-81>에,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III-82>에 제시하였다.

이원분산분석 결과(표 III-82 참조), 학급형태별 주효과와 성별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합반 학생(3.52점)의 사회성 점수가 남녀분반 학생(3.41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7.54, p<.01$). 성별로는 여학생(3.51점)이 남학생(3.43점)보다 사회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F=4.75, p<.05$).

<표 III-81>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사회성의 기술통계

구 분	남녀합반		남녀분반		전 체	
	<i>n</i>	<i>M(SD)</i>	<i>n</i>	<i>M(SD)</i>	<i>N</i>	<i>M(SD)</i>
남자	276	3.49(.72)	181	3.35(.69)	457	3.43(.71)
여자	259	3.56(.65)	236	3.46(.61)	495	3.51(.63)
합 계	535	3.52(.69)	417	3.41(.65)	952	3.47(.67)

<표 III-82>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사회성에서의 차이 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i>F</i>
학급형태(A)	3.45	1	3.45	7.54**
성별(B)	2.17	1	2.17	4.75*
A×B	.07	1	.07	.15
오차	432.91	948	.46	
수정합계	438.08	951		

** $p<.01$, * $p<.05$

(가) 의사소통능력

추가적으로, 사회성을 구성하는 하위요인별로 구분하여 학교유형 및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의사소통능력은 타인과의 성공적인 관계 관리와 갈등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메시지의 이해와 표현 역량으로(임현정 외, 2011), 학교유형 및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요인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II-83>

〈표 III-83〉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사회성_① 의사소통능력의 기술통계

구 분	남자			여자			전 체
	단성	공학	합계	단성	공학	합계	
사례수	634	457	1,091	566	495	1,061	2,152
평균 (표준편차)	3.40 (.81)	3.42 (.76)	3.41 (.79)	3.50 (.67)	3.52 (.64)	3.51 (.66)	3.46 (.73)

〈표 III-84〉 성별 학교유형에 따른 사회성_① 의사소통능력에서의 차이 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성별	4.88	1	4.88	9.16**
학교유형(in 남자)	.07	1	.07	.13
학교유형(in 여자)	.11	1	.11	.21
집단 내	1143.80	2148	.53	
전 체	1149.00	2151	.53	

** $p < .01$

에,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III-84>에 제시하였다.

이원분산분석 결과(표 III-84 참조), 의사소통능력에서의 성별 차이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9.16$, $p < .05$). 즉 여학생(3.51점)이 남학생(3.41점)보다 사회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녀공학의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II-85>에,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III-86>에 제시하였다.

이원분산분석 결과(표 III-86 참조), 학급형태별 주효과와 성별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합반 학생(3.52점)의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남녀분반 학생(3.41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6.17$, $p < .05$). 성별로는 여학생(3.52점)이 남학생(3.42점)보다 의사소통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F=6.27$, $p < .05$).

〈표 III-85〉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사회성_① 의사소통능력의 기술통계

구 분	남녀합반		남녀분반		전 체	
	<i>n</i>	<i>M(SD)</i>	<i>n</i>	<i>M(SD)</i>	<i>N</i>	<i>M(SD)</i>
남자	276	3.49(.78)	181	3.31(.72)	457	3.42(.76)
여자	259	3.54(.67)	236	3.49(.61)	495	3.52(.64)
합 계	535	3.52(.73)	417	3.41(.67)	952	3.47(.70)

〈표 III-86〉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사회성_① 의사소통능력에서의 차이 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i>F</i>
학급형태(A)	3.05	1	3.05	6.17*
성별(B)	3.10	1	3.10	6.27*
A×B	1.02	1	1.02	2.06
오차	468.46	948	.494	
수정합계	474.60	951		

* $p < .05$

(나) 협동심

협동심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개인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다른 구성원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역량으로(임현정 외, 2011), 학교유형 및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협동심’ 요인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협동심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II-87>에,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III-88>에 제시하였다.

이원분산분석 결과(표 III-88 참조), 협동심에서의 성별 차이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5.96$, $p < .05$). 즉 여학생(3.53점)이 남학생(3.44점)보다 협동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7〉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사회성_② 협동심의 기술통계

구 분	남자			여자			전 체
	단성	공학	합계	단성	공학	합계	
사례수	634	457	1,091	566	495	1,061	2,152
평균 (표준편차)	3.44 (.84)	3.45 (.82)	3.44 (.83)	3.52 (.73)	3.54 (.78)	3.53 (.75)	3.48 (.79)

〈표 III-88〉 성별 학교유형에 따른 사회성_② 협동심에서의 차이 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성별	3.78	1	3.78	5.96*
학교유형(in 남자)	.06	1	.06	.10
학교유형(in 여자)	.07	1	.07	.11
집단 내	1363.73	2148	.63	
전 체	1367.77	2151	.64	

* $p < .05$

다음으로, 남녀공학의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협동심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협동심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II-89>에,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III-90>에 제시하였다.

이원분산분석 결과(표 III-90 참조), 학급형태별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남녀합반 학생(3.54점)이 남학생(3.45점)보다 협동심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93, p < .05$). 성별에 따른 협동심에서의 차이는 .5 수준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F=3.09, p=.079$), 대체적으로 여학생(3.54점)이 남학생(3.45점)보다 협동심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89〉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사회성_② 협동심의 기술통계

구 분	남녀합반		남녀분반		전 체	
	n	M(SD)	n	M(SD)	N	M(SD)
남자	276	3.49(.84)	181	3.39(.80)	457	3.45(.82)
여자	259	3.59(.84)	236	3.48(.70)	495	3.54(.78)
합 계	535	3.54(.84)	417	3.44(.74)	952	3.50(.80)

<표 III-90>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사회성_② 협동심에서의 차이 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학급형태(A)	2.54	1	2.54	3.93*
성별(B)	1.99	1	1.99	3.09†
A×B	.00	1	.00	.006
오차	612.17	948	.65	
수정 합계	616.44	951		

* $p < .05$, † $p = .079$

(다) 사회적 책무성

사회적 책무성은 민주사회가 기대하는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여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역량으로(임현정 외, 2011), 학교 유형 및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사회적 책무성’ 요인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사회적 책무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II-91>에,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III-92>에 제시하였다.

<표 III-91>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사회성_③ 사회적 책무성의 기술통계

구 분	남자			여자			전 체
	단성	공학	합계	단성	공학	합계	
사례수	634	457	1,091	566	495	1,061	2,152
평균 (표준편차)	3.43 (.79)	3.42 (.78)	3.43 (.78)	3.42 (.73)	3.49 (.79)	3.45 (.76)	3.44 (.77)

<표 III-92> 성별 학교유형에 따른 사회성_③ 사회적 책무성에서의 차이 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성별	.44	1	.44	.74
학교유형(in 남자)	.05	1	.05	.09
학교유형(in 여자)	1.30	1	1.30	2.17
집단 내	1292.20	2148	.60	
전 체	1239.90	2151	.60	

〈표 III-93〉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사회성_③ 사회적 책무성의 기술통계

구 분	남녀합반		남녀분반		전 체	
	<i>n</i>	<i>M(SD)</i>	<i>n</i>	<i>M(SD)</i>	<i>N</i>	<i>M(SD)</i>
남자	276	3.47(.80)	181	3.34(.74)	457	3.42(.78)
여자	259	3.56(.78)	236	3.41(.79)	495	3.49(.79)
합 계	535	3.52(.79)	417	3.38(.77)	952	3.46(.78)

〈표 III-94〉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사회적 책무성에서의 차이 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i>F</i>
학급형태(A)	4.97	1	4.97	8.04**
성별(B)	1.551	1	1.55	2.51
A×B	.023	1	.02	.04
오차	586.22	948	.62	
수정 합계	592.48	951		

** $p < .01$

이원분산분석 결과(표 III-92 참조), 사회적 책무성의 성별 차이나 성별 내 학교유형 간의 차이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녀공학의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사회적 책무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사회적 책무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II-93>에,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III-94>에 제시하였다.

이원분산분석 결과(표 III-94 참조), 학급형태별 주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8.04$, $p < .01$). 즉 남녀합반 학생(3.52점)이 남녀분반 학생(3.38점)보다 사회적 책무성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사회성 및 사회성의 세 하위요인인 의사소통능력, 협동심, 사회적 책무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성별 차이가 학교유형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녀공학의 학급유형에 따른 차이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남녀합반의 학생들이 남녀분반 학생들보다 남녀 모두 사회성 및 사회성의 하위요인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녀공학 교육이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즉 남녀분반은 남녀

공학이라 할지라도 남녀를 분리시켜 교육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말하면 남녀공학 교육이라 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남녀공학은 남녀가 함께 살아가는 성인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남녀공학의 학생들이 단성학교 학생들보다 자연스럽게 남녀 상호 간의 이해와 존중, 그리고 협력을 통해 상호 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강상철, 1997; 이순자, 1999; 문혜경, 2011).

2) 교우관계

학교유형 및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교우관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교우관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II-95>에,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III-96>에 제시하였다.

이원분산분석 결과(III-96 참조), 성별 교우관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39, p<.05$). 즉 여학생(4.11점)이 남학생(4.03점)보다 교우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 차이가 학교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표 III-95>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교우관계의 기술통계

구 분	남자			여자			전 체
	단성	공학	합계	단성	공학	합계	
사례수	640	460	1,100	576	500	1,076	2,176
평균	4.01	4.06	4.03	4.06	4.17	4.11	4.07
(표준편차)	(.81)	(.77)	(.79)	(.76)	(.71)	(.74)	(.77)

<표 III-96> 성별 학교유형에 따른 교우관계에서의 차이 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성별	3.20	1	3.20	5.39*
학교유형(in 남자)	.49	1	.49	.83
학교유형(in 여자)	3.20	1	3.20	5.39*
집단 내	1289.19	2172	.59	
전 체	1296.11	2175	.60	

* $p<.05$

〈표 III-97〉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교우관계의 기술통계

구 분	남녀합반		남녀분반		전 체	
	<i>n</i>	<i>M(SD)</i>	<i>n</i>	<i>M(SD)</i>	<i>N</i>	<i>M(SD)</i>
남자	278	4.09(.79)	182	4.00(.73)	460	4.06(.77)
여자	261	4.17(.72)	239	4.16(.70)	500	4.17(.71)
합 계	539	4.13(.76)	421	4.09(.72)	960	4.11(.74)

〈표 III-98〉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교우관계에서의 차이 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i>F</i>
학급형태(A)	.79	1	.79	1.43
성별(B)	3.397	1	3.397	6.13*
A×B	.40	1	.40	.72
오차	529.87	956	.55	
수정 합계	533.92	959		

* $p < .05$

살펴보면, 남학생 간에는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가 없지만 여학생의 경우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39, p < .05$). 즉 남녀공학 여학생(4.17점)이 여학교 여학생(4.06점)보다 교우관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녀공학의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수업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교우관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II-97>에,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III-98>에 제시하였다.

이원분산분석 결과(표 III-98 참조)는 성별 주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6.13, p < .05$). 즉 남녀공학 여학생(4.17점)이 남학생(4.06점)보다 교우관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학교생활 행복감

학교생활 행복감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느끼는 삶의 만족도와 즐거움의 긍정적 감정 상태를 말한다(김양분·남궁지영, 2015). 학교유형 및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III-99〉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학교생활 행복감의 기술통계

구 분	남자			여자			전 체
	단성	공학	합계	단성	공학	합계	
사례수	640	460	1,100	576	500	1,076	2,176
평균 (표준편차)	3.21 (.95)	3.12 (.92)	3.17 (.94)	2.95 (.88)	3.05 (.87)	3.00 (.87)	3.09 (.91)

〈표 III-100〉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학교생활 행복감의 기술통계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성별	15.19	1	15.19	18.31***
학교유형(in 남자)	1.94	1	1.94	2.34
학교유형(in 여자)	2.53	1	2.53	3.04 [†]
집단 내	1802.28	2172	.83	
전 체	1824.15	2175	.84	

*** $p < .001$, $p^{\dagger} = .081$

먼저,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학교생활 행복감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II-99>에,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III-100>에 제시하였다.

이원분산분석 결과(III-100 참조), 성별 학교생활 행복감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8.31$, $p < .001$). 즉 남학생이(3.17점)이 여학생(3.00점)보다 학교생활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 차이가 학교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남학생 간에는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가 없지만 여학생의 경우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04$, $p=.081$). 즉 남녀공학 여학생(3.05점)이 여학교 여학생(2.95점)보다 학교생활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녀공학의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 행복감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II-101>에 제시하였다.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학급형태별 주효과, 성별 주효과, 학급형태×성별 상호작용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표 III-101>에 제시한 학교생활 행복감의 평균 점수를 비교해

〈표 III-101〉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 행복감의 기술통계

구 분	남녀합반		남녀분반		전 체	
	<i>n</i>	<i>M(SD)</i>	<i>n</i>	<i>M(SD)</i>	<i>N</i>	<i>M(SD)</i>
남자	278	3.18(.91)	182	3.04(.93)	460	3.12(.92)
여자	261	3.07(.91)	239	3.03(.87)	500	3.05(.87)
합 계	539	3.12(.91)	421	3.03(.87)	960	3.08(.89)

보면, 남녀합반 학생(3.12점)이 남녀분반 학생(3.03점)보다 그리고 남학생(3.12점)이 여학생(3.05점)보다 학교생활 행복감이 더 높은 경향성은 나타났다. 또한 남녀분반 남학생(3.04점)과 여학생(3.03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녀합반 남학생(3.18점)과 여학생(3.07점)의 학교생활 행복감이 높은 경향성은 나타났다.

3. 남녀공학에 대한 태도 및 개선방안

1) 학교의 성별 유형에 대한 선호도 및 선호 이유

(가) 고등학교 진학 시 학교 선택 고려 기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택 기준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알아본 결과(표 III-102 참조), 전체적으로는 전통이나 대학진학을 등과 같은 ‘학교의 명망’ 요인이 49.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40.9%), 성별 학교유형(11.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내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표 III-102 참조), 학교유형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학교의 명망’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응답과 다음으로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고려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학교 여학생이 ‘학교의 명망’ 요인을 중시한다는 비율이 5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녀공학 학생만을 대상으로 학급형태와 성별을 고려하여 살펴보면(표 III-103 참조), 남녀합반의 남학생과 여학생이 ‘학교의 명망’ 요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남녀분반의 남학생과 여학생은 ‘학교의 명망’ 요인보다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 요인을 중시한다는 응답이 조금 더 높게

〈표 III-102〉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고등학교 진학 시 학교 선택 고려 기준
단위: 명(%)

구 분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	성별 학교유형	학교의 명망	전 체
남자	단성	281(44.3)	73(11.5)	280(44.2)	634(100.0)
	공학	187(40.9)	49(10.7)	221(48.4)	457(100.0)
	합계	468(42.9)	122(11.2)	501(45.9)	1,091(100.0)
여자	단성	181(32.0)	63(11.2)	321(56.8)	565(100.0)
	공학	202(40.9)	57(11.5)	235(47.6)	494(100.0)
	합계	383(36.2)	120(11.3)	556(52.5)	1,059(100.0)
전 체		851(39.6)	242(11.3)	1,057(49.2)	2,150(100.0)

〈표 III-103〉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고등학교 진학 시 학교 선택 고려 기준

단위: 명(%)

구 분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	성별 학교유형	학교의 명망	전 체
남녀 합반	남자	103(37.3)	31(11.2)	142(51.4)	276(100.0)
	여자	98(37.8)	29(11.2)	132(51.0)	259(100.0)
	합계	201(37.6)	60(11.2)	274(51.2)	535(100.0)
남녀 분반	남자	84(46.4)	18(9.9)	79(43.6)	181(100.0)
	여자	104(44.3)	28(11.9)	103(43.8)	235(100.0)
	합계	188(45.2)	46(11.1)	182(43.8)	416(100.0)
전 체		389(40.9)	106(11.1)	456(47.9)	951(100.0)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고등학교 선택 시 성별 학교유형을 1순위로 고려한다고 응답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성별 학교유형 및 그 이유를 알아보았다. 먼저 선호하는 성별 학교유형을 알아본 결과(표 III-104 참조), 남학생들은 현재 재학 중인 학교유형에 상관없이 남녀공학교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학생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들의 경우는 여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의 여고 선호 비율이 58.7%로 더 높은 반면, 남녀공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은 남녀공학교 선호 비율이 59.6%로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단성고(남고 또는 여고) 또는 남녀공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단성고를 선호하는 학생들의 선호 이유로는 ‘동성끼리 학교생활 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가 51.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성에 신경쓰지 않고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으므로’가 23.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녀공학교를 선호하는 학생들의 선호 이유로는 ‘이성과 함께 학교생활 하는 게 더 재미있기 때문에’가 3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성을 잘 이해하고 어울려 지내는 능력을 키울 수 있으므로’(22.4%),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21.2%), ‘이성친구를 쉽게 사귄 수 있기 때문에’(16.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104〉 성별 내 학교유형에 따른 고등학교 진학 시 선호하는 학교유형
단위: 명(%)

구 분		단성고 (남고 또는 여고)	남녀공학고	전 체
남자	단성	14(19.2)	59(80.8)	73(100.0)
	공학	11(22.9)	37(77.1)	48(100.0)
	합계	25(20.7)	96(79.3)	121(100.0)
여자	단성	37(58.7)	26(41.3)	63(100.0)
	공학	23(40.4)	34(59.6)	57(100.0)
	합계	60(50.0)	60(50.0)	120(100.0)
전 체		85(35.3)	156(64.7)	241(100.0)

(나) 남녀공학에서 이성의 긍정적 영향 인식

또한 남녀공학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의 하나는 학업성과 관련된 것으로, 남녀공학의 학교분위기가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남녀공학의 학업성적 저하의 주요인은 이성교제와 관련된 문제들과 연관된다. 그러나 남녀공학을 찬성하는 학자들은 반대로 이성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성 간의 상호이해와 견제는 남학생의 폭력성이나 여학생의 따돌림 문제 등을 감소시키고, 오히려 수업태도나 학교분위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 측면 이외의 남녀공학의 교육적 효과 측면에서 이성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남녀공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에서 이성의 긍정적 영향 인식 정도를 알아본 결과(표 III-105 참조), 문항별로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모두 5점 척도의 중간인 평균 2.5점 이하인 점을 볼 때 남녀공학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이성의 존재가 자신의 행동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 이성의 긍정적 영향 인식 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성을 의식해서 거친 행동이나 언어를 자제한다거나 학교규칙을 잘 지키는 등 이성의 존재로 인해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는 남녀공학의 긍정적 교육 효과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에게, 남녀분반의 남

〈표 III-105〉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이성의 긍정적 영향 인식의 기술통계

문항	성별	학급형태		전 체
		합반	분반	
이성을 의식해서 수업시간에 떠들거나 장난을 치지 않는다.	남자	2.52(1.10)	2.41(1.07)	2.48(1.09)
	여자	2.03(1.14)	1.95(1.07)	1.99(1.11)
	합계	2.29(1.15)	2.15(1.09)	2.23(1.13)
이성을 의식해서 학교규칙을 잘 지킨다.	남자	2.57(1.09)	2.40(1.09)	2.50(1.09)
	여자	1.95(1.02)	1.82(.91)	1.89(.97)
	합계	2.27(1.10)	2.07(1.03)	2.18(1.08)
이성을 의식해서 거친 행동이나 언어를 자제 한다.	남자	2.58(1.08)	2.47(1.07)	2.53(1.08)
	여자	1.87(1.04)	1.83(.92)	1.85(.99)
	합계	2.23(1.12)	2.11(1.04)	2.18(1.09)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한다.	남자	2.20(.98)	2.19(1.01)	2.19(.99)
	여자	1.67(.91)	1.58(.73)	1.63(.83)
	합계	1.94(.98)	1.84(.91)	1.90(.95)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남자	2.25(1.03)	2.29(1.03)	2.27(1.03)
	여자	1.73(.98)	1.63(.79)	1.68(.90)
	합계	2.00(1.04)	1.92(.96)	1.96(1.01)

학생에 비해 남녀합반의 남학생에게 나타나는 경향성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남녀공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남녀공학에서의 성별 성적 차이에 대한 인식

최근 남녀공학 논의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남학생들의 학업부진 현상이다. 수행평가를 비롯한 내신성적에서의 여학생 우세 현상은 남학생 학부모나 남학생들로 하여금 남녀공학을 기피하게 하는 제1순위 이유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게 ‘밀리거나’, ‘주눅이 드는’ 상황이 많다는 점도 남녀공학에서 남녀 혼성학급 운영을 제고하고 분리학급 운영으로 전환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힌다(정해숙 외,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녀공학 학생들

<표 III-106>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성적 차이 인식_① 교과과목

단위: 명(%)

구 분	남학생이 매우 유리	남학생이 다소 유리	차이 없음	여학생이 다소 유리	여학생이 매우 유리	전 체	
합 반	남자	2(.7)	3(1.1)	234(85.1)	29(10.5)	7(2.5)	275(100.0)
	여자	2(.8)	1(.4)	227(88.3)	23(8.9)	4(1.6)	257(100.0)
	합계	4(.8)	4(.8)	461(86.7)	52(9.8)	11(2.1)	532(100.0)
분 반	남자	-	1(.6)	108(61.4)	55(31.3)	12(6.8)	176(100.0)
	여자	1(.4)	12(5.2)	162(70.4)	49(21.3)	6(2.6)	230(100.0)
	합계	1(.2)	13(3.2)	270(66.5)	104(25.6)	18(4.4)	406(100.0)
전 체	5(.5)	17(1.8)	731(77.9)	156(16.6)	29(3.1)	938(100.0)	

<표 III-107>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성적 차이 인식_② 수행평가

단위: 명(%)

구 분	남학생이 매우 유리	남학생이 다소 유리	차이 없음	여학생이 다소 유리	여학생이 매우 유리	전 체	
합 반	남자	1(.4)	3(1.1)	212(77.1)	43(15.6)	16(5.8)	275(100.0)
	여자	1(.4)	2(.8)	200(77.8)	51(19.8)	3(1.2)	257(100.0)
	합계	2(.4)	5(.9)	412(77.4)	94(17.7)	19(3.6)	532(100.0)
분 반	남자	1(.6)	2(1.1)	123(69.9)	37(21.0)	13(7.4)	176(100.0)
	여자	-	7(3.0)	155(67.4)	61(26.5)	7(3.0)	230(100.0)
	합계	1(.2)	9(2.2)	278(68.5)	98(24.1)	20(4.9)	406(100.0)
전 체	3(.3)	14(1.5)	690(73.6)	192(20.5)	39(4.2)	938(100.0)	

만을 대상으로 성별 성적 차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학급형태와 성별을 고려하여 교과과목(표 III-106 참조), 수행평가(표 III-107 참조),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성적이 모두 포함된 내신성적(표 III-108 참조), 비교과활동(표 III-109 참조) 측면에서 학생들이 성적 차이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살펴본 결과,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남녀 간에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녀분반에 속한 남녀

〈표 III-108〉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성적 차이 인식_③ 내신성적

단위: 명(%)

구 분	남학생이 매우 유리	남학생이 다소 유리	차이 없음	여학생이 다소 유리	여학생이 매우 유리	전 체	
합 반	남자	2(.7)	1(.4)	232(84.4)	32(11.6)	8(2.9)	275(100.0)
	여자	-	2(.8)	222(86.4)	31(12.1)	2(.8)	257(100.0)
	합계	2(.4)	3(.6)	454(85.3)	63(11.8)	10(1.9)	532(100.0)
분 반	남자	-	4(2.3)	115(65.3)	45(25.6)	12(6.8)	176(100.0)
	여자	1(.4)	7(3.0)	166(72.2)	52(22.6)	4(1.7)	230(100.0)
	합계	1(.2)	11(2.7)	281(69.2)	97(23.9)	16(3.9)	406(100.0)
전 체	3(.3)	14(1.5)	735(78.4)	160(17.1)	26(2.8)	938(100.0)	

〈표 III-109〉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성적 차이 인식_④ 비교과활동

단위: 명(%)

구 분	남학생이 매우 유리	남학생이 다소 유리	차이 없음	여학생이 다소 유리	여학생이 매우 유리	전 체	
합 반	남자	5(1.8)	10(3.6)	242(88.0)	13(4.7)	5(1.8)	275(100.0)
	여자	-	15(5.8)	231(89.9)	10(3.9)	1(.4)	257(100.0)
	합계	5(.9)	25(4.7)	473(88.9)	23(4.3)	6(1.1)	532(100.0)
분 반	남자	-	16(9.1)	127(72.2)	22(12.5)	11(6.3)	176(100.0)
	여자	3(.7)	19(8.3)	197(85.7)	11(4.8)	-	230(100.0)
	합계	3(.7)	35(8.6)	324(79.8)	33(8.1)	11(2.7)	406(100.0)
전 체	8(.9)	60(6.4)	797(85.0)	56(6.0)	17(1.8)	938(100.0)	

학생들에 비해 남녀합반에 속한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성별 성적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적으로 남학생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즉 남녀공학에서 여학생들 때문에 남학생들의 내신성적이나 수행평가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특히 남녀공학 내 남녀합반으로 남녀가 함께 생활하는 학생들이 이러한 성별 성적 차이에 대한 인식이 더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최근의 남녀공학 기피 논란과 관련된 학

부모들의 일반적 생각이 맞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2) 남녀공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남녀공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남녀공학 중학교에서 고려해야 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알아보았다.

문항별로 살펴본 결과(표 III-110 참조), 학생들은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학교규칙을 공평하게 적용’(3.85점) 하는 것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 그 다음으로 ‘성별 구분이 아닌 개인의 특성과 적성에 따른 학급활동 배정 및 역할 분담’(3.69점)과 ‘남학생과 여학생에 별도로 필요한 시설 확충’(3.56점)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학급형태 및 성별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개선방안 문항별로 남녀분반 여학생보다 남녀합반 여학생들의 필요성 인식 정도가 대체로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

〈표 III-110〉 학급형태와 성별에 따른 남녀공학의 개선방안의 기술통계

개선방안	성별	학급형태		전 체
		합반	분반	
남학생과 여학생에 별도로 필요한 시설 확충(예: 탈의실, 휴게실, 보건실, 체육실 등)	남자	3.48(1.06)	3.35(1.10)	3.43(1.08)
	여자	3.71(1.01)	3.64(1.01)	3.68(1.01)
	합계	3.59(1.04)	3.51(1.06)	3.56(1.05)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교육활동 확대(예: 동아리활동, 프로젝트수업 활동 등)	남자	3.38(1.00)	3.39(.98)	3.38(.99)
	여자	3.33(1.02)	3.04(.97)	3.20(1.01)
	합계	3.36(1.01)	3.19(.99)	3.29(1.00)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학교규칙을 공평하게 적용	남자	3.67(.99)	3.80(.95)	3.72(.98)
	여자	4.01(.91)	3.92(.91)	3.97(.91)
	합계	3.83(.97)	3.87(.93)	3.85(.95)
성별 구분이 아닌 개인의 특성과 적성에 따른 학급활동 배정 및 역할 분담	남자	3.56(.99)	3.59(.90)	3.57(.95)
	여자	3.88(1.00)	3.71(.98)	3.80(.99)
	합계	3.71(1.01)	3.66(.95)	3.69(.98)
남녀 특성을 반영한 체육수업 운영 및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남자	3.41(.97)	3.48(.93)	3.43(.96)
	여자	3.51(1.07)	3.40(1.03)	3.46(1.06)
	합계	3.46(1.02)	3.43(.99)	3.45(1.01)

녀합반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학교규칙을 공평하게 적용’에서 4.01점의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남녀공학의 불편한 점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개방형 질문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내용은 ‘교사들의 무의식적인 성차별적 발언 및 남녀 차별적 행동’이었다. 예를 들어, 학교 생활지도 및 학교교칙 적용과 관련하여 여학생들은 남학생이 교복을 줄여 입는 것보다 여학생들이 교복을 줄여 입는 것에 대해 더 엄격하다는 불만을 토로하였다. 반대로 남학생들은 교사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체벌을 약하게 하거나 여학생들을 우대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해숙 외(2013)의 연구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남녀 간의 차별을 느끼는 것 중에 여학생들은 ‘복장지도’와 관련된 것이 많고, 남학생들은 교사의 ‘훈육방식’과 관련된 것이 많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즉 복장지도와 관련하여 여학생들은 교사가 남학생보다 자신들에게 복장 규제를 더 엄격하게 한다고 인식하고, 훈육과 관련해서는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자신들에게 더 엄격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실례로, 한 여학생은 “집드는 일은 모두 남자에게 시키는 데 그냥 다 시키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여자는 힘이 약해서 이런 것도 못 든다’라고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깟 책이나 의자 건강한 중학생이면 충분히 들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더 많은 인원에게 시키면 효율도 늘 텐데... 그 외에도 시험점수를 보고 ‘이 과목은 남학생은 잘 봤는데, 여학생은 못 봤다’ 식으로 말하는 것도...” 라면서 교사의 불필요한 남녀 구분 및 무의식적 성 차별적 발언에 대한 불만을 기술하였다. 이는 교사가 ‘여자는 단정해야 한다’, ‘여자는 약하다’라는 성 고정관념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학급활동 측면에서 여전히 이중적 성 규범이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남녀공학의 개선사항으로 학생들은 ‘탈의실, 보건실, 휴게실, 화장실 등 학교의 편의시설 개선’, ‘남학생들의 성 차별적 발언이나 행동과 관련하여 성교육이나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그리고 ‘남녀합반 또는 남녀분반에 대한 요구’ 등과 같은 의견이 있었다.

4. 학교유형의 효과 검증을 위한 다층분석 결과

사회과학 분야의 자료는 대부분 다층적(multilevel)이며 위계적(hierarchical) 속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학생은 학급에 소속되어 있고, 학급은 학교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연구자가 수집하는 자료는 여러 층위에서 수집된 변수들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위계적 특징을 지닌 자료의 경우에는 이러한 구조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고안된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다(강상진, 2016). 본 연구에서는 남녀공학과 단성학교의 교육성과 및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경남지역에 있는 중학교 수에 비례하여 무작위로 표집학교를 선정한 뒤 각 학교별로 학생들의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수집한 학생들의 자료 또한 위계적 속성을 지닌다(한미영 외, 2016).

또한 학교의 교육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투입-과정-산출 변인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즉 투입변인들은 과정변인에 영향을 주고, 과정변인들은 산출변인들에 영향을 주는 순차적 체계이다. 투입, 과정, 산출의 각 단계에서 학급은 학교에 속해 있고, 학생은 학급에 속한 위계적 구조를 갖고 있으며,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학교수준, 학급수준, 학생수준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산출에 영향을 준다(김양분 외, 2003). 따라서 학교유형의 교육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성학교나 남녀공학이냐의 ‘학교의 성별 유형’이라는 교육적 환경과는 별도로 기타 가외변수들이 학교유형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교육성과 변인(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및 가정 관련 변인과 학교 관련 변인들을 통제한 후, 학교유형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선형모형인 학생-학교의 2수준 다층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국어 및 수학선호도에 대한 학교유형의 효과 분석

위계적 선형모형의 첫 번째 단계는 기초모형으로, 기초모형은 모형에 독립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모형으로 이를 통해 종속변수의 총 분산 중 개인 및 학교수준이 설명하는 분산의 비율을 알 수 있다. 기초모형은 다층분석에서 자료를 진단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기초모형의 결과를 참조하여 후속 모형을 명세화할 수 있다(강상진, 2016: 34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수준과 학교수준에서 어떠한 독립변인도 투입하지 않은 기초모형을 추정하였다.

먼저, 기초모형 분석 결과 학교수준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ICC: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은 국어선호도의 경우 남학생 3.9%, 여학생 8.4%, 수학선호도의 경우 남학생 3.1%, 여학생 1.6%로, 여학생의 국어선호도 외에 학교수준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작다. 이는 학생들의 국어선호도나 수학선호도에 대한 학교유형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학생들의 국어선호도 및 수학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생수준 및 학교수준 변수를 투입하였다. 학생수준 변수에서는 개인 및 가정특성 변수로 성적, 수업태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학업관여 변인을 투입하였고, 학교수준 변수에서는 학교유형, 학교소재 지역 규모, 설립유형, 교사의 수업방식 변인을 투입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의 영향이 통제되었을 때에도 학생들의 국어선호도나 수학선호도에 대한 학교유형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층분석을 실시하였다. 국어 및 수학선호도에 대한 학교유형의 효과를 비교한 다층분석 결과는 <표 III-111>에 각각 제시하였다.

국어선호도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표 III-111 참조), 남학생의 경우 학생수준에서는 학교성적, 수업태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국어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의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그리고 수업태도가 좋을수록 국어선호도가 높았다. 학교수준에서는 학교의 설립유형이 영향을 미쳐, 국공립에 비해 사립학교 학생들의 국어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들의 영향이 통제되었을 때 학교유형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교 남학생과 남녀공학 남학생 간의 국어선호도에는 차이가 없다.

여학생의 경우는 성적, 수업태도, 그리고 학교의 설립유형, 교사의 수업방식이 국어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수준에서는 학교성적과 수업태도가 좋을수록 국어선호도가 높았다. 학교수준에서는 국공립에 비해 사립학교의 학생들이, 그리고 교사의 수업방식이 상호적일수록 국어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도 이러한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 학교유형 간

<표 III-111> 성별 국어선호도 및 수학선호도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

	국어선호도				수학선호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B	(SE)	B	(SE)	B	(SE)	B	(SE)
고정효과								
절편	3.11***	(.09)	3.09***	(.09)	3.11***	(.01)	2.96***	(.07)
성적	-.10*	(.04)	.14***	(.03)	.59***	(.04)	.57***	(.04)
수업태도	.29***	(.04)	.24***	(.04)	.22***	(.05)	.21***	(.05)
SES	-.10*	(.04)	-.02	(.04)	-.05	(.04)	-.07	(.05)
부모의 학업관여	.01	(.04)	-.06	(.03)	-.05	(.04)	-.02	(.04)
학교유형 ¹⁾	-.15	(.09)	.02	(.10)	.04	(.10)	-.04	(.08)
학교소재 지역규모 ²⁾	-.05	(.09)	.00	(.09)	-.08	(.10)	-.06	(.07)
설립유형 ³⁾	.20*	(.08)	.22*	(.10)	.32***	(.10)	-.05	(.07)
교사의 수업방식	.17	(.11)	.23*	(.11)	-.05	(.04)	.01	(.09)
무선효과								
학생수준	.91		.74		1.16		.97	
학교수준	.02*		.05***		.04**		.00	

참조집단: 1) 단성, 2) 읍면, 3) 국공립

*** $p < .001$, ** $p < .05$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교 여학생과 남녀공학 여학생 간의 국어선호도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다.

수학선호도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표 III-111 참조)에서도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학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 수학선호도에서의 학교유형 효과, 즉 남학교 남학생과 남녀공학 남학생 그리고 여학교 여학생과 남녀공학 여학생 간의 수학선호도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성역할 의식에 대한 학교유형의 효과 분석

먼저, 기초모형 분석 결과 학생들의 성역할 의식의 전체 분산 중 학교수준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남학생 3.4%, 여학생 2.7%로, 학생의 성역할 의식에 미

〈표 III-112〉 성별 성역할 의식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

	남자		여자	
	B	(SE)	B	(SE)
고정효과				
절편	2.65***	(.08)	2.15***	(.07)
성적	.03	(.03)	-.04	(.03)
SES	.04	(.03)	-.03	(.04)
교우관계	.04	(.04)	-.05	(.04)
부모-자녀관계	-.08*	(.03)	.01	(.03)
학교유형 ¹⁾	.00	(.08)	.15 [†]	(.08)
학교소재 지역규모 ²⁾	-.08	(.08)	-.08	(.07)
설립유형 ³⁾	.11	(.08)	.05	(.07)
교사-학생관계	-.03	(.11)	.02	(.10)
무선효과				
학생수준	.68		.63	
학교수준	.02**		.02**	

성역할 의식은 점수가 낮을수록 진보적인 성역할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임.

참조집단: 1) 단성, 2) 읍면, 3) 국공립

*** $p < .001$, $p^\dagger = .063$

치는 학교유형의 효과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학생들의 성역할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생수준 및 학교수준 변수를 투입하였다. 학생수준 변수에서는 개인 및 가정특성 변수로 성적, 교우관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자녀 관계를 투입하였고, 학교수준 변수에서는 학교유형, 학교소재 지역규모, 설립유형, 교사-학생 관계를 투입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의 영향이 통제되었을 때에도 학생들의 성역할 의식에 대한 학교유형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투입한 결과는 <표 III-112>에 제시하였다.

<표 III-112>의 다층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학생의 경우 성역할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학교유형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지만, 여학생의 경우는 남녀공학 여학생에 비해 여학교 여학생 간의 성역할 의식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교 여학생이 남녀공학 여학생

에 비해 성역할 의식이 좀 더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학교생활 행복감에 대한 학교유형의 효과 분석

먼저, 기초모형 분석 결과 학생들의 학교생활 행복감의 전체 분산 중 학교수준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남학생 5.5%, 여학생 5.8%로, 학생의 학교생활 행복감에 미치는 학교의 영향력이 일정 부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즉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학생의 학교생활 행복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층모형에 의한 분석이 적절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생수준 및 학교수준 변수를 투입하였다. 투입한 결과는 <표 III-113>에 제시하였다.

다층분석 결과(표 III-113 참조), 남학생의 경우 성적, 교우관계, 부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교생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남학생의 경우 학교유형의 효과가 유의하여 남녀공학 남학생이 남학교 남학생보다 학교생활 행복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남녀공학 여학생과 여학교 여학생 간의 학교생활 행복감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3〉 성별 학교생활 행복감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

	남자		여자	
	B	(SE)	B	(SE)
고정효과				
절편	3.26***	(.07)	3.01***	(.05)
성적	.33***	(.02)	.34***	(.02)
SES	-.04	(.03)	.06 [†]	(.03)
교우관계	.34***	(.03)	.32***	(.03)
부모-자녀관계	.13***	(.03)	.16***	(.03)
학교유형 ¹⁾	-.14*	(.07)	-.05	(.06)
학교소재 지역규모 ²⁾	-.06	(.07)	.04	(.05)
설립유형 ³⁾	.04	(.07)	.01	(.06)
교사-학생관계	.42***	(.09)	.24**	(.08)
무선효과				
학생수준		.56		.49
학교수준		.01*		.01 [†]

참조집단: 1) 단성, 2) 읍면, 3) 국공립
 *** $p < .001$, ** $p < .01$, * $p < .05$, $p^{\dagger} < .07$

IV. 남녀공학 교육의 교육적 제고 및 내실화 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등학교에서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남녀공학 교육이 학생들의 교육경험 및 교육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남녀공학 교육 및 남녀분리 수업에 대한 교육적 제고 및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남지역 남녀공학과 단성중학교(남중, 여중), 더 나아가 남녀공학의 남녀 혼성학급과 분리학급 간의 교육경험 및 교육적 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남녀공학 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알아보았다.

이 장에서는 남녀공학과 단성중학교의 교육경험과 교육적 성과를 분석한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을 먼저 제시한 후, 이를 기초로 남녀공학 교육의 교육적 제고 및 내실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1. 결과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유형 및 남녀공학의 학급형태에 따른 교육경험 및 교육적 성과를 비교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의 세 집단 간의 차이만을 비교함으로써 남학교 남학생과 남녀공학의 남학생, 여학교의 여학생과 남녀공학의 여학생 간의 차이를 분석하지 않은 것을 보완하여, 성별 차이에 따른 학교유형의 효과를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남녀공학교 안에서도 남녀 혼성학급과 분리학급을 구분하여 학급 운영 형태에 따라 교육경험 및 교육적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결과를 통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활지도(생활교육)가 무엇인지를 알아본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폭력 관련 생활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 특히 중학생들의 학교폭력 관련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교육 측면에서 왕따, 집단따돌림 등 학생들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남학교에서는 왕따, 집단따돌림 등 학교폭력 관련 생활 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여학교에서는 복장, 두발, 화장 등 용의복장 관련(38.9%)과 학교폭력 관련(38.2%) 생활지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녀공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생활지도가 가장 높았지만, 용의복장 관련 생활지도의 비중 또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남학생만 있는 남학교보다 여학생이 포함되어 있는 여학교나 남녀공학교에서 용모나 복장과 관련된 생활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 교육활동에서 여학생에게는 여성다움을 강조하는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우리 사회의 이중적인 성 규범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남녀공학은 단성학교에 비해 학업성취보다는 이성학생에게 매력이나 인기 등에 가치를 두는 청소년 하위문화가 나타난다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학교유형에 따라 학교의 가치 문화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학교에서 동료학생들로부터 선망이나 부러움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본 결과, 남학교에서 ‘운동을 잘 하는 것’ 요인이 선망요인 중 하나로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학교유형이나 남녀공학의 학급형태에 상관없이 학생들은 대체로 ‘공부, 성격, 외모’의 세 가지 요인을 중요한 선망요인으로 들었다. 이 세 가지 선망요인 중, 남학생은 ‘공부를 잘 하는 것’을 여학생은 ‘성격이 좋은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 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 극명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같이 남녀공학에서는 단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멋있는 외모나 운동을 잘 하는 것과 같은 신체적 매력이 더 강조되는 반면 단성학교에서는 학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학구적인 풍토가 증진된다는 일부 주장(Coleman, Schneider, & Coutts, 1982; 정해숙 외, 2009)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녀공학 환경에서 학생들의 이성 간 관계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성친구 유무 및 대상을 알아보았다. 알아본 결과, 남학교 남학생과 남녀공학 남학생 간의 이성친구 유무 비율에는 거의 차이가 없으나 여학생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 남녀공학 여학생이 여학교 여학생에 비해 이성친구가 있는 비율이 높았다. 남녀공학의 학급형태에 따라서도 남학생 간에는 차이가 없지만, 여학생 간에는 차이가 있어 남녀합반의 여학생이 남녀분반의 여학

생에 비해 이성친구가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녀합반의 여학생이 남녀분반 여학생에 비해 같은 학교 학생과 사귀다는 응답이 높았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녀공학 환경은 남녀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만남이나 교류의 빈도가 더 많게 되고, 이러한 물리적 근접성 요인은 남녀공학 학생들의 이성교제 확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남녀공학 내 이성교제 양상에 있어서는 남녀 간 차이가 있어, 이성과 함께 생활하는 물리적 근접성 요인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은 학교유형이나 학급형태에 따른 이성교제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여학생은 여학교보다는 남녀공학에서, 그리고 남녀분반보다는 남녀합반에서 이성교제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이성교제에 대해 부정적 인식보다는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이성이 학교생활의 재미나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남녀공학에서 여학생의 존재가 남학생을 순화시켜 부드러운 학교문화를 만든다는 주장에 대한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성친구가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인식에 있어 남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나 남녀공학의 여학생에 비해 여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은 이성교제가 학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이성교제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그들의 이성교제 행동에 영향을 미쳐 이성교제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학교유형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은 교과시간보다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외부강사 초청 특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현재 학교에서의 성평등 교육이 외부강사 초청 특강이나 유인물 배포, 캠페인 등과 같이 일회성 행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학교의 경우 남학교나 남녀공학에 비해 성평등 교육을 교과시간에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 그리고 여학교 여학생이 다른 집단에 비해 성역할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가장 진보적인 성역할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향후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또한 학교에서 받은 성평등 교육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알아본 결과 여학생에 비해서는 남학생이, 그리고 남녀공학의 남녀분반보다는 남녀합반의 남학생과 여학생이 더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남녀가 함께 생활하는 남녀공학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남녀 간의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성평등한 역할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성평등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교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속에서 성평등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환경 및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성역할이나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 측면에서 학교유형이나 남녀공학의 학급형태에 상관없이 학생들의 전통적인 성별화된 고정관념 수용 정도는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업적 속성을 일로 표현하여 개별 일 유형이 남성 또는 여성에게 어느 정도 적합한지를 물어본 결과 전반적으로 ‘남녀 간 차이 없다’라는 응답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으로써, “여성 적합 또는 남성 적합” 직업으로 분리하여 생각하는 직업에 대한 성별 분리 현상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구 또는 공구나 기계를 다루는 일’에서는 ‘남성에게 어울린다’는 응답이 전체 20.3%로 나타났고, 특히 남녀공학의 남학생이 남학교 남학생에 비해 해당 분야의 일을 ‘남성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학교 여학생에 비해 남녀공학 여학생이 해당 분야의 일이 ‘남성에게 어울린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단성학교에 비해 남녀공학 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성 고정관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공학 교육이 성평등한 역할관 함양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남녀공학 환경이 오히려 성역할 고정화를 강화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그러나 남녀공학의 학급 운영 형태와 성별을 고려했을 때 학급형태에 따른 여학생들 간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남학생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녀분반의 남학생이 남녀합반의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공학의 남녀분리 학급보다 남녀합반 학급에서 성 차별이 더욱 드물게 나타나고(Lee, Marks, & Byrd, 1994),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있는 조건이 성역할의 고정화

가 상대적으로 덜 나타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준다.

일곱째, 일반적으로 여성이 강세를 보이는 국어 과목이나 남성이 강세를 보이는 수학, 과학, 체육 과목에서의 남녀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과목에 대한 효능감이나 선호도에서의 남녀 차이는 남녀공학의 남녀분반보다 남녀합반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녀공학이 교과에 대한 정형화된 성별 선호를 강화시킨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Spielhofer, et. al., 2002; 민무숙, 1992; 정해숙 외, 2009). 그러나 이러한 국어나 수학선호도에서의 남녀 차이가 학교유형에 따라 달라지는지, 가외변인들을 통제한 후 학교유형 간 효과를 검증한 다층분석 결과에서는 이러한 학교유형 간 차이가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남녀공학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성별 성적 차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학생들은 교과과목, 수행평가, 내신성적, 비교과활동 모든 영역에서 남녀 간에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녀분반에 속한 남녀 학생들에 비해 남녀합반에 속한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성별 성적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적으로 남학생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즉 남녀공학에서 여학생들 때문에 남학생들의 내신성적이나 수행평가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특히 남녀공학내 남녀합반으로 남녀가 함께 생활하는 학생들이 이러한 성별 성적 차이에 대한 인식이 더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최근 남녀공학 기피 논란과 관련된 학부모들의 일반적 생각이 맞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2. 정책 제언

가. 남녀공학 교육의 확대 운영

경남지역의 중학교 남녀공학 현황 분석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중학교 265개교 중 69.1%에 해당하는 183개교가 남녀공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중학교의 77.0%가 남녀공학인 것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남녀공학 183개교의 학급 운영 형태를 살펴보면, 남녀합반(남녀혼성) 학급을 운영하는 학

교가 73.2%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남녀분반(남녀분리) 학급을 운영하는 학교가 24.6%, 학년에 따라 남녀합반과 남녀분반을 혼합하여 운영하는 학교도 2.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남녀공학은 같은 학교 내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재학하는 수준을 넘어 남녀학생이 같은 학급에 편성되어 자연스럽게 함께 생활하는 것이라고 볼 때, 상대적으로 남녀공학 중학교 수는 적은 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교육의 많은 부분이 대학입시라는 목표 아래 학생들의 학업성취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 남학생들의 내신성적을 위한 남녀분리교에 대한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남녀공학 일반계 고등학교의 남녀합반 비율은 중학교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단성학교나 남녀공학이냐의 여부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 할 수 있다(이혜영 외, 2011). 남녀공학과 단성학교 학생들 간의 인지, 정서, 행동에서의 차이를 단순히 비교함으로써 남녀공학을 지지 혹은 반대하느냐가 아니라, 그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학교의 성별 유형에 따른 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교육활동 경험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들이 계층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 가외변인들을 통제했을 때 학교의 성별 유형은 학업성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Marsh, 1989; 정해숙·정경아, 1995). 본 연구에서도 남녀공학과 단성학교 간의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측면에서 교육적 효과를 비교했을 때 학교유형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 당장의 학업적 효과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청소년기 이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남녀가 조화롭게 협업의 미래 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성평등 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교육이라 할 때, 남녀공학 환경은 남녀가 함께 살아가는 성인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교육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성과의 관계를 더 자연스럽게 용이하게 만든다(오민아, 2013). 학교를 졸업한 뒤의 사회생활은 남녀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다. 또 현대는 남녀평등의 사회로 남녀가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서로 협업해야 할 때이다. 이런 측면에서 학업성취나 생활지도의 편리성 등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남녀학생을 구분하는 환경보다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더불어 살아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성인 사회의 삶을 준비하는 데 보다 바람직한 교육환경이라 할 수 있다.

나. 남녀공학 교육의 질적 제고 및 내실화 추진

본 연구에 따르면, 학부모들의 우려와 달리 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나 이성교제 등에 있어서 남녀공학과 단성학교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녀공학 교육이 학생들의 성 정형화된 고정관념이나 성역할 의식을 완화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공학이 성평등한 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를 제공한다. 남녀공학 교육의 중요한 장점 중 하나는 학생시절부터 남녀 간의 자연스런 접촉을 통한 반대 성에 대한 이해와 성별 차이를 넘나드는 활동으로 인해 성차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전통적인 성역할 의식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 따르면, 남녀공학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생활지도 및 학급활동 측면에서 교사들의 불필요한 남녀 구분 및 무의식적 성 차별적 발언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남녀공학 내에서 이성을 의식해서 수업시간에 떠들지 않거나 거친 행동 및 언어를 자제하는 것과 같이 이성의 존재로 인해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는 남녀공학의 긍정적 효과도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남녀공학 교육이 성평등한 교육의 장으로서 기능하고 발전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과 개선이 필요한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남녀공학 학교 수를 늘리는 양적인 확대가 아니라 남녀공학 교육 및 남녀분리 수업 운영의 질적 내실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양성평등교육이란 양성에게 똑같은 교육의 목적, 기회, 과정, 내용, 방법 등을 제공하는 기회의 평등이며, 또한 양성이 동일한 학습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성차를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활용하는 결과의 평등이다(김재춘·왕석순, 1999).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똑같은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인 평등을 가져올 수 없다. 따라서 학생들이 건전한 성평등 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남녀 간의 생물학적 차이는 존중하되 남녀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남녀 차이가 확실히 나타나는 체육수업의 경우 실제 남녀학생들의 신체적 차이와 학습 수준의 차이, 그리고 활동량의

차이 등 차별이 아닌 남녀의 서로 다름, 즉 차이를 인정하고 성별에 맞게 체육 수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성인지적 교육이 필요하다(김동식, 2012).

다. 교원의 성평등 교육 확대 및 교원연수 강화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녀공학 학생들은 남녀공학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학교규칙을 공평하게 적용'과 '성별 구분이 아닌 개인의 특성과 적성에 따른 학급활동 배정 및 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녀공학의 남녀합반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학교규칙을 공평하게 적용'하는 것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였다.

또한 학생들에게 남녀공학의 불편한 점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들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을 때에도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교사들의 무의식적인 성차별적 발언 및 남녀 차별적 행동'이었다. 예를 들어, 학교 생활지도 및 학교 교칙 적용과 관련하여 여학생들은 남학생이 교복을 줄여 입는 것보다 여학생들이 교복을 줄여 입는 것에 대해 더 엄격하다는 불만을 토로하였다. 반대로 남학생들은 교사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체벌을 약하게 하거나 여학생들을 우대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학급활동 측면에서 여전히 이중적 성 규범이나 교사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교사들의 '남자가' 혹은 '여자가' 식의 성 고정관념적 발언은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사회의 통념적인 성역할을 암묵적으로 학습하게 만든다(정해숙 외, 2013). 즉 교사의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젠더 감수성은 교수 과정 중에 직·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이것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의 성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 형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사나 동료학생으로부터 성 고정관념적 발언을 들은 경험 정도는 5점 척도 중 평균 2.5점 내외로 높지 않게 나타나 학교교육 안에서 성평등 의식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성별 차이에 대한 경험 인식이 높게 보고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학교에서의 성평등 문화 조성 및 성평등 교육 실천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장의 성평등 의식과 의지는 학교 전체의 성평등 교육 및 성평등 문화

정착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교원 대상 성평등 교육 관련 직무 연수 운영 현황에 따르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원격연수를 제외하면 경상남도교육연수원에서 초등학교 교원 및 중등 관리자 대상의 집합연수가 년 2회 실시된 것이 전부이며, 연수 참여 인원도 각 연수당 40명 내외로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교원의 성평등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장 및 교원에 대한 성평등 교육 관련 연수를 확대·실시할 필요가 있다.

라. 남녀공학 교육 및 남녀분리 수업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제고

최근 남녀공학 논의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남학생들의 학업부진 현상이다. 수행평가를 비롯한 내신성적에서의 여학생 우세 현상은 남학생 학부모들로 하여금 남녀공학을 기피하게 하는 제1순위 이유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게 ‘밀리거나’, ‘주눅이 드는’ 상황이 많다는 점도 남녀공학에서 남녀혼성학급 운영을 제고하고 분리학급 운영으로 전환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힌다(정해숙 외, 2009; 이해영 외, 2011).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녀공학 학생들은 교과과목, 수행평가, 내신성적 등에서 여학생과 남학생 간에 성적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녀공학의 남녀분반에 속한 남녀학생들에 비해 남녀합반에 속한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성별 성적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적으로 남학생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즉 남녀공학에서 여학생들 때문에 남학생들의 내신성적이나 수행평가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남녀공학 내 남녀합반으로 남녀가 함께 생활하는 학생들이 이러한 성별 성적 차이에 대한 인식이 더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최근의 남녀공학 기피 논란과 관련된 학부모들의 일반적 생각이 맞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들이 남녀공학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성이 함께 있으면 여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 외모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이성교제를 할 가능성이 높아 학업에 집중하지 못할 거라는 염려가 자리 잡고 있다(정해숙 외, 2013; 김희삼, 2013).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학교 남학생과 남녀공학 남학생 간

의 이성친구 유무 비율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모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도 남학교 남학생에 비해 남녀공학 남학생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녀공학 학생들이 이성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성교제가 더 많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본 연구결과에서는 남녀공학 내 남녀합반의 수업태도가 남녀분반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남녀학생이 함께 있으면 교류도 많아지고 관심도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성 간의 교류 빈도와 관심의 증가가 반드시 문제적 상황을 불러온다고만 볼 수는 없으며, 문제가 생긴다는 의견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남녀공학이라는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다른 가외요인들이 많이 있다(정해숙·정경아, 1995). 따라서 학부모들의 남녀공학 교육 및 남녀분리 수업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성 고정관념을 깨트릴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

마. 교육과정과 연계된 성평등 교육 실시 및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대부분의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은 교과시간보다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의 자율활동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평등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도 외부강사 초청 특강이나 유인물 배포, 캠페인 등과 같이 일회성 행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교과외의 경우 각 교과마다 교육내용을 지도하기 위한 수업시수가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시간을 활용하여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성평등과 관련된 교육내용이 다루어지는 교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속에서 성평등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여학교의 경우, 남학교나 남녀공학에 비해 성평등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낮았지만, 성평등 교육을 교과시간에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여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의 성적 고정관념이 가장 낮고 진보적인 성역할 의식을 갖고 있는 것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경우,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교과수업을 받는 데 보내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과시간에 수업내용과 연계하여 자연스럽게 성평등 의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및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성평등 교육은 학교에서의 일방적인 지식의 전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 차별 현상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나가면서 내면화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내용이 학생들에게 보다 현실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으로 보강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이 성평등 교육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의 일부 시간을 할애하여 일회성 교육이나 전달식 방법이 아니라 토론식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학생들 스스로가 남녀가 이겨야하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면서 공존해 나가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창희, 이정민, 박혜연(2011). **단성학교 교육의 성적 효과**. 157-174.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잘 활용 분석 심포지엄 자료집: 제2주제 교육정책 효과 분석.
- 권오남, 곽삼근, 임형, 허라금(2001). **고등학교의 시설 및 교원조직 운영 실태: 공학과 별학 간의 비교**. **교과교육학연구** 5(2), 87-108.
- 김경년(2013). **남녀공학이 학교풍토와 학습시간에 미치는 영향: 집단 판별 및 인과관계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3(4), 29-57.
- 김동식(2012). **남녀공학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성의식 향상을 위한 성인지적 교육환경 조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이슈페이퍼.
- 김수아(2017). **사회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의 혐오, 차별 표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차별 표현의 문제와 개선 방안**. **새국어생활** 27(3), 49-63.
- 김양분, 강상진, 유한구, 남궁지영(2003) **학교 교육 수준 및 실태 분석 연구: 고등학교**. 한국교육개발원.
- 김재철(2008). **중학교 남녀공학의 교육적 효과 분석**. **교육평가연구**, 21(1), 149-174.
- 김재춘, 왕석순(1999).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 교육실현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희삼(2013). **학업성취도 분석은 초중등교육에 대해 무엇을 말해 주는가?** 한국개발연구원.
- 남궁지영, 박경호, 김혜자, 김양분, 임현정(2017). **2017 한국교육종단연구-한국 교육종단연구2013: 중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과(II)**. 한국교육개발원.
- 마경희, 문희영, 김현경, 박지성(2016). **남성의 양성평등정책 통합을 위한 정책 논리와 추진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민무숙(1991). **중등교육에 있어서 남녀공학의 교육 효과에 대한 제논의**. **교육개발**, 13(3), 94-102.
- 민무숙(1992). **성별 학교유형이 학생들의 특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에 관한 연**

- 구: 전통적 관점과 여성주의 관점의 탐색. *여성연구*, 10(2), 209-237.
- 박문태, 나정, 이재분(1987). *남녀공학(병학) 운영 효과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서영선, 안광식, 최용호(2017). *남녀공학과 비공학 중학생의 학교생활태도에 대한 인식 분석*.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 시기자, 신진아, 박인용, 구남옥, 김완수, 구슬기(2014). *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변화 추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안상수, 김인순, 이정현, 윤보라(2015). *남성의 삶에 관한 기초연구(II): 청년층 남성의 성평등 가치 갈등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안상수, 김인순, 최윤정, 김금미, 최연혁(2012).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IV): 초·중등 학교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2018. 1.). *여성·가족·청소년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한 민주사회. 2018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 오민아(2013). *남녀공학제도를 둘러싼 논쟁: 학업성취도와 양성평등교육의 측면을 중심으로*. *여성연구논총*(12), 89-110.
- 오지원(2012). *남녀공학 중학교 혼성학급과 비혼성학급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비교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노홍(2007). 미국 공립 남녀분리학교와 평등논의. *법조*, 56(6), 223-258.
- 이상복(2008). 미국의 단성교육. *교육개발* 2008 가을, 46-53.
- 이수연 외(2014).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숙정(2006). 학교변인과 학생들의 교사신뢰와의 관계: 학교급, 학교·학급규모, 남녀공학 유형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44(1), 171-194.
- 이영희(2007). *남녀공학 혼성반, 비혼성반 및 비공학 중학생의 사회성, 학습동기, 성역할 정체감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준엽, 신형진(2018). *성별 학급구성이 교우 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9(1), 93-115.
- 이혜영, 정광희, 조난심, 김일혁, 최혜진(2011). *남녀공학고의 단성고 전환 타당성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정해숙, 마경희, 최윤정(2013). *초·중등학교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여

성정책연구원

정해숙, 유진은, 김미윤(2009). **남녀공학 중등학교에서의 성별 교육 실태와 향후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해숙, 정경아(1995). **남녀공학 고등학교의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후조, 김대영, 조호제, 민부자, 하화주(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과 교과 연계 방안 연구: 역량과 범교과 학습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부.

Atherton, B. F. (1973). Coeducational and single-sex schooling and happiness of marriage. *Educational Research*, 15, 221-226.

Coleman, J. S. (1961). *The adolescent society*. New York: Free Press of Glencoe.

Cowell, B. (1981). Mixed and single-sex grouping in secondary schools. *Oxford Review of Education*, 7(2), 165-172.

Dale, R. R. (1974). *Mixed or single sex schools(Vol. II): Some social aspect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Feather, N. T. (1974). Coeducation, values, and satisfaction with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6(1), 9-15.

Harris, W. B. (1986). Coeducation and sex roles. *Australian Journal of Education*, 30(2). 117-131.

Lee, V. E., & Bryk, Y. S. (1986). Effects of single sex secondary schools on student achievement and attitud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8, 381-395.

Mael, F. A., Alonso, A., Rogers, K., & Gibson, D., Rogers, K., & Smith, M. (2005). *Single-sex versus coeducational schooling: A systematic review*.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planning, Evaluation and Policy Department, Policy Program Studies Service.

Mahony, P. (1985). *Schools for the boys: Co-education reassessed*. London: Heinemann Education Books.

Marsh, H. W.(1989). Effects of attending single-sex and coeducational

- high schools on achievement, attitudes, behaviors, and sex differenc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1): 70-85.
- Riordan, C. (1990). *Girls and boys in school: Together or separate?*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Riordan, C. (1994). *A case for boy's schools, single-sex schooling: Proponents speak*. U.S. Department of Education, 13. Washington, DC Office of Educational Research and Improvement.
- Riordan, C. (1998). *The future of single-sex school. Separated by sex a critical look at single-sex education for girls*. American Associated of University Women Educational Foundation, 53. Washington, DC.
- Spielhofer, T., O'Donnel, L., Benton T., Schagen, S., & Schagen, I. (2002). *The impact of size and single-sex education on performance*. National Foundation for Education Research.

[부록] 설문지

중학교 남녀공학 운영 실태 및 교육적 효과 분석 연구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남녀공학교와 단성학교(남학교, 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교육경험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이 응답한 결과는
여러분이 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며, 응답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9.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GYEONGSANGNAMDO EDUCATION RESEARCH & INFORMATION INSTITUTE

※ 다음은 여러분이 재학 중인 학교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학교 소재지	___ ① 창원 ___ ② 진주 ___ ③ 통영 ___ ④ 사천 ___ ⑤ 김해 ___ ⑥ 밀양 ___ ⑦ 거제 ___ ⑧ 양산 ___ ⑨ 의령 ___ ⑩ 함안 ___ ⑪ 창녕 ___ ⑫ 고성 ___ ⑬ 남해 ___ ⑭ 하동 ___ ⑮ 산청 ___ ⑯ 함양 ___ ⑰ 거창 ___ ⑱ 합천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규모	___ ① 시 ___ ② 읍면
학교의 설립 유형	___ ① 국공립 ___ ② 사립
학교 유형 및 학급 형태	___ ① 남학교 ___ ② 여학교 ___ ③ 남녀공학(남녀합반) ___ ④ 남녀공학(남녀분반)

※ 다음은 학생 여러분에 대한 간단한 인구통계학적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성별	___ ① 남자 ___ ② 여자														
본인의 학교 성적 (※2018년 1학기 성적 기준)	___ ① 매우 못하는 편 ___ ② 못하는 편 ___ ③ 보통(중간) ___ ④ 잘하는 편 ___ ⑤ 매우 잘하는 편														
부모님의 학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아버지</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어머니</td> </tr> <tr> <td>___ ① 초등학교 졸업</td> <td>___ ① 초등학교 졸업</td> </tr> <tr> <td>___ ② 중학교 졸업</td> <td>___ ② 중학교 졸업</td> </tr> <tr> <td>___ ③ 고등학교 졸업</td> <td>___ ③ 고등학교 졸업</td> </tr> <tr> <td>___ ④ 전문대 졸업</td> <td>___ ④ 전문대 졸업</td> </tr> <tr> <td>___ ⑤ 4년제 졸업</td> <td>___ ⑤ 4년제 졸업</td> </tr> <tr> <td>___ ⑥ 대학원(석사, 박사) 졸업</td> <td>___ ⑥ 대학원(석사, 박사) 졸업</td> </tr> </table>	◆ 아버지	◆ 어머니	___ ① 초등학교 졸업	___ ① 초등학교 졸업	___ ② 중학교 졸업	___ ② 중학교 졸업	___ ③ 고등학교 졸업	___ ③ 고등학교 졸업	___ ④ 전문대 졸업	___ ④ 전문대 졸업	___ ⑤ 4년제 졸업	___ ⑤ 4년제 졸업	___ ⑥ 대학원(석사, 박사) 졸업	___ ⑥ 대학원(석사, 박사) 졸업
◆ 아버지	◆ 어머니														
___ ① 초등학교 졸업	___ ① 초등학교 졸업														
___ ② 중학교 졸업	___ ② 중학교 졸업														
___ ③ 고등학교 졸업	___ ③ 고등학교 졸업														
___ ④ 전문대 졸업	___ ④ 전문대 졸업														
___ ⑤ 4년제 졸업	___ ⑤ 4년제 졸업														
___ ⑥ 대학원(석사, 박사) 졸업	___ ⑥ 대학원(석사, 박사) 졸업														
가정 형편	___ ① 매우 못 사는 편 ___ ② 못 사는 편 ___ ③ 보통(중간) ___ ④ 잘 사는 편 ___ ⑤ 매우 잘 사는 편														

1. 다음은 여러분이 재학 중인 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1. 다음은 학생 여러분이 재학 중인 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학교 선생님들은 수업이나 학교생활 중에 성 고정관념적 말(예: ‘남자가...’, ‘여자가...’)을 자주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학교 친구들로부터 성 고정관념적 말(예: ‘남자가...’, ‘여자가...’)을 자주 듣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활교육은 무엇입니까?

- ___ ① 학교폭력 관련 교육(예: 왕따, 집단따돌림 등)
- ___ ② 용의복장 관련 교육(예: 복장, 두발, 화장 등)
- ___ ③ 교우관계 관련 교육(예: 이성교제, 또래관계 등)
- ___ ④ 등하교 관련 교육(예: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석 등)
- ___ ⑤ 기타 (직접 기재: _____)

3. 학생은 지난 1년 동안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양성평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양성평등교육은 가족, 학교, 직장, 일상생활 및 모든 인간관계에서 성별 고정관념과 성별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성 차별적 사회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 ___ ① 예 (☞ 3-1번으로)
- ___ ② 아니오 (☞ 다음 페이지로)

3-1. (☞ 3번에 '① 예'라고 응답한 경우) 학교에서 받은 양성평등교육이 성 고정관념을 바꾸고 양성평등의식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도움이 되었다 ⑤ 매우 도움이 되었다

3-2. (☞ 3번에 '① 예'라고 응답한 경우) 양성평등교육은 주로 어떤 시간에 받았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교과시간(사회, 기술·가정, 체육, 보건 등)
- ②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 ③ 기타 (직접 기재: _____)

3-3. (☞ 3번에 '① 예'라고 응답한 경우) 양성평등교육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외부강사 초청 특강
- ② 가정통신문 또는 유인물 배포
- ③ 글짓기나 캠페인과 같은 참여 활동
- ④ 교과내용 관련 강의식 수업
- ⑤ 교과내용 관련 토론하기
- ⑥ 일상생활의 불평등 사례조사 및 분석
- ⑦ 기타 (직접 기재: _____)

3-4. (☞ 3번에 '① 예'라고 응답한 경우) 학생은 양성평등교육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외부강사 초청 특강
- ② 가정통신문 또는 유인물 배포
- ③ 글짓기나 캠페인과 같은 참여 활동
- ④ 교과내용 관련 강의식 수업
- ⑤ 교과내용 관련 토론하기
- ⑥ 일상생활의 불평등 사례조사 및 분석
- ⑦ 기타 (직접 기재: _____)

II. 다음은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1. 학교에서 동료학생들로부터 선망이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래 보기에서 2개를 골라 순위대로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 | | |
|--|---|
| ① 공부를 잘 하는 것
③ 멋있는 외모를 갖는 것
⑤ 이성친구가 많은 것
⑦ 기타(직접 기재: _____) | ② 운동을 잘 하는 것
④ 교내활동에서 리더로 활동하는 것
⑥ 유머나 사교성 등 성격이 좋은 것 |
|--|---|

2. 여러분은 평소 자신의 모습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입니까? 각 문항을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거울을 자주 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헤어스타일에 신경을 많이 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교복을 변형해서 입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화장을 하거나 피부 관리를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몸매를 가꾸기 위해 다이어트나 체력운동을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학생은 지난 1년 간 일대일로 만나는 이성친구가 있었습니까?

- ___ ① 예 (☞ 3-1번으로)
 ___ ② 아니오 (☞ 4번으로)

3-1. (☞ 3번에 '① 예'라고 응답한 경우) 학생이 만났거나 만나고 있는 이성친구는 누구입니까?

- ___ ① 같은 학교 학생
 ___ ② 다른 학교 학생
 ___ ③ 기타 (직접 기재: _____)

4. 이성친구를 사귀는 것이 본인의 학교생활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생활이 재미있다(재미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된다(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음은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학교친구들과 친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고민을 나눌 학교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학교친구들과 노는 것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숙제를 꼬박꼬박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연습, 복습을 열심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수업시간에 발표하거나 내 이름이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공부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학교공부를 열심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여러분이 재학 중인 학교의 분위기 및 가정 분위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1. 다음은 학교분위기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학교 선생님들은 학생의 입장에서 우리들을 이해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학교 학생들은 선생님들을 믿고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학교 학생들은 선생님들과 친밀하게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좀 더 잘 할 수 있다고 격려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공부를 도와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가정분위기 대한 질문입니다. 평소 여러분의 부모님(보호자)의 생각이나 행동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은 내 이야기를 늘 주의 깊게 들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보호자)께 나의 생각과 고민거리에 대해 거리낌 없이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보호자)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공부 분위기를 조성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보호자)은 학교 공부와 숙제를 확인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6	부모님(보호자)은 성적 관리에 신경 쓰신다.	①	②	③	④	⑤

IV. 다음은 여러분의 학업수행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1. 다음 각 교과를 어느 정도 좋아합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문 항		매우 싫어함	싫어함	보통	좋아함	매우 좋아함
1	국어	①	②	③	④	⑤
2	수학	①	②	③	④	⑤
3	영어	①	②	③	④	⑤
4	과학	①	②	③	④	⑤
5	체육	①	②	③	④	⑤

2. 다음 각 교과과목의 수행 정도는 어떠합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국어	1	나는 내 또래의 다른 학생들에 비해 국어를 잘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국어 성적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국어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이나 문제들이 쉽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수학	1	나는 내 또래의 다른 학생들에 비해 수학을 잘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수학 성적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수학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이나 문제들이 쉽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영어	1	나는 내 또래의 다른 학생들에 비해 영어를 잘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영어 성적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영어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이나 문제들이 쉽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V. 다음은 자신의 평소 모습이나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1. 다음은 성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남자와 여자는 선천적으로 다른 능력과 성향을 갖고 태어난다.	①	②	③	④	⑤
2	남자는 여자에 비해 논리적 사고를 잘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남자는 여자에 비해 성취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여자는 남자에 비해 감정이 풍부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여자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돌보는 데 적합한 성향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남자와 여자의 성향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자는 가정에서, 남자는 사회에서 일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7	직업에 있어서 여자에게 적합한 일과 남자에게 적합한 일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것이어서 교육을 통해 바꾸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직업 유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설명하고 있는 직업 유형이 남성 또는 여성에게 얼마나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항		남성에게 어울린다	남녀 간 차이 없다	여성에게 어울린다
1	도구 또는 공구나 기계를 다루는 일	①	②	③
2	분석적인 사고를 통해서 복잡한 원리나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일	①	②	③
3	미술·문학·음악 작품 등을 창작하거나 자신을 표현하는 일	①	②	③
4	다른 사람들의 복지, 교육, 치료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	①	②	③
5	개인이나 조직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지도하거나 설득하는 일	①	②	③

3. 다음의 문항들을 읽고 평소 자신의 모습이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말할지 미리 생각하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정확하게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대화할 때,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는 것을 말이나 몸짓으로 보여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과제를 함께 하는 친구들끼리 다투면, 서로 화해하도록 나서서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과제를 함께 하는 친구들이 힘들어 할 때 힘이 나도록 응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함께 해야 하는 과제를 잘 마치기 위해서 친구들과 좀 더 친해지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사람을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학급이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학급회의나 수업시간에 학교나 학급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내 생각을 잘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VI. 다음은 학생 및 부모님이 선호하는 학교 유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1. 고등학교 진학 시 학교를 선택할 때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기준은 무엇입니까?

- ①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
- ② 성별 학교 유형(남녀공학고 또는 남학교/여학교) (☞ 1-1번으로)
- ③ 학교의 명망(전통, 대학진학률 등)

1-1. (☞ 1번에 '② 성별 학교 유형'이라고 응답한 경우) 고등학교 진학 시, 본인이 1순위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의 성별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남고 또는 여고 (☞ 1-2번으로)
- ② 남녀공학고 (☞ 1-3번으로)

1-2. (☞ 1-1번에 '① 남고 또는 여고'라고 응답한 경우) 남고 또는 여고를 희망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 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이성에 신경 쓰지 않고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으므로
- ② 여학생(또는 남학생)과 같이 공부하면 내신성적이 불리하므로
- ③ 동성끼리 학교생활 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 ④ 성별이 비교되지 않고, 성별 특성에 맞게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으므로
- ⑤ 기타 (직접 기재: _____)

1-3. (☞ 1-1번에 '②남녀공학교'라고 응답한 경우) 남녀공학교를 희망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이성을 잘 이해하고 어울려 지내는 능력을 키울 수 있으므로
- ② 이성과 함께 학교생활 하는 게 더 재미있기 때문에
- ③ 이성친구를 쉽게 사귄 수 있기 때문에
- ④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 ⑤ 기타 (직접 기재: _____)

2. 고등학교 진학 시, 부모님(보호자)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실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
- ② 성별 학교 유형(남녀공학교 또는 남학교/여학교) (☞ 2-1번으로)
- ③ 학교의 명망(전통, 대학진학률 등)

2-1. (☞ 2번에 '② 성별 학교 유형'이라고 응답한 경우) 고등학교 진학 시, 부모님(보호자)이 1순위로 진학을 희망하시는 학교의 성별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남고 또는 여고 (☞ 2-2번으로)
- ② 남녀공학교 (☞ 2-3번으로)

2-2. (☞ 2-1번에 '① 남고 또는 여고'라고 응답한 경우) 부모님(보호자)이 남고 또는 여고를 희망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이성에 신경 쓰지 않고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므로
- ② 여학생(또는 남학생)과 같이 공부하면 내신성적이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므로
- ③ 동성끼리 학교생활 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므로
- ④ 남녀가 비교되지 않고, 성별 특성에 맞게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므로
- ⑤ 기타 (직접 기재: _____)

2-3. (☞ 2-1번에 '②남녀공학고'라고 응답한 경우) 부모님(보호자)이 남녀공학고를 희망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이성을 잘 이해하고 어울려 지내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므로
- ② 이성과 함께 학교생활 하는 게 더 재미있다고 생각하시므로
- ③ 이성친구를 쉽게 사귄 수 있다고 생각하시므로
- ④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므로
- ⑤ 기타 (직접 기재: _____)

※ 스크리닝 문항

1. 학생이 현재 다니는 학교는 남녀공학입니까?

- ① 예 (☞ VII 으로)
- ② 아니오 (☞ 설문 종결)

(※ 여기서부터는 남녀공학 중학교 재학생만 응답!)

VII. 다음은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1. 학교생활에서 이성에 대한 의식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이성을 의식해서 수업시간에 떠들거나 장난을 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이성을 의식해서 학교규칙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이성을 의식해서 거친 행동이나 언어를 자제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 동아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남녀공학 중학교에서 본인은 성별에 따른 성적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 항		여학생이 매우 유리	여학생이 다소 유리	차이 없음	남학생이 다소 유리	남학생이 매우 유리
1	교과과목 성적	①	②	③	④	⑤
2	수행평가 성적	①	②	③	④	⑤
3	내신 성적(지필 + 수행)	①	②	③	④	⑤
4	비교과 활동	①	②	③	④	⑤

3. 남녀공학 중학교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하거나 문제가 되는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다음의 방안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 항		전혀 필요하지 않다	거의 필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남학생과 여학생에 별도로 필요한 시설 확충(예: 체육관, 탈의실, 휴게실, 보건실 등)	①	②	③	④	⑤
2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교육활동 확대(예: 동아리활동, 프로젝트 활동 등)	①	②	③	④	⑤
3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학교규칙을 공평하게 적용	①	②	③	④	⑤
4	남녀 특성을 반영한 체육수업 운영 및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4. 재학 중인 남녀공학의 불편한 점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불편한 점	
개선 요구사항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8년 교육정책 자체연구보고서 중학교 남녀공학 운영 실태 및 교육적 효과 분석

발행일 | 2018년 12월 28일 인쇄
2018년 12월 28일 발행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원 장 황 선 준

기획 |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관 김진규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이상제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박소진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이화순

연구자문 |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책임연구원 류영철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연구위원 유병준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연구위원 윤연경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연구위원 손영현

연구지원 |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주무관 곽동욱

발행기관 |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51141) 경상남도 창원시 사림로 111번길 20
누리집 : <http://www.gerii.go.kr>
전화 : (055)269-0777
전송 : (055)269-0789

인쇄 | 삼영인쇄 주식회사 (Tel. 055-252-3041)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의 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본 보고서는 경남교육사이버도서관 <http://ebook-lib.gerii.go.kr>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2018년 교육정책 연구보고서

중학교 **11권**
남녀공학 운영
실태 및 교육적
효과 분석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GYEONGSANGNAMDO EDUCATION RESEARCH & INFORMATION INSTITUTE



비매품/무료



9 791189 822002
ISBN 979-11-89822-00-2